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사회 전환기  
포스트 소비에트 고려인의 정체성 정치  
(문화인류학적 연구)

명순욱 저



**UDS 323/324 (574)(035.3)**

**LBC 66.3 (5Kar)**

**M 99**

카자흐국립대학교 학술위원회에 의한 출판 발행에 대해 추천된 도서임.

*Рекомендовано к изданию Ученым советом(протокол №10 от 24.06.2019) и РИСО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протокол №5 от 27. 06.2019)*

### 논평

명드미트리. 정치학 박사,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강게오르기, 역사학 박사, 아바야국립사범대학교

강신표. 인류학 박사, 인제대학교

판카즈 모한. 역사학 박사, 날란다 대학교, 인도

### 명순옥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사회 전환기 포스트 소비에트 고려인의 정체성 정치 (문화인류학적 연구), 단행본. 알마티: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 출판 «Қазақ университеті», 2019. 214 페이지

### Мионг Сун Ок

M 99 Политики *идентичности* пост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оциальном переходе после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азахстана (культурный 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ий подход): монография / Мионг Сун Ок. – Алматы: «Қазақ университеті», 2019. – 214 с.

**ISBN 978-601-04-4056-2**

이 단행본은 구 소련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미시적 문화적 지형을 밝혔다. 연구는 참여관찰, 심층 인터뷰 등의 문화 인류학적 조사방법과 고려인의 신문과 역사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В монографии предпринята попытка исследовать микроскопическую культурную топографию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после падения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сследование было разработано с данными исследования, основанные на 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ой методологии - наблюдения участия, углубленные и неформальных интервью.

**UDS 323/324 (574)(035.3)**

**LBC 66.3 (5Kar)**

이 연구출판은 2019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AKS-2019-P09).

Эта публикация была поддержана грантом Программы 2019 корееведения Академии корееведения (AKS-2019-P09).

ISBN 978-601-04-4056-2

© Myong Soon-ok, 2019

© Al-Farabi KazNU, 2019

## 감사의 말

나의 연구와 단행본 출판은 많은 분들의 협조와 지지의 결과물이다. 먼저 저자의 연구와 학술활동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저자의 소속 대학인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의 문화학, 종교학, 철학 그리고 한국학 분야의 선배 교수님들과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동안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수집의 원천으로서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에 기꺼이 응해 주신 고려인 협회 산하의 고려인 문화센터, 고려인 합창단, 그리고 교회 및 원불교에 계신 분들에게, 전화와 만남에 수시로 응해 주셨던 정보제공자들, 그리고 현지조사 중에 수없이 스쳐간 도움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지면으로 다시 감사드린다.

이 연구는 학문적 멘토로서 작고하신 누르자노브 베켈 갈름자노비치 교수님과 강신표 교수님의 격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연구의 기초는, 내가 문화 인류학 박사과정에 있을 때부터 해외지도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알마티를 여러 번 어려운 걸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셨던 강신표 교수님의 현지조사연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연구를 위해 절실했던 수많은 관련 서적과 자료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던 강교수님의 무한하고 큰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 알마티를 방문하실 때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응원해 주셨던 김봉영 여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나의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신 아바야 국립사범대 역사학자 강계오르기 교수님, 본교 극동학과의 한국학의 명 드미트리 교수님, 그리고 학문적 통찰로서 완성된 글을 끝까지 분석하고 비평해주신 인도 나란다 대학의 모한 판카자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바쁘신 중에도 연구물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학술적 글쓰기의 엄밀성과 논리성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동국대 신나민 교수님께 큰 빛을 지고 있다. 연구활동 중 가장 가까이서 무시로

도움을 주었던 문화학과 알좌노바 누를한 박사님께도 언제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의 결실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출판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안게 되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나의 긴 연구기간 동안 인내하고 이해해 준 나의 남편 그리고 딸과  
아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연구완성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기뻐하실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친다.

2018년 겨울

# 차례

감사의 말 · 3

축어 및 용어 · 7

서언 Введение · 8

## 제1장 고려인 정체성 정치에 대한 연구의 개요와 의의 · 9

1 고려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9

2 문화 인류학적 접근 방법 · 17

3 연구의 대상과 고려인 연구의 한계 · 20

## 제2장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개념과 이론 · 24

1 민족과 이산에 대한 개념 · 24

2 비본질적, 유동적 주체 · 27

## 제3장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 36

1 연해주 한인 디아스포라 형성 · 36

2 중앙아시아 소비에트 고려인 정착 · 50

3 구 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지위 · 67

제4장 고려인 강제이주와 러시아화 · 93

- 1 모범 소비에트 고려인 · 93
- 2 소비에트 고려인의 언어와 작명 · 100
- 3 고려인 민족집단의 내부 분화 · 109

제5장 사회 전환기 고려인의 정체성 정치 · 125

- 1 서울 올림픽과 고려인의 민족적 구심력 강화 · 125
- 2 역사인식의 차이, 그리고 모국과의 경계 · 153
- 3 새로운 독립국의 국민 되기 · 178

제6장 고려인 정체성 정치의 결론과 함의 · 200

참고문헌 · 208

초록 · 212

## 축어 및 용어

АПРК	Архив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대통령직속 문서보관서
ГАП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연해주 문서보관소
ГАХ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Хаваровского края 하바롭스크 문서보관소
АНК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АКК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고려인 협회
АКНЦ	Алмат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알마티 고려인 민족센터
КАХАК	Корейское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고려인 과학기술협회
СОВНАРКОМ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소련 인민위원회
ВКП-б	Всесоюзна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большевиков 볼셰비키 공산당 연맹
АО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자치주
КАЗРИС	Казахский рис 카자흐스탄 고려인 최초 벼재배 콜호즈
Корё Ильбо Ленин Кичи	고려일보, 카자흐스탄 고려인 신문 레닌기치, 구 소련 고려인 신문

## ВВЕД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 антропология всегда стремилась установить коммуникацию с мирами других и постоянно осуществлять саморефлексию. В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глобальная деревня» становится меньше в результате сжатия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времени, границы государства, полагаемые ранее едиными, независимыми и четко очерченными, размываются,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терминологии, такие как «глобализация», «транснационализм», «транстерриториальность» и «постмодернизм».

Корейцев (Goryeoins) как малую этническую группу обычно рассматривали как гомогенное сообщество. В отличие от опред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как гомогенных рус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в существующ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действительные корейцы испытывали глубоко укорененные деления внутри своих групп, а также неудобства от процесса приспособления к гражданственности в новом независимом государстве. Кроме того, они выражали отчаяние и обиду к своей Родине, и поднимали шум в отношении укоренившихс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втор исследует несущественный аспект идентичности, показывающий значение и ц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жизни, изучая внутреннюю динамику и различия в культурной топографии. Проведенные полев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феры их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ремившиеся установить коммуникацию с ними, могут стать важными положениями для дальнейш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понимания их.

Исследование ставит целью определить динамику политик идентичности корейцев как этническ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в нов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азахстана.



# 제1장 고려인 정체성 정치에 대한 연구의 개요와 의의

## 1. 고려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포스트 소비에트 고려인에 대한 심층연구의 필요성

서구의 계몽시대 이후 제국주의자에 의한 식민지가 개척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태동하였고, 이에 따르는 현지조사라는 실천적 탐구와 학문적 탐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왔다. 타자에 대한 연구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굳건한 경계가 전제되어 있었다.

문화간 경계를 짓고 각 경계내의 문화를 본질적이며 균질적이라고 전제하며 자아와 타자문화를 고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도전을 받고 있다(Nicikawa 외, 354). 커뮤니케이션과 하이테크의 발달로 지구촌은 시, 공간적으로 압축되어 점점 작아지면서, 통일되고 독립적이며 분리된 공간이라 믿었던 국가라는 경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은 각 학문영역에 ‘세계화’, 초국가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을 탄생시켰다.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의 등장은 본질적이라 인식했던 기존의 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Sen; Nicikawa 외).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를 대립주체들의 끊임없는 상호관계 속에서 동요되는 경계지점에 주목하는(Spivak; Bhabha 1994) 한편, 포스터모더니스트들은 미결정적이고 파편화되는 주체에, 그리고 일부 문화연구 이론가는 정체성은 ‘있음(Being)’의 문제만이 아니라 ‘되어감(becoming)’의 문제로 인식하며, 정체성을 비 안정적이고 유동하며 하나의 구성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Hall 1992).

연구대상자인 고려인은 같은 한민족으로 모국의 한국인과 혈연적 동질성을 가지지만 완전히 상이한 문화적 지형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그들만이 겪어왔던 집단적 역사적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구 소련 고려인 사회는 88 서울올림픽과 구 소련의 해체로 큰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1930년대 말 강제이주 이후 강하게 통제된 소비에트 사회에 동화되어왔지만 기존 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공화국들이 탄생하는 사회변동기에 자신들의 존재가 흔들렸다.

고려인사회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반공국가의 틀을 깨고 부강한 자본주의 모국으로 등장하였다.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고려인들은 공식적으로 한국으로 초청되어 동족과의 ‘감동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점차 각 분야의 교류도 확대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로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한국의 세계적 경제적 위치를 실감케 했고, 같은 한민족으로서 소수민족인 고려인은 현지사회에서 부강한 모국의 후광을 받고 있었다. 구 소련지역과의 개방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실로 많은 부문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두 한민족은 양적 교류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상호 기대치도 상승하였지만, 그 이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수준이나 정서적인 교류에 있어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어, 서로에게 단절되었던 역사로 인한 간격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인들은 혈연적 모국에 대한 기대에 실망하고, 또한 거주국에서 소비에트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자신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신들을 갱신해 나가야 하는 현실적 억압을 안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연구자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민족신문 <고려일보>의 전신인 <레닌기차>의 기자로 지냈으며 민족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고려인 지식인을 알게 되면서였다. 그는 사할린 출신으로 고려인 중에서는

드물게 모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며,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중개역할이나 통역을 해온 경험이 풍부했다. 그런데 그가 느낀 바에 의하면 한국인은 자신들을 같은 동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을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이고 믿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각인되어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고려인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었다. 고려인과 한국인 사이 서로를 실망시키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카자흐스탄을 찾는 한국인은 혈연적 동포이며 언어적 장애를 해결해줄 고려인을 비즈니스 조력자로 찾는 것은 하나의 수순이 되었다. 고려인 스스로 자신들은 러시아인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듯이, 모국과의 단절된 역사만큼 두 한민족의 이해하는 데에 장벽은 높았으며, 서로를 향해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하며 오해와 갈등은 깊어갔다. 연구자는 소련의 몰락과 사회대변동으로 사회적 기반을 상실했으며, 88올림픽 이후 기대를 갖게 되었던 모국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귀속사회에서는 새로운 토착민 주도의 민족국가의 건설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차별을 받는 고려인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 연구의 목적

연구는 구 소련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여 88 서울올림픽, 소련 해체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독립이라는 일련의 대격변으로 인해 고려인 사회의 기반이 해체되고 또한 새로운 체제를 건설한 독립국의 국민으로서 적응해가는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역동적 문화지형을 드러내고자 문화 인류학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과제를 설정하고 참여관찰과 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기억과 경험이 어떻게 재현되고 해석되며 재생산되는 지를 주목한다.

첫째, 소수민족 고려인 집단은 어떻게 형성되어왔으며, 사회적 변동에

따른 귀속사회에서의 한계 및 지위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나;

둘째, 고려인 이주민의 정체성의 형성과 다양성의 역사적 맥락은 무엇인가;

셋째, 서울 올림픽 행사와 체제해체 등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고려인집단 내부, 그리고 모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

넷째, 사회 지배적 주체가 전복된 상황과 새롭게 탄생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 가.

소수민족 고려인 집단내부의 문화적 지형을 고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의 고문서 자료위주와 설문조사 등 표층적 연구에 머물던 고려인에 대한 연구를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여 고려인 사회 내부의 심층을 밝히게 된다.

둘째, 고려인 소수민족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보여온 민족 동질적 시각의 접근을 경계하며, 내부자의 시각에 중점을 두어 집단내부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드러내게 된다.

셋째, 고정적이고 본질적이라 보기 쉬운 정체성에 대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질성과 때로는 동질성이 각각 강화되는 경계 짓기의 변화를 밝히게 된다.

넷째, 집단 내부에서 동질적 집단을 향한 배타적 차별과 연대, 대립적 이분법적 틀의 생산과 해체의 과정에서 타자를 형성하는 경계의 취약성을 드러내게 된다.

다섯째, 이주민이 모국의 전통적 문화적 요소는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순환적 논의 보다는 집단 내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긴장관계를 드러내며, 이들 입장에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게 된다.

## 고려인 연구에 대한 문헌적 고찰

냉전체제 해체로 인한 폐쇄적이고 긴 단절의 역사를 마감한 이후,

자신들 스스로 ‘조선인’, ‘조선사람’ 혹은 ‘고려사람’ 이라 부르던 구 소련 한인들은 한국에서는 ‘고려인’이라 불리어지며 많은 국내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990년대 이후 개방과 함께 소비에트 비밀문서의 공개는 고려인들의 매개로 통해 한국 국내학자들이 자료의 접근과 공유를 가능하게 했고, 한국학자들로 하여금 지속적 연구대상의 순례지로 유인하며 괄목할 만한 연구업적을 이루어 내었다.

소련의 개방 이전의 연구자료는 극히 희박하지만 소련의 학자나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한국학자들에 의해 일부 시도된 연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기도 했다. 당시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극동 고려인에 대한 강제이주 이전 시기까지의 고려인 역사를 다룬 소비에트 고려인 김승화(Ким С.Х.)에 의한 <소비에트 한인 역사에 대한 소론> (1965), 해외 한국인 학자 서대숙(Suh, D.S.)의 <소련의 한인(Koreans in the Soviet Union)> (1987), 소련 학자 짜릴가시노바 (Джарылгасинова Р. Ш.)의 소비에트 고려인의 생활문화사에 대한 여러 편의 연구자료들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기초자료였다. 미국에서의 한국인 학자 신연자는 <소비에트 한인(Soviet Koreans)> (1988)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88 서울올림픽 이전에 소련의 여러 지역을 직접 탐방을 시도하여, 그녀의 탐방결과가 언론사를 통해 한국 일반인에게 공개됨으로써 소비에트 고려인의 존재가 알려지고 한국인의 관심을 끌었다. 헬싱키에서 활동한 한국인 학자 고송무는 1987년에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소비에트 중앙아시아 한인)>을 영문판으로 소개했고, 이어 그는 1990년에 <소련의 한인들: 고려사람>을 써서 자료수집과 현지조사를 하면서 맘을 흘린 흔적과 연구에 대한 집념을 볼 수 있다. 그는 많은 고려인들과 접촉하면서 듣고 수집한 내용들을 분석, 정리하여, 이주배경에서부터 고려인들의 일반생활, 벼농사, 언어와 언론, 예술활동, 문학활동 등 고려인 연구의 광범위한 영역과 내용의 섬세함을 보여주었다. 소련의 개방의 물결을 타고 고조되는 고려인 사회에 대한 관심에 비해 자료의 부족함을 실감하던 때에 연구를 갈망했던 당시

한국학자들에게 고송무의 연구는 단비와 같은 것이었고, 그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을 것이다. 그의 연구의 열정은 현지 고려인 학자들의 연구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또한 유창한 현지어 구사도 그의 무기였다고 전해진다.

소련학자 니콜라이 부가이(Бугай Н.)의 <재소한인들의 수난사> (1996), <주민의 이주(Депортация народов)> (2004)에서는 초기의 비밀문서의 공개자료를 근거한 고려인의 강제이주 역사를 조명하였고,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한국 학자 심현용의 연구 논문인 <러시아의 강제 이주된 민족들 명예회복 정책> (1999), 그의 박사논문 <소련의 민족관계에서 민족집단 한인 <Корейский этнос в систем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СССР> (1998)과 <강제이주의 발생 메커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연구: 소련 강제이주 사례를 중심으로> (1999) 등의 자료들은 스탈린 치하에서 수많은 민족집단에 가해졌던 강제이주사건에 대해 민족 개별적이고 특수한 관점으로 치우치기 쉬운 고려인 강제이주사를 세계사적 보편주의적 관점과 소비에트의 민족정책의 틀에서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이것은 학자들이 고려인 강제이주를 민족 특수적 관점으로 보기 쉬운 경향에 경각을 주고 있다. 또한 현지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 자신들도 당시 받은 탄압을 소비에트 정책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는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1991년 소련과의 수교로 인한 좀더 자유로워진 방문과 소비에트 비밀문서 자료들의 개봉 그리고 한국과 독립 공화국들과의 다방면의 활성화된 교류와 현지 학자들과 한국 학자들의 학술적 접촉은 다각적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부문의 연구를 비롯하여 지역학, 한국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인류학적 연구를 보면 이광규와 전경수의 <재소한인 (인류학적 접근)> (1993)은 소련의 해체 직전에 현지조사를 시도하여, 고려인 이민사와 소비에트 고려인 생활의 근거지였던 폴호즈 실태와

의례 및 문예활동에 이르는 종합적 정보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경수의 <까자흐스탄 한인> (2002)는 이전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독립 이후의 상황을 보강하며 이들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 등의 생활양식과 설문조사를 겸하여 재외 한인동포로서의 민족문화적 정체성을 밝혔다. 한 세르게이와 한 발레리의 <한인, 우리는 누구인가?> (1999)는 작가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극동에서부터 강제이주 그리고 소비에트 시절의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났던 구체적 경험을 말하고 있다. 이 자료는 고려인의 역사의 한 단면을 개인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공개된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은폐된 사실을 통해서 고려인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료로 소비에트 공식적인 비밀문서들은 구소련 한인들의 비극의 강제이주역사와 당시의 사건들을 밝혀주는 유용한 증거물이다. 공개된 비문을 근거로 이우해, 김영운의 <1930-40년 이주한인에 대한 백서, 제1권 및 2권(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 годах. Книга первая, вторая)>은 강제이주를 비롯한 소비에트 시기의 소련 공산당 중앙당 위원회, 지방 공화국 당위원회, 주, 구역의 당회의 등 주요 결정문들을 보여준다. 이 자료는 러시아판이므로 한국학자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어려웠지만 이 문제에 도움을 주는 한글 번역판이 나왔다. 고려인 학자와 한국인 학자들의 공동작업으로 하바롭스키 국립 문서보관소(ГАХК)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대통령 문서보관소(АПРК)의 소장문서를 참고로 하여 출판된 3권의 <문서 기록집: 카자흐스탄의 한인 역사(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1937-1998; 1937-1999; 1937-2000)> (1998;1999;2000)은 방대한 내용의 문서 중에서도 고려인 관련 내용만을 임의로 발췌하여 부분적인 번역작업이 이루어져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련권력자에 의해 고려인들의 운명을 바꾼 비극적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날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당시 소비에트 당국에 정책이나 조치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미공개자료들이 아직 있다는 의혹을 남긴다.

소비에트시절 고려인 민족신문인 <레닌기차>는 당 기관지로서 당이념이나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 이외의 것은 드러나지 않는 제한점을 갖고 있지만, 한글로 쓰여진 장점으로 구 소련 고려인 연구의 기초자료이다. 이 신문은 88서울 올림픽과 공화국 독립 이후 고려인 자신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담아왔다는 사실에서도 주요한 역사적 자료로 간주된다. 한국학자들은 소비에트 비문과 민족신문, 그리고 현지인과의 접촉을 시도하면서 현지인 학자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연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의 아쉬움은 남아있다.

강제이주를 전후한 이민과 정착, 그리고 독립 이후의 새로운 조건에서의 고려인 사회의 변화를 그려내려는 한국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의 구체적 존재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려인 연구접근에서 언어구사의 제한으로 단기간 현지 고려인의 통역에 의지한 연구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며, 내부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질적이고 심층적 연구로서의 결과물은 보기 드물다. 또한 한국 연구자의 시각이 혈연적 뿌리를 기초로 한 동포의식과 정서적 연대를 강화하는 입장이 깔려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재외한인연구’라는 틀 내에서 민족적 동질적 시각에 비중을 둔 작업으로 집단 내부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연구에서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민족적 정체성의 본질적인 성격의 정의가 전제된 바탕 위에 모국을 떠난 타지에서 어떻게 적응해 가며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거주사회에 얼마나 귀속되어 가는 지 또는 모국의 전통과 문화요소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 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이 연구의 관점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서 그리고 반강제적 때로는 강제적 환경에서 고려인 내부집단들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경계 짓기를 통해 긴장, 분열 그리고



화합을 이루어 과정을 미시적으로 밝히려는 것이다.

## 2. 문화 인류학적 접근 방법

인류학자는 자문화와는 다르고 낯선 타자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사회과학에서 흔히 쓰는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양적인 연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적인 연구방법에 비중을 둔다. 인류학에서의 질적인 연구방법은 바로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현지조사란 연구자가 연구대상지역에서 연구대상자와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며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파악해 가는 것이다.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말리노프스키(Bronislaw Malinowski)는 일찍부터 현지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지인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가지고 그들의 삶과 세계관을 느끼고 파악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한국문화인류학회, 33). 이것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시각을 전달하고 눈으로 직접확인하며, 또한 여러 변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총체적인 시각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Spradley).

인류학은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특정문화에 대해 기술한 것이 문화기술지이다. 문화기술지 작성은 인류학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다. 인류학자 제임스 스프레드리(James Spradley)는 문화기술지 작성을 위한 참여관찰법과 인터뷰에 대해 발전적 연구단계를 제시하여 문화기술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전문화시켰다. 그에 의하면 문화연구자가 기본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에는 한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학습되고 공유될 때 문화적 행동, 문화적 지식 그리고 문화적 인공물이 있다 (Spradley, 6). 즉, 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집단 구성원의 행동이나 사건 그리고 문화적 인공물에 대해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여 언어, 기호, 이미지나 감정을 생성해내는가를 읽어내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 지식은 두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외현적 문화로 사람들이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의식너머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수준의 공유된 지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적 지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의식너머의 암묵적 문화지식에 대해서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Edward Hall)은 그의 저서<The silent Language> 에서 그가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를 통해 잘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홀이 리오그란데 부근의 푸에블로 인디언 마을의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참석했을 때 겪었던 이야기이다(Hall 1959, 9,10).

추위를 참으며 아무리 기다려도 무도회는 시작되지 않았다. 여러 백인 참석자들은 우리 식의 표현대로라면 그야말로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나 도대체가 시작할 기미가 없었다. 기다리다 못해 거의 기진맥진해 있을 무렵,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북소리가 나며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무도회는 그들의 시간관념에 대한 암묵적 약속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다. 그들의 표현에서 ‘사태가 무르익었을 때’가 바로 무도회가 시작되는 그들만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기계적 시간관념이 아닌, 때가 되어 파종을 하고, 곡식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추수를 하고, 때가 되었을 때 결혼을 했던 것처럼 자연의 주기가 알려주는 그들의 시간개념에 따라 때를 기다려 무도회를 시작한 것이었다.

암묵적 수준의 지식은 외현적으로 쉽게 알 수 없는 소통체계이므로 문화연구자의 지적인 작업으로서 집단구성원의 숨은 공유된 지식을 들추어내고 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화적 의미들을 보여주며, 이리하여 문화기술자가 가지기 쉬운 자민족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환기시킨다(Spradley).

해석인류학자 클리퍼트 기어츠(Clifford Geertz)는 문화기술지 작성에서 증충기술의 작업을 강조했다. 자주 인용되는 “인간은 스스로 짠 의미의 그물망에 갇힌 동물이다. 문화는 그렇게 짜인 그물망이며, 따라서 문화분석은 법칙성을 추구하는 실험과학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해석과학이다.” 라는 그의 문구는 의미와 상징의 연계를 말하고 있다. 즉, 상징은 의미를 실어 나르는 운반자이다. 그러나 특정사람들이 특정 상징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원래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미를 부여한 것이 된다(Ayabe, 188-189).

문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흡사 텍스트를 읽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의미를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연구는 연구대상자에 의해 텍스트가 읽혀지고 부여한 의미를 다시 연구자가 읽고 해석하는 것으로 제2의 해석 혹은 제3해석으로 이어진 것일 수도 있다(위의 책, 190). 문화해석에서 ‘중층 기술’이란 원래 철학자 길버트 라일(Gilbert Ryle)의 맥락이 ‘두텁다’ 라는 말해서 나온 것이다. 단순한 외현적인 동작과 현상적 관찰에 의한 ‘얕은 기술’ 으로서는 숨어있는 맥락들을 알 수 없으므로 위계적으로 형성된 여러 층위를 의미구조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Geertz, 14-17). 인류학자가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은 연구자가 현지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석 또는 재해석함으로써 현지사람들의 삶을 재구성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기술지 작업과정에서 참여관찰법과 면접법의 현지조사의 방법과 문화기술지 작성에서의 중층기술은 문화연구자로 하여금 내부자적 관점과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문화연구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연구자로서는 피할 수 없는 한계상황을 만나기 일쑤다. 문화연구자가 연구대상자와 그 세계에 충분하게 접근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다르기 힘든 빙산 같은 무의식세계가 있듯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다다르기란 힘들다. 인간의 삶과 문화는 자신과 외부세계와의 만남 및 상호작용에 기반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연구자와 연구대상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등한 주체적 존재라고 상정된다. 연구자의 관점을 일방화하고 절대화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글쓰기에서 연구자를 노출시킴으로써 연구자의 관점을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기술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는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문화기술지는 학문적 실천적 작업의 특성상 개개인의 행동과 맥락까지 보이게 되는 구체성을 띠기 때문에 행위자의 익명의 존재로 유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현지조사의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게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971년 미국 인류학회 회의에서 문화연구자를 위한 윤리적 원칙들이 채택된 것은 연구자가 연구대상 집단이나 연구대상자와의 사이에서 봉착하게 되는 오해나 갈등 등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Spradley, 27).

연구대상자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은 내부자적 시각으로 구성원 자신들이 어떠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갈등하는지,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기억을 어떻게 재현하고 해석하는 지를 분석하게 한다. 역사적 정치적 중층적 맥락을 벗겨가며 고려인 집단 내부의 문화적 지형을 드러내는 작업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의 구체성, 개별성과 다양성을 밝히는 일련의 작업인 것이다.

### 3. 연구의 대상과 고려인 연구의 한계

고려인 사회의 구성원들의 다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의미를 읽게 하는 중요한 작업이며, 이것은 인류학적 작업으로 가능하다. 연구자가 현지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석 또는 재해석함으로써 현지사람들의 삶을 재현하는 작업인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이러한 심층적 접근은 특정 문화에 대해 현상적이고 표층적 관찰의 한계를 넘어 드러나지 않는 위계적 여러 층위의 의미구조와 맥락을 밝히는 데에 유용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소수민족인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여, 고려인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알마타 고려인 민족문화센터와 이에 소속된 합창단원 그리고 한인 복음교회, 원불교 등의 구성원을 위주로

참여관찰, 심층 인터뷰 및 비공식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였다. 현지조사는 2010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11년 10월까지 참여관찰로서 주기적 예배참여과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2016년 3월까지 심층 및 비공식 인터뷰는 비주기적이고 느슨한 형태로 실시되었다. 집중적 연구기간에는 문화센터에서의 취미활동 및 배움의 시간, 교회에서의 예배 그리고 합창단의 합창연습이 각각 끝난 후 참여관찰에 이은 심층인터뷰가 병행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교회나 합창 연습장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그 외에도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집이나 사무실, 고려인 행사장 등 연구대상자의 편의대로 자연스럽게 실시되었다. 라포형성이 충분히 되었을 때는 대상자와 수시로 전화나 만남으로 심층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은 각 그룹단체에서 구성원의 주를 이루는 60~70대의 노인세대로서 연해주 출신과 사할린 출신 고려인이었고 그리고 몇 명의 북한 출신 소련망명가도 포함되었다.

각 단체활동 이후에 미팅과 그룹 미팅을 통해 비공식적 대화의 기회를 가졌고, 그 중 심층인터뷰 참여자는 총 19명이었으며, 출신별로는 사할린 출신 4명, 북한 출신 소련 망명가 2명, 북한 노무자의 후손 1명, 그 외 12명은 모두 연해주 출신의 후손이었다. 이 중에 주요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한 고려인은 5명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자들이었고, 이들과는 전화로 수시로 자유롭게 인터뷰가 가능했었다.

각 활동단체의 고려인은 젊은 시절 소비에트 사회에서 선생, 교수, 공무원, 배우, 레닌기치 기자,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지식층이 주를 이루며, 지금은 정년퇴직하여 연금을 받으며 여가시간을 문화와 종교활동으로 보내는 사람들이며, 일부는 교직과 민족신문 편집원, 비즈니스맨으로 활동을 하는 이도 있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언어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러시아어 전용구사자이고, 이 가운데에 모국어로 소통 가능한 자는 사할린 출신

4명과 망명자 출신 2명이고 모국어를 조금 이해하고 구사하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은 3명, 나머지는 모국어 단어들을 일부 알며 자신의 이름을 겨우 쓰거나 아예 쓰지 못하는 부류에 속했다. 카자흐어 구사자는 2명이고, 조금 알아듣지만 말을 하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 3명, 나머지는 전혀 모르며, 현재 카자흐어를 배우거나 배울 계획을 가진 사람이 각 각 1명이었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간의 소통언어는 러시아말과 한국말이었으며, 연구자는 한국인으로서 주 언어가 한국어이고, 러시아어를 구사하지만 완벽한 현지인 수준은 아니므로, 심층적 대화에 정보제공자들 중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할린 출신과 망명자 출신의 정보제공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의 어려움은 고려인들이 한국인과 거리를 두려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하는 일부 고려인도 있었고, 참여자끼리 같은 활동공간에서 서로가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내부의 비밀이나 갈등, 개인감정 등은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여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쉽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부모세대나 조부모 세대에서 경험했던 가족사나 개인사에 대해서는 함구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일대일 면접에서 연구자로부터 비밀을 유지해야된다는 약속을 받고나서야 강제이주 당시의 일었던 일을 풀어놓았다. 일부는 소련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다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과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자유롭지 못했으며, 어떤이는 말을 꺼려하는 정도가 아닌 주위를 살피면서 안면이 경직되고 입술을 파르르 떨기까지하였다. 이것은, 강제이주와 탄압 당시 스탈린권력으로부터 ‘함구령’에 대한 당시 공포의 분위기를 짐작케 하였고, 그 공포와 아픔이 몇세대가 지난 지금도 대물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심층 인터뷰 대화를 녹취하기 전에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윤리적 원칙을 따랐다. 이러한 원칙은, 문화인류학적 연구의 특성상 집단 내부의 구체적 현상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윤리적인 문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지만, 연구자가 연구대상 집단이나 연구대상자와의 사이에서 봉착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규정이다. 현지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사의 구체성으로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려인 내부의 긴장적 관계를 고려할 때 연구대상자 사이에 오해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소지도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이미 언론이나 공식적 자료 및 공식적 행사에 드러난 인물을 제외하고는, 연구대상자 자신들끼리 서로를 잘 식별하게 하는 이름이나 나이를 연구논문에서 드러내지 않고 가명이나 익명으로 기록하였다. 현지조사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정보제공자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알렸다.

연구의 한계로서, 기존 연구자들이 집중적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카자흐스탄 동남부 우슈토크(Wusytobe) 같은 고려인 집단 정착촌이나 알마타 이외의 구 소련 타 도시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이 연구결과를 확대 적용하기는 제한이 따름을 밝힌다.

## 제2장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개념과 이론

### 1. 민족과 이산에 대한 개념

이 절에서는 민족이나 디아스포라, 이주민 집단을 어떻게 규정해왔는지 그리고 제국들의 해체 이후에 부상한 다양한 정체성의 존재들에 대해 어떠한 학문적 논의가 전개되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정체성의 비본질적인 관점의 가변성과 유동성의 이론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과거 제국주의자들이 하나의 통일되고 균질한 사회를 향하며 구성원들을 결속해나갔듯이 소련의 소비에트체제 또한 권력의 의지대로 영토와 민족을 인위적으로 배치하며 모든 인민을 ‘homo sovieticus’로 양성하여 통합시켜왔다. 소비에트의 몰락은 토착민 독립국가를 탄생시켰고, 이것은 토착민 입장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해방적 성격이 될 수 있지만, 이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사회구조 하에 놓이게 되어 모국민도 아니면서 독립국의 완전한 국민도 아닌 애매한 존재로 남게 되었다. 식민후기적 모호한 존재들의 등장은, 학계에서 기존의 정체성 이론에 포함할 수 없게되어 이산, 혼성성 및 유동적 주체 등의 새로운 탐구와 이론적 모색을 활성화시켜왔다.

구 소련의 고려인 집단은 반강제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주한 역사를 가진 디아스포라이면서 모국귀환의 꿈을 접은 철저히 거주국에 동화되었던 소비에트인이었고 혈연적으로는 한민족이다. 이처럼 모국을 떠난 민족집단을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로 불리어진다. 디아스포라는 원래 ‘바빌론 유수’이후 팔레스타인 밖에서 흩어지며



방황하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졌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 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윤인진, 4-5). 샤프란(Safran, 83-84)은 디아스포라를 국외로 추방된 ‘소수집단 공동체’라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들이나 그들의 선조가 특정 기원지로부터 주변지역이나 외국으로 분산되었고, 둘째,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이나 비전, 신화를 가지며, 셋째, 거주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외되고 격리되어 있으며, 넷째, 모국이 진정한 고향이어서 후손들이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인식하고, 다섯째, 모국의 부흥과 발전에 관여해야 한다고 믿으며, 여섯째, 모국과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연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디아스포라가 샤프란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처럼 고향을 떠난 모국의 향수를 가진 집단이라 일컬어지지만, 실제 모국귀환의 꿈은 그 집단과 모국, 귀속사회의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디아스포라의 삶은 자원에 대한 접근, 그들을 수용하는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들, 그리고 그들의 내부적 결속 정도에 의해 조건지워진다 (김광익 외 2005, 67). 귀속사회에서 이민족 집단이 다루어지는 방식이 다양하고 이들에게 허용되는 지위나 한계도 다르기 때문에 집단의 귀속사회에 대한 저항이나 동화와 적응에 대한 자발성과 태도, 그리고 모국과의 연대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에서는 민족이나 이주민 공동체를 동질성이 강조된 하나의 집단으로 전제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삶의 경험에 대한 그들 자신들의 해석과 관점을 드러내는 데에 무게를 두려한다. 민족이나 이주민 집단의 정체성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정체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민족정체성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체성이란 용어가 정신분석학 개념에서 탄생한지는 불과 반세기를

넘는데 그치지지만 오늘날 각 학문분야에 중요한 논쟁적 주제가 되고 있다. 정체성 문제는 그 용어의 탄생이전에 이미 개인과 집단, 공동체를 설명하고 정의하는데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사고양식과 행동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다양했듯이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또한 뚜렷한 하나로 정의될 수 없다. 인간을 합리적인 이성능력을 가진 주체로 보던 계몽주의시대에서부터 오늘날 주체의 해체를 이야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정체성은 다양한 내용으로 시대를 반영하며 정의되어왔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에릭슨(Erikson E.H.)은 <정체성과 생활주기> (1959년)에서 최초로 용어를 사용하였다(Nickawa 외, 345). 정체성을 정신분석학 개념으로 개인이 사회집단 내에 역할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자아 이미지’, ‘자존감’, ‘개성’ 등이라 표현하며, 이러한 정체성은 통합되고 연속성을 지니며 일관된 의식을 지닌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정체성을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분석한 반면, 사회학자들은 행동역할의 개념으로 개인의 집단 내 역할을 통한 학습경험에서 배양되는 ‘아이덴티티 협상’의 능력에 주목했다(Swann). 사회과학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개인의 특성이나 혹은 국가정체성이나 문화적 정체성과 같은 집단귀속에 대한 문제로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집단 공동체와 관련하여 혈연적이나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얼마나 공유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여기에는 종족, 인종, 부족, 민족, 소수민족 등이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종은 피부색, 체격과 체질 등의 생물학적 특성이, 종족은 주로 문화적 경계를 따라 정의되는 경향이 있지만 전자든 후자든 문화적 특성이나 생물학적 특성이 포함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민족은 국가, 영토, 주권 등의 정치적 경계와 역사, 전통, 혈통, 언어, 종교 등을 아우르며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종족과 공통점이 있다.

구성원들간에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여 타자를 만든다는 점에서

종족주의와 민족주의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가적 단위와 종족적 단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종족은 반드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민족주의는 국가적 단위와 종족적 단위가 일치할 것을 주장하는 이념적 성향이 내포되어 있다. 대개 국가는 여러 종족과 민족을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하여 특정의 문화요소로 동화되기를 강요하는 성향이 있다 (김광익 외 2005, 20-21).

바스(F. Barth)는 ‘범위’란 개념을 사용하여 종족범위의 개념을 문화적이고 지역적 특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범위로서 종족성을 기준할 것을 제기하였다(Barth 1969). 비록 같은 문화와 지역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즉, 공통 관심사나 이해관계를 달리할 때는 같은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자신들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2. 비본질적, 유동적 주체

베네딕트 앤드슨(B. Anderson, 1983)은 민족을 어떠한 범위와 경계를 가지는가 하는 본질적 시각을 떠나서 ‘상상의 공동체’로 보았다. 민족은 민족을 통합하고자 했던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국가의 구성원으로 상상되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에 대한 기존의 지배정의에 도전하고, 민족의 필연성을 거부한다. 기존의 민족에 대한 논의는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즉, 언어나 영토, 전통 등을 나열해 왔고, 민족이 원래부터 존재해 온 것이라는 실재성에 근거를 둔 것과는 달리 그러나 그는 민족이라는 거대하고 신성한 가치는 상상된 것이며, 왕조국가가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시기에 나타난 ‘특정한 조형물’이며 ‘정치적 공동체’라 하였다. 그에 의하면 민족주의의 발달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제국주의는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그 국가의 구성원을 단결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격적 민족주의가 매우 효과적이었고, 민족의 단결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다. 여기에는 특히 신문이나

소설을 찍어내었던 인쇄 자본주의의 발달이 특정의 민족으로 상상된 공동체를 형성시키는데 크게 영향력을 미쳤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같은 언어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동시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그들의 머리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원주민들은 제국주의자로부터 정복당하기 이전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고 한 마을, 혹은 한 부족의 단위로 생활을 영위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국주의자들이 그 세력을 확산하는데 이용된 민족주의는 역으로 그들이 지배하던 식민지인들 사이에서도 확산된다. 서양강대국들이 발달시킨 민족주의는 식민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순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이 방대한 영토의 식민지통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나누어 놓았던 행정구역이 훗날 그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의 범위가 되었고, 신성한 공동체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민족이 생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호미 바바(Bhabha 1990)는, 민족은 '실재'로서가 아닌 '내러티브'로 볼 것을 제시한다. 국가라는 유일한 공동체를 추구하며 사적인 영역을 제거하고 즉, 지배되어야 할 기억과 역사에 대한 망각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교육적이며 국가적인 내러티브가 동원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국가는 내러티브 동원으로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폭력을 망각하도록 요구하는 분열적 양상을 보인다고 비판하였다. 개인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포되는 민족담론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인성을 형성한다(이지명, 111). 쟈센(Jensen, 83)은 개인은 언제나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민족담론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나 동시대 주류 집단과 자기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지명(111-112)에 의하면, 민족성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되기 쉬운 동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독특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에

의해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산물인 것이다.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비본질적인 논의에서 민족은 뚜렷한 경계와 범위를 논하기에는 종잡을 수 없는 모호성과 모순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홀이 주목한 주체 대한 설명은 주체의 유목적 특성을 보여준다. 스튜어드 홀은 20세기 후반의 독특한 유형의 구조가 현대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확고히 자리잡았던 통합적 개인들의 정체성이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가 분류한 세가지 정체성의 개념에서 정체성 개념의 시대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데 (Hall 1992), 이것은 기존의 학문적 접근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계몽주의적 주체개념은 인간의 합리성, 동일성, 연속성이 강조되는 ‘중심’을 가진 통합된 개인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은 이성, 의식 및 행위의 능력을 받은 데카르트적 주체이다. 계몽주의적 주체와는 달리 사회적 환경에서 주변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위치지워진다는 관점의 사회적 주체개념이 있다. 이것은, 주체형성은 ‘의미있는 타자들’과 관련있다는 것이다. 즉, 타자의 문화적 정체성 속으로 주체의 자신을 투사하면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내면화하며 우리자신의 일부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적 주체개념은 계몽주의적 주체의 해체를 시도한다. 이것은 이전에 통합되고 안정된 주체와는 달리 파편화되고,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때로는 모순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정체성들로 혼재한다고 본다. 타문화의 정체성 속에서 자신을 투사하면서 내면화하고 동일화해 왔던 과정자체가 무한하고 가변적이라 간주한다. 우리 내부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모순된 정체성들이 있어 문화에 대한 동일화는 끊임없이 옮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아 속에서 일관되게 통일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홀은 근본주의, 이산, 혼성성 등 모든 곳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상이한 위치들 사이에서 주저하면서 이행 중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데리다(J. Derrida)는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에는 중심적 의미의 영역이 없으며, 말 속에 의미가 끊임없이 열려있다는 ‘차연’이란 용어로 설명한다. 이것은 ‘의미의 무한한 연기’를 의미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기표는 결코 기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의미는 영원히 지연되고, 연기되며 우리의 손에 닿지 않게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즉, ‘뜨겁다’라는 의미는 기표에 완전히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이 아닌 어떤 것’인 ‘차갑다’라는 의미가 확보되고 차별화함으로써 생성되므로 연쇄적으로 의미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Procter, 222) 홀은 포스트구조주의자와 자신의 주장을 구별하지만 완전히 탈피하지도 완전 의존하지도 않는다. 홀과 데리다의 미묘한 차이는 홀이 정체성을 어떤 확고히 정착되고 고정된 것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유동하는 것도 아님을 주장하는 데서 나타난다. 데리다와 차별을 주장하는 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위의 책, 223).

의미가 만들어지려면 문장이 끝나야 한다는 필연성과도 같은 자의적 중지가 없는 행동이나 정체성이라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잠재적으로, 담론에는 끝이 없다. 의미의 무한한 기호작용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멈추어야 한다. 물론 모든 마침표는 잠정적이다.<중략>..그것은 영원한 것도 완전히 보편적으로 참인 것도, 완전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뜻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멈춤).

홀이 제시하는 것은 의미는 기호작용이 ‘멈추었을 때’ 발생하는 의미를 말한다. 마침표는 결코 결정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자의적이며 맥락 의존적이다. 마침표는 맥락적 자의적 위치짓기를 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홀은 정체성은 유목적인 것, 헤메는 것, 또는 연기된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 언어, 역사 안에 자리잡고 위치지어진다는 것이다(위의 책, 224).

홀의 정체성은 차이와 맥락의존성, 자기반영성으로 설명하지만, 또 개별적인 것들을 연결시키거나 함께 묶어 새로운 연합을 형성하는 ‘절합’의 정치학을 보완적으로 설명한다(위의 책, 224). 홀의 위치짓기나 절합의 이론은 경계를 넘나드는 이산의 정체성 논의와도 연관된다. 홀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각기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공통의 요소들이 교차하며 혼합된 결과물로 보는 것이다.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영원히 흩어진 사람들은 정체성의 ‘변환’이 불가피하다. 즉 출신지인 모국과의 강한 유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로 회귀하려는 허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귀속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거나 자신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지만, 눈앞의 현실의 문화와 격리될 수는 없다. 그들은 자신을 형성시킨 특수한 문화, 전통, 언어,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의 의미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홀에 의하면, 이들은 혼성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고, 어떤 종류의 잃어버린 문화적 순수성이나 종족적 절대주의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꿈이나 야망을 거부한 ‘변환’되었다. 그들은 식민지 이후 시대의 이민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이산의 산물인 것이다. 홀에 의해 주목된 이산이나 혼성성은 주체의 자의적이며 맥락적 ‘위치짓기’나 ‘변환’으로 설명했다.

김광익(김광익 외, 26-29)에 의하면 종족성은 처한 환경이나 조건속에 변화하는 관점의 도구적 시각도 있지만 종족성이 원초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집단적 감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와 경험을 공유한 특정 집단은 또한 애착이나 감정이 쉽게 작용하며 공동체의 구심력을 발휘하거나 혹은 오히려 약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츠(Geertz, 304)는 집단의 공동체는 원초적 유대에서 기인되는 힘에 의해 결속된다고 설명하였다. “혈연적 연관은 물론 특정한 언어를 말하고, 특정한 사회적 관습을 따르며 특정한 종교 공동체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스스로 강제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혈연, 언어, 관습 등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벅차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 중요성을 가진다.” 이 시각의 좋은 예는, 2002년 한일FIFA월드컵에서 한국의 ‘붉은 악마’의 존재와 같이 집단적 열광을 보인 한국인이다. 당시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팀의 승리를 위해 비공식적 자율적 집단으로 조직된 ‘붉은 악마’는 “We are Red” 혹은 “Be Red”를 외치면서 전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붉은 악마의 힘은 뜨거운 여름의 태양아래에서 그리고 빗줄기를 맞으면서도 그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한국인들을 움직이게 했던 어떤 멈출 수 없는 ‘절대적 힘’은 하나의 국제행사를 통해 집단이 발휘하는 ‘원초적 유대의 힘’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적인 정서적 요소들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힘이 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연속성을 지닐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거츠가 주장한 이러한 원초적 감정의 이면에는 스스로 구속력과 강제성을 발휘하며 타자를 쉽게 배제하는 위험한 무기가 내재해 있다.

또한 같은 민족집단이라 하여 단일하고 균질적이며 연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도 없다. 겔너(E. Gellner)는 집단 구성원의 민족 문화 속에 통합을 향한 강한 추동력이 있음을 강조한다(Smith). 즉, 민족 문화는 그 구성원들이 계급이나 성, 인종에 따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이 모두 동일한 민족에 속한다고 재현하면서 그들을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 속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지향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민족이란 본질주의적 실체라기 보다 담론이나 상상의 구성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집단 공통체의 결속력과 통합력 그리고 구심력의 발휘는 이로 인해 타 집단에게 폭력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정체성은 권력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선택의 문제이며, 이 선택은 분열과 억압의 기제가 된다는 데에 주목한 학자가 있다. 인도출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 2006)은 그의 저서 <Identity and Violence: The Illusion of Destiny> 에서 인간의 정체성의 다원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여기며, 정체성을 단일화하여 분류할 때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며 정체성의 중요성은 어떤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선택’하는 문제로 본다. 이것은 개인이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단체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원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정 맥락에서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정체성을 무시하고 단 한가지의 독보적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발전하면 분리주의적 갈등과 폭력을 야기하며 인간성은 맹렬한 도전을 받는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서 인간사에 일어나는 비극은 이렇게 정체성을 단 하나의 지배적 분류체계로 분할하여 빛은 호전성에 기인된 것이다. 센의 정체성은, 결국 인간은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획득하며, 사회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특정 정체성을 선택하는 정체성의 가변성, 다양성, 그리고 정치성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봤던 정체성 개념의 흐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체성은 정치적 과정이며,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시각보다는 협상적이고 전략적이며 유동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 정체성 정치의 집단적 정체성의 억압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제국주의로부터 문화적으로 탈피하고자 했던 탈식민주의적 과정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운동이 출현하면서 주변화된 집단들이 반동적으로 드러내는 주장이며 목소리인 것이다. 즉, 지배세력에 의해 특정 정체성이 고착되고 주변화되고 정치적으로 배제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체성 정치는 일반적으로 주변화되고 억압된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주장하는 정치적 행위나 태도를 포괄적으로 설명된다.

스튜어드 홀은 “문화란 정치적 행위이며 결코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투쟁의 장소” 라고 하였다(Procter). 그의 문화연구는 주변적 혹은

중속적인 하위집단들이 지배집단에게 어떻게 자신들의 문화적 공간을 지켜내고 쟁취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 안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들의 맥락들을 추적해 가는 것이다 즉, 문화의 정체성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항상 역사적으로 조건지어지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이며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다.

정체성이나 정체성 정치의 개념은 세계화나 다문화주의, 초국가적 현상 등에 대한 논의 속에 자주 등장하고 세계화와 지역화, 보편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거론된다. 다문화주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국민국가의 국경을 따라 뚜렷한 경계를 기준으로 국민의 단일한 정체성이 강요되었지만, 오늘날 국민국가 경계가 약화된 상황은 국민의 다양성이 불안과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통일과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논리로 역전되어 있다 (Nicikawa 외, 357). 다문화주의는 유동성이 강한 이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정된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체성 정치의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먼저 동화와 차이의 정치를 들 수 있는데, 동화의 정치는 동질성에 입각하여 다양한 차이들의 존재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차이의 정치는 보편이란 이름으로 동화될 수 없는 이질성을 부각하여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차이성의 논리는 자신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분리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결국 동화의 정치든 차이의 정치든 인식론적 측면에서 본질주의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체성의 본질주의적 인식에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특성들을 실재 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해관계나 입장 그리고 경험 등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고동현).

정체성을 본질주의적인 시각에 대응해서 사회적 실재에 내재한

본질이 존재한다기 보다는 그 의미작용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구성주의적 시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현의 과정에서는 사회의 권력관계와 투쟁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듯 정체성의 문제에는 본질주의적이며 비본질주의적인 시각이 교차하며 끊임없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이론들의 맥락을 통해 볼 때 본질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불변적 성격의 정체성을 전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체성의 유연성과 협상성(Brubaker and Cooper), 그리고 유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인 집단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연구대상자들이 특정 맥락에 따라 자신들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추구해왔는 지를 봐야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극동시절에는 자신의 민족적 전통과 문화를 지속시키며 일제에 저항하면서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으로 강한 민족적 정신과 주체적 역량을 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제이주 이후에는 소비에트 체제에 강하게 복속되어야 했고, 갑자기 찾아온 소비에트 체제의 해체는 이들에게는 존재기반의 몰락과 도전이었다. 현실적 압박감과 위기에서 어떤 자원과 담론을 동원하여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를 보게 될 것이다.

## 제3장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이 장에서는 제정 러시아부터 소비에트시대의 고려인 이주와 정착의 역사를 살펴보고, 소비에트 몰락과 카자흐스탄의 독립이라는 커다란 전환점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 고려인의 달라진 위상과 경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절에서는 강제이주 전까지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 정권에 있었던 시기별 한인 이주의 배경과 한인 이주집단에 대한 거주국의 수용태도에 따라 다르게 위치 지워진 구조적 한계와 그러면서도 모국의 극단적 위기상황에서 민족적 역량을 펼쳐온 역사적 과정을 밝힌다. 2 절에는 소비에트의 전체적인 탄압정책하에 깊은 내륙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라는 혹독한 체험과 새로운 정착지에의 극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물질, 사회적 토대를 건설하며 극복해가는 과정과 사회적 지위의 한계를 밝혀본다. 3 절에서는 구 소련해체와 88 서울 올림픽과 함께 등장한 모국과의 관계에서 고려인 사회의 동요를 알아보고, 달라진 거주사회의 주도적 민족인 카자흐가 누구이며, 카자흐가 지향하는 민족국가 건설과 민족 정체성 부활 운동을 통해 토착민과의 재배치된 관계와 그 위상을 고찰해 본다.

### 1. 연해주 한인 디아스포라 형성

#### 연해주 한인의 이주역사

한반도 경계 내에 있는 모국인들로서는 그 거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구 소련의 광활한 지역 중앙아시아에 분산되어 있는 고려인의 존재는 조선말기부터 일제 식민지, 소비에트시대

그리고 구 소련 해체와 공화국들의 독립에 이르기까지 1 세기 반의 주름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내륙으로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하기 전에 연해주 한인들은 극동의 연해주 땅에 자리잡고 있었다. 연해주는 영역적으로는 러시아에 속해 있었지만 한인들의 고향과는 강을 사이에 두어 거리가 멀지 않았고 언젠가는 귀향할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그들이 정신적으로도 모국과의 강한 연대를 가지며, 모국이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도 일제에 항거하여 온몸으로 독립투쟁을 벌였던 역사적인 장소도 연해주였다.

기근과 조선말기 혼란 속에 한인들이 국경을 넘어왔던 연해주는 본래 한국의 고대국가인 고구려와 발해의 영역이기도 했지만 러시아 영역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제정 러시아시대 극동이라 불리는 연해주는 부동항으로서 태평양 연안지역이므로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17 세기 중반부터 코사크(Cossacks) 용병대를 앞세워 시베리아를 넘어 동진하기 시작하였고, 18 세기 중반까지 알래스카, 캄차카 반도, 및 쿠릴열도 등으로 진출하였다 (이광규, 전경수, 145). 1860년에는 청·러 간의 북경조약에 의해 우수리강 동부의 연해주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한반도의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과 접경을 하게 되면서 한인과의 접촉이 시작되었다.

한인들의 연해주 이주는 본국의 열악한 상황과 만남으로써 이루어졌다. 초기에 새로운 농토를 찾아 갔던 것과는 달리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동의 제국을 꿈꾸었던 일본에 의해 조국이 국권을 상실하면서 연해주 한인의 이주의 성격은 달라졌다. 시기별로 이주 배경을 3 단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1863~1884 년)는 한인 이주의 초창기이다. 조선말기의 상황은 세도정치와 삼정문란 등의 사회혼란과 흥경래 난, 천주교 탄압 등으로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백성의 생활이 점점 피폐해져 갔다. 더군다나 흉작과 기근으로 새로운 농토를 찾는 한인에게 인접한 거리의 넓은 땅의 연해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비어있는 땅에 들어오는 한인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호의적이었다(권희영, 55). 연해주에 한인의 출현은 연해주 뽀시예트(Посиет)해안에 설치된 러시아 경비대에 의해 눈에 띄었고, 러시아 당국이 한인이 살도록 허락했다는 공식적 기록은 1863 년도부터 나타난다(위의 책, 38). 최초에는 우수리의 짜진허(Цзинхэ)강변에 단지 몇 가구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수가 늘어나서 한반도 북부의 경계 넘어 두만강 북부의 수이푼(Суйфун)강 여러 곳에 마을들이 생겨나서 1870 년대에서 한인수가 9000 명에 달했다(Мен Д. 외 1999, 137).

제 2 단계(1884~1904 년)는 연해주 지역에 한인 이주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러시아 당국이 한인이주를 받아들였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이주제한 정책을 썼던 시기였다. 모국이었던 조선의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러시아와의 협상으로 이주제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1884 년에 조-러 수교를 맺고 1888 년 8 월에 조-러 통상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러시아 당국의 한인에 대한 이주에 대한 규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고송무, 12). 양국의 조약으로 러시아 측은 한인이주자들을 좀더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한인 이주민을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첫째 그룹은 1884 년 6 월 25 일 이전에 이주하여 러시아 국적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한인, 둘째는 1884 년 이후에 이주해 왔기 때문에 2 년 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한인이며, 셋째는 일시적 체류를 하면서 세금을 러시아 농부와 똑같이 내어야 하나 어떠한 권리가 없는 한인들이 이에 속했다 (Ким С.Х., 37, 38). 표 1)에서 보듯이 한인은 점점 증가하였지만 국적 취득 한인에 비해 미국적 취득 한인의 수가 더 많았다.

표 1) 연해주 한인 연도별 국적 취득현황

연도	국적 취득자	국적 미취득자	총인원
1882	-	10137	10137

1892	12,940	3,624	16,564
1900	16,125	11,775	27,880
1906	16,965	17,434	34,399
1909	14,799	36,755	51,554
1910	19,080	36,996	54,076
1911	17,476	39,813	57,289
1912	16,263	43,452	59,715
1913	19,277	38,163	57,440
1914	20,109	44,200	64,309
1923	34,559	72,258	106,817

출처: АНОСОВ С.Д., 53.

국적을 취득하면 토지를 분배 받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서 살 수 있었으나 국적취득을 위한 조건은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러시아 사회에 귀속하게 된다는 암묵적인 약속도 있었고, 여러 가지 통과해야 할 어려운 관문이 있었다.

국적 없이 러시아 농토에서 산다는 것은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었으며 부과된 의무를 강요받으며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했다. 국적 미취득자는 주로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소작료를 포함한 각종 세금부과와 국외추방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 당국의 백계 민족 이주정책으로 인해 연해주 지역에 인구가 늘고, 농토 확보의 치열한 경쟁에서 민족간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어 한인의 입지는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제 3 단계(1905~1917)는 1904 년 러일전쟁과 1910 년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러 일의 대립적 관계와 조선의 주권상실로 인해 한인의 정치적 망명자들이 유입된 시기였다. 이주민은 일본의 무단통치와 정치적 탄압을 피해온 망명자 들뿐만 아니라 한일합병 이후 일본의 대대적인 토지조사사업과 경제적 수탈로 인해 토지를 상실한

지주와 농민들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1911 년의 경우 1 월에서 9 월까지 블라디보스톡으로 2,253 명의 한인노동자가 왔고, 거의 매달 600~700 명의 새로운 이민들이 도달했다고 한다(권희영, 53). 민족해방운동의 해외 근거지로서 한인 독립투사들도 연해주에 몰려들었다. 특히 1919 년의 3·1 독립운동이라는 전국적인 거사를 해외한인의 독립 조직단들이 지원했으며, 3·1 독립운동의 실패 이후에 중국 만주나 러시아 연해주로 독립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1923 년에는 연해주 한인이 10 만 명이 넘었고 1926 년에는 13 만 명, 1927 년에는 17 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고송무, 13). 그러나 실제 한인수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거주등록을 하지 않았던 한인이 많았던 것을 감안할 때 훨씬 능가했을 것이며, 아마도 1927 년과 1928 년에는 25 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Petrov, 45; 고송무, 13 재인용).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한인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등록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권희영, 53; 김계르만, 168). 일제식민시대부터는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국적취득을 하여 토지를 분배 받고 세금감면혜택을 받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권희영, 54). 한일합병이란 사건으로 조국을 잃어버린 상황은 그 동안 모국귀환을 생각하며 국적취득을 하지 않았던 한인들로 하여금 국적선택을 바꾸도록 유인했다.

연해주 한인의 이주이유는 기본적으로 농지개간과 새로운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로 농민들로 구성된 이주민은 땅을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어 보리나 콩, 옥수수 등의 밭작물을 시작했고, 1905 년에 이미 벼농사를 시도하여 1917 년에는 강 주변에 특별한 관개시설 없이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하게 되었다(권희영, 60). 한인 이주민의 직종은 주로 농민들로 이루고 있지만 정착시기와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일찍부터 러시아에 귀화하여 토지를 분배 받아 여유 있게 사는 한인이 있는가 하면 미귀화 한인은



토지를 가진 한인이나 러시아인으로부터 소작농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소작농의 소작조건은 토지주인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착취당해야 했다. 비싼 소작료를 낸다든지 황무지를 개척해야 했고 어떠한 사역도 감내해야 했다. 한인들은 농업 외에 어업, 탄광, 금광, 공장, 건설업, 벌목장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여 생계를 꾸렸다. 그러나 금광채굴과 상업적 활동을 꾀했던 부농들, 또한 조선에서 망명 온 부농과 재산가들은 한인 독립운동과 무장투쟁을 위한 유격대들(빨치산)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물질적 원천이 되었다고 전한다(김블라디미르, 29; 권희영, 62).

연해주 한인들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높은 자주적 문화적 활동이었다. 이것은 독립운동을 위한 한인 의병활동과 계몽활동을 펼치기 위해 일찍부터 설립된 민족단체와 각종 신문, 민족학교의 발달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1927 년 당시 극동에 약 20 여 만 명을 육박했던 한인은 전체 극동 인구수의 10% 내외를 차지하며 학교, 신문, 극장 등이 운영되었다. 민족신문으로는 선봉(Авангард)이 1923 년에 탄생하였지만 1928 년에는 극동 공산당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학교로는 1924 년에는 조선사범전문학교가 설립되었고, 연해주 지역의 한인학교의 수가 날로 늘어갔다. 1923 년에 한인 국립학교가 82 개, 사립학교는 129 개였고, 1924 년에는 각각 국립 119 개, 사립 33 개였고 이후에는 모두 소비에트 국립으로 전환되어 1931 년과 1932 년에는 756 개의 한인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МенД. 외 1998, 112). 한글교과서와 기타 한글서적의 출판은 1925 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 해에 발행서적은 총 17 권에서 1932 년에는 176 권이 발행되었다. 신문, 잡지를 포함한 총 발행부수는 1925 년에 1250 매, 1932 년에는 1,703,700 매가 되어 무려 325 배로 증가하였다(위의 책).

연해주 한인들은 거주국의 한인에 대한 배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하에서 창씨개명과 일본어를 강요받고 있던 모국과는 달리

국권회복과 계몽운동을 위한 한글신문 발행 등의 주체적인 언론활동과 민족교육에 주력하며 강한 민족적 원심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 연해주 한인의 지위와 민족적 역량

모국의 혼란한 정세와 핍박을 피해 새로운 땅을 찾은 극동의 이주한인들은 거주국 관리들의 태도에 따라 운명이 바뀌었다. 한인들의 이주생활은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취약했고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민 한인에 대해 인도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러시아 총독들도 있었지만 대개 러시아 당국은 철저히 러시아 이익에 따라 또는 외세와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였다. 극동의 비어있는 땅을 매우기 위해서는 노동력 수급과 농지개척에 이용하기 위해 거주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1884년 한러 수호조약은 한인 이민을 규제하게 하였고, 외국인 채용법으로 이민자들을 생계활동에 제한을 가하다가 전쟁에 인력수급을 위해 제제를 다시 해제하기도 하였다.

극동에 내륙의 이민이 증가하면서 인구의 증가는 토지부족을 낳게 했고, 이로 인한 한인과 러시아인의 갈등은 한인으로 하여금 연해주 미개척지로 강제로 분산시키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극동의 민족간 갈등과 함께 일본의 침략야욕이 불러온 극동지역의 불안정은 소련정권으로 하여금 한인을 중앙아시아 깊은 내륙으로 전체이주를 강압적으로 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

초기 연해주 한인 이민자들은 농토를 개척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었고, 불모지 개척의 필요에 의해 1861년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이민들에게 정착대여금, 토지제공, 면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구체적 법을 제정하여 이주를 독려했다(김계르만, 153). 연해주 이주한인을 적극 활용하는 입장과 한인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적극적으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러시아 국익에

부합한다는 러시아 총독의 수용적인 태도는 한인들이 러시아 정교회를 다니며 러시아어를 배워 러시아식 이름 받기도 하여 러시아로 동화되어 가는 한인도 늘고 있었다(위의 책, 163). 반면 한인 이주민이 배타적 태도를 취했던 러시아 극동총독을 만났을 때는 국적취득을 못한 한인들의 경우 땅을 얻지 못하고 소작일을 하며 갖가지 세금까지 감당하면서 힘겨운 생활을 영위해야 했으며 특히 토지주인과 거주지 당국의 권력의 횡포에 노출되었다. 1937 년 ‘혁명과 민족’ 이라는 잡지에 실린 고려인 텐따(Ta Ten)의 글에서 당시 한인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볼 수 있다(고송무, 14,15). 이 글에 의하면 러시아 당국의 세금정책은 한인노동자에 대한 약탈수준으로 짜르정부의 관리와 헌병들에게 봉사했던 것으로 표현했다. 즉, 짜르정부 관리들은, 숲에서 고목을 베었다 해서, 아이들이 세례를 안받았다 해서, 심지어 머리를 상투를 틀고 다닌다 해서,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다 해서 세금부과 하곤 했다는 것이다.

세계 1 차전쟁과 사회주의 혁명시기에는 극동 한인에게는 새로운 환경을 맞았다. 세계전쟁 중에 한인은 탄광이나 벌목 등 노동력으로 동원되었고 사회주의 혁명기에는 적군에 주로 합류하였다. 1917 년부터 1922 년 소비에트 건설까지 혁명전쟁에 한인 독립군들은 볼셰비키를 지원했던 것이다. 이는 한인에게 토지를 분배해주고 독립운동 자금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해명도 없이 오히려 토지분배 우선권에서 한인은 러시아 국내 이주민에게 밀려나야 했다(권희영, 64). 1925 년 연해주의 연해주 국가문서보관소(ГАПК) 문서의 기록에서는 한인들이 주인이나 노동조합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빼앗지 않는 이상 토지를 내놓지 않으며, 국적 취득하여 토지를 분배하는 것은 이들을 더 끌어들이는 방법이므로 국적취득을 허용해서도 안되며 토지도 임대하지 말 것을 경고했던 내용이 있었다. 또한 한인들을 소비에트 공민으로 귀화시키되 복사할린 유전지대로 식민시키자는 건의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Мен Д. 외 1999, 24,26). 한인에 대한

이주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었고 연해주 북쪽으로 한인을 추방하고 강제적으로 분산 이주시키고자 하는 계획도 제기되었고, 실제 열악한 북연해주로 강제이주시키기도 하였다.

1929년 소련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부농퇴치와 농업집단화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러나 연해주 한인들은 각 콜호즈에 할당된 부족한 토지와 이로 인한 영세성으로 생산력이 저하되고, 러시아인에게 더 많이 배정되어 한인과 러시아인의 갈등이 깊어갔다. 농지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였고 이것은 한인이든 러시아인이든 누군가 이 지역에서 배제대상이 되어야 했다. 극동국경 변방에서의 토지부족문제로 초래된 민족간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은 결국 미개척지로 밀려나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특히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시작하여 25년간의 지속된 철도건설사업에서 1904년과 1916년에 각각 완공된 시베리아 철도의 극동 노선의 완공은 러시아인을 비롯한 유럽계 민족으로 구성된 러시아 내국민이 극동지역으로 끝없이 밀려들어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러시아의 한인에 대한 미개발지 이주정책은 극동 한인의 민족적 공간을 해체하고 이들을 내륙으로 분산하며 이 영역을 백계 러시아민족중심으로 채워 극동변방지역을 안정화를 꾀하려 했던 의도였다. 극동지역의 한인 내륙이주는 거주국에 의해 여러 번 시도되었고 1937년에는 결국 전면적 강제이주 조치가 이루어지고 말았다.

연해주 한인은 거주사회에서 끊임없는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거주국의 힘을 이용하면서 조국 독립을 투쟁하는 자금을 지원하며 독립군 인력증강과 유지에 적극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중전략을 취해왔다. 이들의 항일투쟁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조직적이었다.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수많은 민족학교와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며, 언론조직을 결성하고 활성화하여 자신들의 일본에 대한 투쟁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와 공조를 꾀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직의 바탕에는 인적, 정신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시키는 요소들이 있었다. 1905 년 을사보호조약 체결로 모국의 외교권 박탈과 1910 년 한일합병으로 인한 국권상실로 많은 애국지사들과 의병들이 국내에서는 항일운동이 불가능해지자 해외로 근거지를 옮겨 모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모국과 가까운 국경바깥의 극동에 결집함으로써 자발적인 인적자원이 확보되었다. 농업뿐만이 아니라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한인 재산가들의 자금지원활동은 민족단체와 독립군 결성, 민족신문 발간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물적 뒷받침이 되었다. 풍부한 물적 뒷받침은 또한 많은 농민을 독립군으로 끌어들이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극동의 한인들은 법적 거주권을 확고히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독립투사들의 입지는 한인들의 독립투쟁의 대상이 일본인만큼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러시아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적 조직기구들이 와해와 재결성을 했고, 많은 민족신문들은 폐간과 창간을 반복하면서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갔다. 국외 독립운동의 기지에서 민족언론의 활동이 특히 돋보였는데 그 중심지가 연해주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 우수리스크, 연추 등이 주요 근거지였다. 극동중심의 한인 신문들은 한글은 물론 러시아어, 영어 및 불어 등으로 번역되어 모국에도 배포하고 해외로 홍보하며 다른 해외한인 지도자들과 연계를 맺고 있었고, 미국에서 활동했던 한인 독립활동가와도 합류하였다.

당시 해외한인의 언론이 극동한인의 교육과 계몽에 지대한 역할을 하며, 국권회복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극동 한인들이 창간한 초기의 민족신문에는 <해조신문>과 <대동공보>, <대양보>가 있었는데, 특히 <대동공보>는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며 최재형과 안중근을 중심으로 조선 통감부의 통감인 일본인 이토오 히로부미 암살단을 조직하여 안중근이 그의 암살에 성공하며 해외 항일무장투쟁은 크게 고무되었다(박홍갑 외 상편,

83). 이들의 신문은 국외에서 발간된 일제를 규탄하는 신문으로 조선 국내로 배포되자 일본의 탄압으로 폐간되었고, 일부는 1910년 러시아가 일본의 조선지배를 승인함으로써 러시아에 의해 폐간되었으나 연해주 한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 전략적으로 친러신문 <대양보>를 창간시키는데 성공했다(위의 책, 84). 극동 한인의 민족신문<권업신문>과 민족단체인 <권업회>는 러시아 주요인사들이 참여하였고 러시아 당국의 절대적인 지지 하에 조직된 것이 특징적이었다(위의 책, 85). <권업회>는 재러 한인의 직업과 노동을 소개하며 교육보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을 제시하여 일본의 방해를 피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항일운동을 펼치고자 한 것이었다(위의 책, 86). 한인 민족언론이 거주사회의 세력과 결합하여 왕성하게 펼쳤던 활동은 러일관계를 단독하게 만든 세계 제1차대전으로 인해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러시아는 일본의 요청으로 이 대규모 민족독립운동을 위한 한인조직을 와해시켜버렸던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1차대전 발발과 1917년의 2월과 10월 혁명이라는 대 변혁기를 맞이하였다. 혁명의 혼란기에 러시아는 국내 내분으로 내전상황에 돌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인 독립군대도 내분에 휘말리며 극동 한인사회도 혼란기에 접어들었다. 1917년 2월 혁명은 짜르정부를 몰락시키고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탄생시켰고, 이는 노동자와 군인으로 구성된 볼셰비키 적군과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맨세비키 백군으로 국내전이 시작되었다. 시베리아전쟁으로 일본과 미국, 영국을 비롯한 무력 간섭군이 진입한 상태에서 한인의 독립운동은 적군이든 백군이든 어느 편에 편승되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극동 한인사회내부의 기득권세력과 비기득권세력과의 분열을 조장하였다. 혁명 초기에는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에서 결성된 한민회를 중심으로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인들 중심으로 민족자치와 권리신장을 하고자 반볼셰비키적 시베리아 독립정부를 채택하는

입장을 취했다. 즉, 반볼셰비키 한인세력들은 원호(국적취득자)로서 거주사회에서 토지를 받고 기반을 잡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기득권세력이었다. 이에 반해 기득권세력이 아닌 여호 (국적 미취득자)는 1918년 하바롭스키에서 별도의 <한족중앙총회>를 결성하였다. 한인의 분열된 두 조직은 힘을 합하여 다시 통합하고 단결을 이루기도 했으나, 외형적 연합의 이면에 기본적으로 원호와 여호의 잠재적 분열이 내재하고 있었다(위의 책, 111).

점점 혁명세력이 시베리아와 넓은 극동지역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한인의 조직도 친볼셰비키적 혁명전위세력으로 기울어져갔다. 1918년 5월에는 체코군의 반볼셰비키 봉기로 볼셰비키세력이 위기를 맞으며 볼셰비키세력은 한인군대와 연대하기를 희망하였다. 체코군 봉기의 여파는 극동의 볼셰비키 정권도 무력화시키며 극동 연해주에는 일본군과 연합군까지 무력으로 진입하였다(위의 책, 118). 이때 볼셰비키와 연대를 했던 한인 여호세력(국적 미취득세력)의 한인사회당은 연합군과 합세했던 백군과 대적하여 싸웠다.

1920년 초에는 연해주 백군세력이 몰락하고 러시아혁명세력이 득세하며, 혁명세력에 편승한 한인의 반일운동은 일본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껴게 하였고, 결국 한인사회의 정치적 중심지 신한촌을 습격하는 4월 참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한인의 희생을 낳고 민족운동세력을 파괴하였으며, 일본군 장악하에 연해주 신한촌은 친일화를 이루어갔다. 이로써 민족운동의 본거지는 와해되고, 한인 민족운동세력들은 이르쿠츠크, 치타, 블라고베센스크, 스바보드니 고라드(자유시), 하바롭스크 등으로 옮겨갔다(위의 책, 123,124).

볼셰비키와 연대하여 백군과 일본 연합군과의 대적하는 가운데 한인 민족군대와 지도자들은 인적 물적 커다란 손실을 당해야 했다. 1919년 하반기 이후부터 1920년 초에 이르러 러시아 극동지역이 점차 볼셰비키혁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극동 한인의 단체들은 각 지역의 공산당 조직에 합류하였다. 한인단체들이 공산당에 합류했던 것은 해외

한인단체에서 지원에 힘입어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1919년 3.1운동이 실패함으로써 커다란 상실감과 좌절을 맛보아야 했고, 4월 참변 등 이미 많은 희생을 감수했고 한인단체의 독립적인 무력항쟁은 더 이상 불가능함을 인식함으로써 공산주의를 표방한 형식으로 전환한 것이었다(위의 책, 138).

한인 독립군의 적극적인 공산당 조직화는 거주사회의 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독립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소비에트 공산당 혁명군에 편승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독립군내부의 분열은 한인 독립군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다. 공산당 조직은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에 확산되었는데 1920년대 말 모두 16개의 한인 공산당 단체와 2305명의 당원 및 당원 후보들이 등록되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통합된 한인 총괄 중앙지도부를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위의 책, 126). 그러나 한인 공산당은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로 나누어져 각 소련의 서로 다른 권력자의 지원을 업고 갈등하였으나 결국 이르쿠츠크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이러한 대립과 분열은 1921년 6월의 '자유시(Свободный город) 참변'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 소련의 레닌과 한인 독립운동가의 공동전선을 약속했지만 소련측과의 군사원조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었고 소련은 갑자기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한편 1921년 소련은 일본과 캄차카반도 연안어업문제의 회담에서 소련은 영내 한인항일무장단체들을 모두 해산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였다. 자유시(Свободный город)에 집결했던 한인 전체독립군 부대들은 소련혁명군에 의해 무장해제를 요구받았는데 이에 자유시의 이르쿠츠크파 부대는 순순히 무장해제를 했다. 그러나 무장해제의 조건으로서 제시된 독립군의 통합지휘권 결정에 불만을 품은 상해파 부대는 이탈을 함으로써 자유시 독립군 부대와 소련군이 합세하여 공격함으로써 10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참사는 한인



독립군 내부의 수장들의 갈등에서 기인되기도 했지만(고송무, 40) 소련이 한인 공산당파를 이용하여 분열시켜서 상해파를 민족주의로 몰아내고, 또한 일본과의 약속으로서 독립군을 해체하는 약속을 지키는 이중효과를 노렸던 측면도 있었다.

1922년 10월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침략야욕을 버리고 철수하고, 이어 극동공화국이 러시아공화국으로 전환되었다. 1922년 12월말에는 모든 한인 유격연합대를 해산하고 국내전쟁에 참가했던 자는 귀가하라는 명령을 받아 소련지역에서의 한인 독립군은 해체되고, 독립군 일부는 만주나 조선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김블라디미르, 50).

한인들이 거주사회의 혁명세력과 연대하여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에 기여해왔지만, 러시아 혁명세력은 이들을 공로자로서 인정하기 보다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오히려 타파의 대상이 되었다. 혁명정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연해주와 만주 국경지역에서 한인들의 항일독립운동은 달갑지 않은 민족주의로 간주되었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협상테이블에서 언제든지 시비거리가 되어왔으며, 극동지역의 안정화에 한인이 걸림돌로 인식될 때는 독립군과 항일단체의 해체를 서슴지 않았다. 한인 독립군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일본의 간섭이나 갈등을 피하고자 한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제 1차 세계대전에서는 러, 일이 연합하여 일본의 압력으로 한인의 독립활동을 제지하면서 한인을 전쟁 노동력으로 이용하였다. 1917년 혁명정부는 백군을 지원하는 일본세력을 퇴치하기 위해 한인독립군의 세력과 연대하며 소비에트 건설을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물러간 이후 더 이상 소련영역에서 항일활동은 용납될 수 없는 민족주의 운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듯 한인의 독립군의 입지는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에서 또한 러시아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되었고, 한인

내부의 분열은 한인들이 소련 공산당 세력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기회로 이용되었으며, 그리하여 독립군의 존재는 소멸되어야 했다.

역사는 언제나 승리자의 몫이 된다. 러시아 혁명 초기에 한인의 민족자본가 등의 기득권 세력은 주로 러시아 백군에 편승하여 혁명군과 대항하며 싸웠기 때문에 이들은 볼셰비키의 적이 되었고 타파해야 할 민족주의자로 몰렸다. 반면 혁명세력에 가담하여 극동지역에서 백군을 축출하고 일본군을 퇴치하며 전승을 이끌며, 항일 빨치산 부대에 참여했던 한인들은 소비에트 건설의 주역이라고 불리어 진다. 소비에트 초창기의 한인 민족세력의 분열의 경험은 오늘날 독립운동 후손들의 내부사회에서 그 갈등의 흔적이 남아있다.

## 2. 중앙 아시아 소비에트 한인의 정착

### 강제이주의 탄압과 시련

연해주에서의 한인들은 거주국 권력자들에 의한 제지를 당하면서도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여왔으나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은 연해주 한인의 기존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소비에트 권력은 각 민족의 자결권을 부르짖으면서도 소비에트 인민으로 통합하는 데는 민족주의를 걸림돌로 인식되며, 소비에트체제가 안정을 찾아가자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었던 한인의 독립군 또한 그 운명을 다하게 되었다.

레닌시대가 끝나고 스탈린시대에 와서 이러한 한인 민족집단의 불운은 더 가세되었고, 그것은 일부 한인이 아니라 극동 한인집단 전체에 덮쳤다. 스탈린의 독재체제하에서 극동 한인들에 대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의 단행으로 한인 이주민이 가꾸어놓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버리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으며 추방당해야 했다. 한인에 대한 강압적 이주는 목적과 수단 그리고 시기에 있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 한인사적으로 볼 때는 특정시기에 한인이 겪어야 했던 특별한 고통의 역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류역사에서 강제성을 띤 주민집단 내지 민족집단에 대한 추방이나 유형 정책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집단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온 보편적인 방법이였다(심현용 1999, 201).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만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2 차 대전을 전후로 스탈린 강압적 통치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1930, 40 년대에 무려 60 여 개 민족이 강제이주 조치를 당했고, 그 중 한인을 비롯한 15 개 민족은 민족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강제이주 조치된 인원이 수 백만 명에 이른다(심현용 1999, 206). 스탈린 철권이 단행했던 주요 강제이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구 소련 민족별 강제이주 현황

시기	거주지역	대상민족과 인원	이주지역
1936.4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 국경	폴란드인 3 만 5 천명	카자흐스탄
1937.7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스탄 국경	쿠르드족 1325 명	중앙아시아
1937.8	러시아 극동 연해주	한인 18 만명	중앙아시아, 볼그그라드
1941.8	볼가강 독일인 자치공화국을 비롯한 독일인 거주지역전체	독일인 80 만명 + 11 만 8 천명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1943.11	카라차이 자치공화국	카라차이 6 만9 천명	시베리아
1943.11	칼미키 자치공화국	칼미키 9 천4 백명	카자흐스탄, 러시아
1944.2	체첸 잉구쉬 자치공화국	체첸 잉구쉬 45 만 9 천	카자흐스탄, 끼르기즈
1944.3	빠자르진-발까르 자치공화국	발까르 3 만 7 천명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1944.5	크림따따르 자치공화국	따따르 19 만 4 천, 불가르민족 1 만 2 천, 그리스 인 1 만4 천, 아르메니아인 9 천명	중앙아시아, 우드무르짜야

시기	거주지역	대상민족과 인원	이주지역
1944.11	루지아의 아자리아 자치공화국 남부 터키와 국경	투르크계 민족 10 만명	중앙아시아

출처: 심헌용. 1999, 209. 재구성.

그 대상이 슬라브민족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포함한 소련을 구성했던 소련 전체 민족수의 반을 차지하는 민족집단들이 강압적 이주를 당했다. 이는 주로 전쟁 전에 적군에 담합할 가능성에 대한 예방적 조치나 혹은 소비에트체제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거나 적군에 협력적 활동을 했던 국경지역의 민족집단들을 처벌적 성격의 강제이주 조치를 해왔다. 극동 국경지역의 한인들과 서북부 국경지역의 폴란드인들은 비슷한 시기에 각 각 ‘일본의 스파이’와 ‘독일군의 스파이’로 지목되어 강제이주 된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폴란드인은 14 만 명이 처형되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박홍갑 외 상편, 184). 강제이주의 대상의 특징을 볼 때 일부 스파이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이 소속된 민족은 민족집단의 전부를 ‘잠재적 스파이’로 간주했고, 적군에 협력활동을 벌인 사람이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적군의 ‘잠재력 협력자’로 몰아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많은 민족들을 대상으로 소련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소비에트 권력의 강제이주 조치는 특정 민족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했던 폭력적 민족 탄압으로 볼 수 있다.

소비에트 비밀문서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소비에트 정권이 명령한 극동 한인의 강제이주 조치의 이유는 무엇보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 있었다. 강제이주의 명령문에 소련의 개방 이후 접근가능해진 당시의 비밀문서에 ‘일본 스파이의 침투 차단 목적’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시기적으로 극동의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시행되었다. 소련의 변방에서 일어난 타 민족집단들의 강제이주 조치가 당시 세계

제 2 차 대전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일어났듯이, 한인의 이주도 시기적으로 극동이 소련의 군사적으로 일본과 긴장에 극에 달해 있었던 때였다. 소련과 일본과의 분쟁과 갈등은 소비에트 탄생이전부터 있어왔다. 소련은, 1904년 러일전쟁에서 패했고, 1918~1922년에는 일본의 시베리아 원정 침략, 1931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세운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었다. 세계 2 차대전을 앞두고 일본은 미국과 소련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했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긴장상태에서 중소불가침 조약을 하였다. 스탈린의 철권이 내부의 적을 색출하여 숙청하고 있던 시기에 소련내부에 잠입한 외국의 스파이문제가 거론되었다. 1937년 여름이 지나갈 때 갑자기 고려인에게 닥쳐온 강제이주에 대한 명령은 1937년 8월 21일 스탈린과 몰로토프의 서명이 있는 결의문에서 나왔다(Лин В. 외 1997, 64). 여기에 명문화된 한인이주의 이유는 극동 한인이 일본의 간첩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소련이 예방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 결의문이 하달되기 이전에 소련당국은 극동의 한인이 소련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의 집단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언론을 통한 유포작업이 진행되었다. 1937년 3월 16일 <프라우다>지에서는 '일본의 간첩망'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같은 신문에 4월 23일에는 '소비에트 극동에서의 외국 스파이행위'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여기에는 일본의 스파이가 한국, 만주, 북중국에 퍼져있으며, 이 지역에 일본인, 한인, 중국인 스파이들을 파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권희영, 69). 특히 연해주에 한인은 한국말 외에 러시아말과 중국말, 일본말을 구사하므로 스파이로 이용되기에 용이하다는 인식도 있었다(고송무, 28). 또한 조선이 일본식민지였으므로 연해주에 한인이 일본의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소련의 극동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호전적 일본에게 전쟁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실제로 강제이주 당시 적어도 수 백 명의 한인이 블라디보스톡 주재 일본

영사관에 등록되어 있었고, 일본은 이 한인들이 강제이주 당한 것을 알고 항의를 한 적이 있었다(박홍갑 외 상편, 186).

강제이주조치는 명시된 군사 안보적 이유 이외에도 소련내부의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에서 지적될 수 있다. 즉, 토지부족 문제로 인한 한인과 러시아인과의 갈등, 한인이 주도적으로 민족자치주를 설립하고자 했던 활동 그리고 한인을 미개척지 내륙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이득 등의 이유를 고려한 결정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러시아 제정시대부터 극동 연해주지역에 외부 이주민보다 자국민 러시아인을 위주로 배치하여 자국영토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소련정권은 한인보다는 러시아인에게 토지분배의 우선권원칙을 두고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민족간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었다. 토지분배에 있어서도 불공평했지만 경작지 헥타아르당 부과되는 공출 의무량도 수찬스키(Сучанский район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구의 예를 들면 한인집단농장은 러시아집단농장보다 무려 10 배가 넘게 부과되었다. 이 불공평한 처사에 한인들은 집단화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이러한 한인의 저항은 결국 소비에트 정권으로서는 위협적 상황으로 인식되었다(위의 책, 189). 부농청산과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미개척지로 한인들을 이주시킴으로써 해소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1920 년대 말 일부는 중앙아시아에 벼농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인들을 보내어 갈대밭에 물을 대어 이미 벼농사를 짓고 있었다. 당시 카자흐스탄에 200 여명으로 구성된 '카즈리스(Казрис)'는 한인집단농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앙아시아의 빈 땅을 벼농사에 탁월한 한인으로 하여금 개간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에트 전체 식량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한인 강제이주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또 한인 강제이주의 하나의 측면으로, 일본을 대상으로 독립군을 결성하며 무장투쟁을 해왔고 조직력과 민족적 역량을 뛰어났던

한인집단은, 소련입장에서 위협적 이민족으로 인식될 수 있었고, 대일관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22년부터 연해주 '고려부(Корея Буросо)'의 위원이었던 한명세는 소련중앙정부에 한인 자치주 건설문제를 건의하였으나 소련당국이 이를 거절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다. 이는 당시 여타 소련 소수민족들 중에 야쿠트족, 부랴트족, 키르기즈인, 타타르인, 코카서스인 및 우즈베크인들이 자치주를 허락을 받은 것을 볼 때 한인 자치주 설립 거부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위의 책, 190). 한인의 자치주 설립운동은 인민의 통합을 위한 민족집단을 분산 통치해야 한다는 소비에트 정책과도 반하는 것이며 소비에트화의 걸림돌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강제이주의 배경과 원인은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가 시행해온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대외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분석하고 유추되어왔다. 그러나 강제이주라는 극단적 처방이 스탈린 개인독재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대규모 체포와 숙청을 단행한 최고 권력자 스탈린의 광포한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스탈린 시대를 권력 만능주의, 강력한 중앙집권화, 폭압, 숙청, 긴급비상조치 등으로 특징 지운다. 스탈린은 자주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다는 말을 되내이며 내부와 외부의 적'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한세르게이 외, 46). 그는 평생 동안 편집증적 증세에 시달려왔으며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는 억압이 중요하다 것을 강조하였다. 스탈린은 '인민의 적'을 레닌의 전우들, 당의 고급두뇌들, 농민들, 군의 고급장교들, 지식인들 원로 당간부들, 전문가 그룹 등 모든 인민을 예외 없이 탄압의 희생물로 지목했다. 사회전반에 빈틈없는 감시와 처벌이 만연해 있었고 전 국토는 거대한 수용소처럼 변하였다. 1932 년과 1933 년의 기근시대에는 전국적으로 기근으로 죽어갔고, 설상가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그 이유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자 집단농장에서 여자들이 이사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재산 착복자'들을 퇴치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졌다(위의 책, 48). 1937년에는 트로츠키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숙청과 처형을 당하였고, 1937년 5월에서 1938년 9월사이 거의 모든 부대의 지휘관 약 반수가 숙청되었다(위의 책).

스탈린은 대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민의 적'을 민족집단 속에서도 찾아야 했고, 고려인이나 독일인, 체첸인을 비롯한 수많은 소수민족도 그 대상이 되었다. 스탈린은 이전에 소수민족 담당 인민위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아예 소수민족문제는 사소하게 취급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고, 민족자결도 당연히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고 전해진다(위의 책, 49).

이렇게 볼 때 고려인의 강제이주의 배경은 극동의 불안정한 정세와 스탈린의 망상적이고 강박적인 성격, 즉, 제국주의들의 야욕과 인성이 파괴된 한 독재자가 만나 생긴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소비에트시대의 국경지역의 민족집단에 대한 강제이주 조치는 소비에트의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에 대치될 때 반혁명활동이나 반체제활동, 이적행위 등의 죄목으로 흔히 행사되었던 수단이었다. 아울러 병적중세를 가진 스탈린의 무소불이의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가운데 극동안보의 위기에서 상황에서 지시된 극동한인의 전면적인 강제이주는 독재자 입장에서는 그리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다.

극동한인의 중앙아시아 이주는 한반도 북부에 근접한 연해주 지역으로의 생존권을 찾기 위한 자발적인 이주와는 완전히 다른 단기간의 물리력에 의한 강제이주였다. 이주명령이라는 소식을 접한 한인들은 그 조치가 스탈린 헌법과 공산당의 민족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떠들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은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인들을 한밤중에 체포하여 '반혁명자', '반소비에트주의' 라는 죄목으로 제거하였다. 공포의 '죄수 호송차(черный вагон)'에 실려가는 사람들은 반체제나 반혁명분자로 몰린 한인들로 다시 오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었다. 이들은 그와 같은 죄명을 받은 사람은



시(город)에서부터 구역(район), 주(область) 지역(край)까지 행정기관의 단계마다 설립된 트로이카(тройка)의 간단한 재판으로 처리되었다. 트로이카는 공산당 위원회와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그리고 내무 인민위원의 각 한 명씩 구성되었다. 이들의 재판기간은 보통 열흘이 채 못되었고, 재판은 검사, 변호사없이 진행되었다. 피고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와 피고의 형식적인 자백의 확인, 그리고 미리 준비된 판결문만 읽으면 재판은 끝난 것이었고 곧바로 집행되었다(정장길, 254; 한세르게이 외, 49). 즉 재판이랄 것도 없이 이미 죄목도 판결도 정해진 맞춤 재판으로 볼 수 있다.

고려인의 강제이주는 1930년대 후반 '스탈린의 대탄압' 시기에 반체제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숙청작업과 동시에 진행되었고, 숙청의 대상은 스탈린 주변인물 중에 실권자부터 시작하여 힘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 천만으로 추산된다(정장길, 254, 257).

한인 이주 공동결의문이 채택되기 이전에 극동 크라이에서는 당 조직, 군대, 처벌기관, 무력기관, 인텔리겐차(지식인), 수 만명의 일반 노동자를 포함한 전 계급을 아우르는 숙청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체주의적으로 감시와 처벌은 강제이주 관련 책임자와 실무자에게도 극도로 공포적이었다. 수 백명의 공산당원들이 지시이행 태만과 당 강령위반, 실수 등을 이유로 책임추궁을 당했는데, 당증을 압수당하고 파직되었으며 심지어 체포되고 강제수용소로 보내어졌다(김게르만, 208).

누구나 감시와 숙청의 대상이 되는 폭력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인이주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강제이주조치에 방해되는 요소와 잡음을 없애기 위해 이주명령에 대해 한인들이 무장봉기를 계획했다는 문서를 내무위원회에서 날조하였다. 먼저 한인 중에서도 고위직에 있던 공산당 포시예트(Посиет) 구청위원회 제 1 서기관 김아나파시를 대표로 총살을 언도하였다(김게르만, 202). 강제이주 전야에도 수 없는 한인이 체포되어 갔지만 이주 이후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지속되어 무려 2500명의 한인이 숙청되었다.

체포의 대상은 거의가 한인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단순 노동자나 농민도 예외가 아니었음이 공개된 비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소련해체 이후에 국가보위부 특별문서보관소에서 공개된 일부 탄압 희생자의 명단으로서 알마틴스키 주와 알마타시에서 체포되었던 한인의 직업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 희생자 직업별 현황

직업, 지역	알마티 주	알마티시	계
책임자	5	4	9
꿀호즈멤버	25	5	30
기술직	10	5	15
교육직	6	4	10
서비스직	2	4	6
경리직	1	9	10
기타	10	29	39
계	59	60	119

출처: Хегай. ДКНБ. 2002. 재구성.

이 표에서는, 두 지역의 고려인 희생자들이 당 간부 같은 지도층의 인사나 교육자, 기술자 등 지식인 부류가 많으나 이외에도 꿀호즈의 일반 노동자들이 전체의 20%나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명령에 대한 절대복종을 강요하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자는 누구나 반체제분자로 몰려야 했던 것이다.

소련 실권자 스탈린의 서명이 있는 강제이주에 대한 중앙정부(СОВНАРКОМ СССР) 와 당 중앙 위원회 (ВКП-6)의 결의문 제 1428-326 호에는(Ли У. 외 1997, 64-65) 한인이 이주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합리적 행정적 조치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현실적 조치가 따르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다.

열차수송은 1937년 9월부터 출발하기 시작하여 11월까지 진행되었고 보통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 수 주에서 한 달 이상까지 걸려서 도착하였다. 한인이주는 크게 1, 2 차로 나누어 실시되어 36,442 가구 171,781 명이 이송되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권희영, 71, 72). 열차이주과정에서 수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강제이주경험자들에 의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강제이주 공개 문서들은 아예 한인 희생자의 현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당시 이주 고려인에 대한 정확한 인구수와 희생자 수를 모른 채 당시의 인명에 대한 통계는 소련당국의 보고에서 나온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인 경험자들의 증언과 부분적인 정보들을 통해 당시의 그 비참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강제이주 출발전인 연해주 고려인 인구통계도 실제 소련당국의 보고에 의한 인구수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고송무와 빼트로브(Petrov A.N.) 에 의하면(고송무, 13) 연해주 인구통계에서 1927년에 한인이 17만 명이었고, 등록 수수료 지불문제로 등록을 기피해서 공식적 등록을 하지 않았던 한인을 포함하면 25만 명 정도였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1937년 8월 19일 소련 공식 비밀문서에는 1932년 1월 1일 기준 극동 인구조사에서의 한인은 199,500명으로 기록되어있다(Мен Д. 외 1998, 3). 5년이 지난 1937년에는 극동의 한인인구는 20만 명을 훨씬 상회했을 것이고, 이것은 앞의 두 학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록상 강제이주 열차로 이송된 인원이 18만 명이었고 이주지역에서의 많은 사망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강제이주를 전후로 희생된 한인은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주 이후에도 열악한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것을 감안하면 희생자 수는 더욱 늘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주열차내의 환경과 여건은 생존의 최악의 조건이었다. 한인이주 결의문 조항에 가재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가도록

되어있었고, 각 수송열차마다 위생칸도 달려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형식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초기에는 큰 역들에서 끓는 물과 음식물도 살 수 있도록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레닌기치 1990. 8.17). 가져갈 수 있는 짐도 개인당 40kg 으로 제한하여 모든 살림살이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 가족의 예를 들면 이부자리와 옷가지, 당분간 먹고 살 쌀과 좁쌀, 감자 등 십여 킬로그램씩, 그리고 솔과 주전자를 비롯한 간편한 가재도구뿐이었다는 것이다(정장길, 264).

이들이 생존을 위해 먹는 문제와 생리적 해결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증언자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열차가 정차하는 곳은 추위가 온통 변소가 되기 때문에 아예 역에 훨씬 못 미쳐 정차했다고 전한다. 이주민 자신들이 준비한 것 외에는 물과 음식이 공급되지 않았고, 이는 식수와 식사문제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한 열차 칸에는 육포를 준비해서 가져온 이도 있었는데,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 이것을 누구도 먹으려고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짹짹한 육포를 먹으면 물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열차 안의 사람들은 굶주림과 갈증 그 어느 것도 해결될 수가 없었다. 생리적인 배출조차 허락된 시간에 맞추어야 했다.

비위생적 환경, 추위와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했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 모를 땅에 묻어야 했다. 이주되는 화물열차내의 상황은 여러 자료의 정황과 증언을 기초로 해볼 때 한 달 이상 지속된 아비규환의 죽음의 감옥에 비유된다. 객실이 아닌 짐짝이나 가축을 수용했던 화물칸이었고, 달리는 기차에 외부의 공기가 소통되는 차거운 밤공기에 노출되어야 했으며, 이것은 결국 추위, 질병,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희생자를 늘여갔던 원인이었다. 그러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남은 한인들은 새로운 도착지에서의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해야 했다.

## 소비에트 한인의 적응과 지위

수송열차에서 낮은 곳에 내린 한인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준비된 것은 없었다. 열차 내에서의 악몽과 같은 상황은 지속되었고 혹독한 겨울을 허허벌판에서 지내며 살아남아야 했고, 또 다른 먼 곳으로 재이주를 하며 추위, 질병과 배고픔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한인 이주에 대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이주자가 생소한 지역에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원조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었고, 이주 전에 소유하던 재산이나 가축은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며, 동산과 과중지역의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으나 출발지인 극동에서는 거의 이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주민 도착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박홍갑 외 상편, 194).

일부 한인들은 카자흐들이 떠나고 없는 폐가를 차지하거나 혹은 헛간 같은 데서 지내기도 했다. 1930 년대의 기근과 소련의 농업 집단화정책으로 카자흐들은 유목생활을 더 이상 못하고 가축들도 빼앗겨서 먹을 것이 없어 죽거나 먼 곳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헛간이나 폐가를 얻은 것은 운이 아주 좋은 경우였다. 강가의 갈대밭에서는 갈대로 움막집을 짓고, 사막지역에서는 토굴을 만들어 겨울을 지내야 했다. 이미 병이 들고 약해진 이들은 다른 기후와 물, 모기로 인한 설사와 학질에 잘 걸렸고 쉽게 희생되었다. 어떤 한인들은 카자흐들이 준 양젖이나 말젖을 먹고 설사를 하고 이겨내지 못했다고 전한다. 2 세 이하의 어린이는 거의 다 사망하였으며, 이것은 실제 고려인 중에서 1938 년을 전후로 출생한 고려인이 희박하다고 한다. 더 큰 희생은 도착지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또 다른 곳으로 재이주를 해야 했기 때문에 1937 년 말과 1938 년에 한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한다. 리킨(M. Rywkin) 은 그의 저서 <Moscow's Lost Empire (1994)>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위의 책, 198), 여기에는 소련중앙의 명령에 의해 한인이주민을 거부하지는 못했지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인민위원회는 이주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없었고, 이로 인한 지원의 부재로 한인은 방치되다시피 하여 한인 이주민의 22%에 해당하는 4 만여 명이 사망하였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약자들이었다고 전한다.

도착지에서 잔인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이 오자 행정당국이 이주민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재배치와 재이주를 시작하여 미개지와 황무지에 배정되거나 각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에 분산되었다. 고려인들의 새로운 이주지에서의 벼재배의 노력은 이들의 생존을 이어갈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고, 거주사회에서 버림받은 느낌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이 주로 정착한 지역은, 카자흐스탄의 경우 거대한 호수 발하쉬로 들어오는 7 개의 강 지역(Семиречье) 중에서 까라팔강과 일리강 유역의 탈디구르간, 그리고 크즐오르다지역이었고, 우즈베키스탄은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강 유역의 타슈켄트 남부지역이었다. 봄에 한인들은 땅을 파고 수로를 개척하여 논을 만들어 원동에서 가져온 볍씨를 뿌려 벼농사를 성공시키며 한인 자치의 집단농장을 형성시켰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원동보다는 열대성 기후의 호조건을 이용해 논에 물만 대면 벼농사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 꼴호즈는 주로 벼농사와 목화재배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 중앙아시아 이주한인에게는 몇 년 동안 세금이 면제되었고, 국가가 농기계, 투자, 비료, 그리고 건설 자재면에서 당국이 보조를 해 주었던 것이 힘이 되었다고 한다(고송무, 35). 그리고 상당수의 어업콜호즈도 조직되어 1938 년과 1939 년에 상당수의 한인 어업콜호즈가 운영되었다. 1939 년 카자흐스탄에는 한인 콜호즈 70 여 개 중에 어업 콜호즈는 13 개가 있었다(박홍갑 외 하편, 55).

이주 초기에 한인 집단농장이 창설되고 적응해 갔던 나은 조건에 있었던 고려인들 도 있었지만 실제 많은 수의 이주민이 무직상태로 방치되어있었다. 모든 것을 팔며 생활을 연명해야 했으며, 거주숙소를

공급될 때까지 수년이 걸려 일자리 문제와 거주지 문제가 한인들의 불평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구가 재정지원도 못 받은 채 최악의 생활을 해야 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위의 책, 54) 최악의 상태에서도 한인들은 점차 콜호즈를 중심으로 집단적 생활을 하며 사회적 물질 기반이 형성되어가며 소비에트인으로 적응해 갔다.

그러나 이들의 거주사회에서의 사회적 법적 지위는 취약하게 노출되어있었다. 특히 한인들은 적의 잠재적 협력자로서 낙인되어 강력한 권력의 통제하에 강제이주 된 한인들의 권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한인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거주지 이전제한이라는 기본권 권리의 박탈에 있었다. 강제이주 이전부터 극동의 강제이주 책임자 예조브는 리슈코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주과정이나 이주 이후에 지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서 공민증을 회수하였고 거주지역이름이 명시된 거주증을 교부하게 하였다(권희영, 78). 소련당국의 거주지 이전제한조치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흩어진 수많은 한인들에게 또 다시 혼란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남겼다. 이것은 이주집행자들의 행정편의주의와 실수로 종종 야기되었음이 증명된다. 그 한 예(박홍갑 외 하편, 53-54)로는 노부모는 호레즘구역의 구르덴 시에 이주했고, 자식들은 안디잔 시로 이주되었는데 이주열차에서 이주담당자들이 실수로 부모를 다른 열차칸에 태웠다는 것이다. 자식들은 생활능력이 전혀 없었던 노부모를 걱정하여 안디잔으로 이주시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지역 내무위원회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내무위원회, 타슈켄트 내무위원회까지 청원서를 내야 했다. 결국 청원서가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어 긴 행정적 절차와 시간을 소모하였고, 이러한 청원서들이 오늘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문서보관소에 수없이 많은 것을 본다(위의 책, 54).

소련 정부의 이주민에 대한 거주지 제한조치는 국경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이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 한인들의 경우 일본인들과의 접촉의 가능성을 막아야 했고, 도주를 막기 위해 철도에서 먼 곳으로 이주시켰으며,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한 장소에서 1000 호 이상의 콜호즈 집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콜호즈의 허락없이 그 구성원은 한발짝도 뛰지 못했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예 주민증이 없었다(Кан Г. 1995, 116). 소련정부가 추방된 부농(쿨락)을 '특별 이주민'으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이주 한인들을 '행정적 추방인'으로 취급하여 추방 부농보다 대우를 달리 하였다. 예를 들면 강제이주 직전 소유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주었으며, 당국에 의해 압수된 재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었고, 근로자들은 이주직전까지 임금을 수령하였으며 학생들과 군인들은 200 루블의 연금도 지불되었다. 모든 이주자에게 이를 없앨 수 있는 증기탕 목욕을 할 기회도 주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명목상 약속에 그치고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박홍갑 외 상편, 199).

소련 정부에서 한인에 대한 거주제한의 규정은 스탈린 사후까지 내용상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 '행정적 추방인'으로서 한인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벗어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주제한의 기간은 5 년이었다(Ли У. 외 1997, 71; 박홍갑 외 상편, 199) 한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다른 지방으로 나가려면 지역 내무위원회에 가서 거주기간이 명시된 특별증명서를 발급받고 출석 서명도 해야 했다. '행정추방인'으로서 5 년 이후인 1942 년에는 거주제한이 해제되었어야 했지만 스탈린 사후까지는 지속되었다. 그리고 1945 년에는 이주민들에 대한 강제적인 취업알선과 자유로운 이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한 '특별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한인에게 적용되었다(박홍갑 외 상편, 52). 그러나 후르시초프 시대 제 20 차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에 거주이전제한이 전적으로 해제되기 이전에 1946 년 8 월부터 1947 년 3 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소련당국에서



새로운 명령으로 거주중 교부시기에 고려인들이 정상 공민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시기에 정상 공민증을 받은 한인들은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한인들은 여전히 거주지 제한 규정에 묶여 있었다(권희영, 79).

스탈린 체제하의 한인들은 '행정적 추방인'으로서 특정지역 내 이주를 제한하는 정도였고, 처벌적 성격의 범죄인으로 강도 높은 통제와 감시를 받았던 체첸이나 잉구쉬, 크림따따르 등과는 그 처우가 달랐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추방자'로서 기본적으로 군복무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한인들은 주로 전쟁기간에 근로대대에 편입되어 탄광이나 건설현장, 벌목장, 무기제조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노동력으로 동원되었다(박홍갑 외 하편, 75). 소련은 전쟁 중에 부족한 산업노동력을 강제이주민을 활용하여 메웠다. 1942년 1월 10일 소련 국가 국방위원회가 발령한 제 1123호에 따라 7,765명에 달하는 한인들을 근로대대에 동원했던 일이 있고 그 외에도 수 차례에 걸쳐 한인 노동력을 모집하였다. 노동군대에서 한인들의 지위는 내무부 인민위원회 소속의 노동 수용소의 수감자들과 강제이주된 다른 민족과 똑같이 노동근로자로서의 대우였다. 거주조건이나 작업조건에서 모두 동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노동전선에 참가했던 한인들은 독소전쟁의 승리기념으로 정부로부터 노력영웅으로 인정받아 불명예스러운 '추방인'에서 사회적 지위를 승격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제이주와 함께 한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적 기반을 손상시켰던 가장 큰 사건은 소비에트 당국에 의한 한인 민족학교의 폐쇄였다. 스탈린 체제는 강제이주 직후 1938년 4월 8일 '민족학교 재편성'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의 내용은 소수민족의 민족특수학교는 민족주의와 부르주아적인 반소비에트의 근원지로 간주되었고 모두 적결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민족학교는 모두 소련일반학교로 전환하라는 지시였다. 여기에는 한인을 비롯하여 독일인, 불가르인,

둔간인, 위구르인 등의 민족학교들이 이에 해당되었다 (Мен Д. 외 1999, 186, 187).

강제이주 직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인들은 민족학교와 교사들을 구성하여 각 공화국에 학교를 건립되었고 고려사범대학도 크즐오르다에 설립하였다. 1938년 한인 민족학교들이 폐쇄되기 직전에 카자흐스탄 공화국내에 160명 정원의 학교가 32개, 280명의 학교는 11개, 400명 학교가 1개 그리고 고려사범대학도 등의 민족학교들이 배치되어있었다(위의 책, 190). 그러나 1938년 4월 소련당국의 명령에 의해 민족학교가 아닌 소련일반학교로 전환하였다.

더구나 당 권력에서는 민족어 교육의 자료가 되는 민족어로 된 모든 서적을 말살하여 민족문화의 싹을 잘라버렸다. 1939년 12월 27일에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쓴 작가나 당, 지도자들의 서적 외에는 모두 처분하도록 결정된 '한인 서적에 관한 지시가 하달되었다(위의 책, 335). 강제이주 수송열차에서의 어려운 시련을 거치며 보존해온 민족자료를 도착지에 새로 설립된 민족학교에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불태워야 했던 것이다. 다행한 것은 민족어로 된 신문인 <선봉>은 <레닌기치>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민족신문의 형식이 민족어로 되어있었지만 체제와 당선전을 위주로 한 내용의 기사를 민족어로 번역된 번역신문이나 다름없었다. 이 때문에 신문에 대한 당 검열을 통해 민족적 색채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원동에서 어려운 난관에서도 자신들의 뿌리를 강하게 내렸던 고려인들은 강제이주의 시련과 함께 소비에트 체제형 인간으로 자신들을 쇄신해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들의 민족적 유산은 거주사회의 적응과정에서 그 의미를 상실해갔다. 거주사회에 철저히 의존해온 소비에트 고려인은 믿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인 '소비에트 체제의 와해'를 맞아 또 다른 새로운 체제의 구성원으로 자신들을 갱신해야 할 운명에 있었다.

### 3. 구 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지위

강제이주 이전의 연해주 한인들은 거주사회에 적응하면서도 민족적 집단으로서 유지를 해왔고 특히 모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발휘한 민족적 역량은 소비에트 건설에 이용되었고 소련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고려인들은 강제이주의 탄압과 생존권의 위협에서도 소비에트 언어와 소비에트 체제를 체질화하며 거주사회에 편입되고자 안간힘을 써왔다. 구 소련말기에 고려인의 모국인 한국에서 열린 서울올림픽의 계기는 소비에트의 기반을 다진 고려인 사회를 흔들었다. 이 국제스포츠의 행사는 나약해졌던 공산주의 국가들과 대비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힘을 드러내었고, 고려인 사회에게 자본주의 국가 한국이라는 모국의 등장은 거주국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어진 소비에트의 해체는 귀속사회에서의 다져온 기반들을 무력화시키며 고려인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독립 공화국의 토착민의 민족국가 건설 프로젝트에서 고려인의 위치는 재배치되어야 했다.

#### 88 서울올림픽과 새로운 모국의 등장

구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에 한국에서 열린 1988 년 서울 올림픽은 소비에트 소수민족 고려인 사회를 동요시킨 큰 사건이었다. 스포츠를 통해 인민들을 결속시켜온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자본주의 국가의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은 냉전체제에서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소련은 체제의 개혁을 시도하였고, 자본주의 국가와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 서울 올림픽은 한국과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와의 교류를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공산권 국가에서의 한국의 부상은 구 소련 고려인들이 그 동안 모국으로 여겨왔던 북한과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게 하였다.

서울 올림픽은 해외 한인에게 민족애를 자극하는 큰 행사로서 단지 동포로서의 유대를 결속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국 사회에서의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와 사회적 지위에 크나큰 변화를 주었다. 한국인과 고려인이 피를 나눈 혈연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민족적 유대가 단절된 것은,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볼셰비키혁명으로 인한 공산체제에 돌입하였고, 한반도에 대해 소련과 미국의 간섭으로 인한 남북한 분단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50년 6.25 전쟁은 소련과 미국의 일종의 대리전쟁으로 동족이 서로 피를 흘려야 했고, 이념이 다른 냉전구도하에서 한국인과 소비에트 고려인은 서로 원수의 나라 국민들에 불과하였다. 극동한인들이 스탈린 권력에 의해 강제이주 되기 전만해도 일제에 항거하며 민족독립운동과정에서 모국민의 일원으로서 긴밀한 유대를 갖고 있었지만 소비에트 체제하에서는 이념적으로 공산형제국가였던 북한을 모국으로 간주하면서 이념이 달랐던 한국과는 단절되어야 했다.

올림픽은 냉전구도에서 각 이념과 체제의 선전의 장이 되기도 했지만 세계적인 스포츠 대전인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최국의 경제력, 외교력 그리고 국가적 역량을 보이고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행사로 간주된다. 서울 올림픽은 공산권과 자본주의 국가를 아우르는 최대 참여국과 참여선수를 기록하며 올림픽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은 물론, 당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 냉전구도의 해체를 촉진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데에 세계사적 큰 의미가 있다.

냉전구도에서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공산국가들의 참여여부가 가장 민감한 관심사였는데 이것은 서울올림픽 이전의 두 올림픽에서 상대진영의 개최국에서 열린 올림픽에 서로 불참했던 악몽이 남아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80년대 말 시기적으로 내부의 한계를 맞고 있었던 소련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돌파구로서 개방의 의지와

함께 서울 올림픽 참가결정을 하였다. 88 서울올림픽 결정시기의 소련은 고르바췌프의 대규모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소련내부의 경제적 불균형과 추락으로 내부분열과 위기상황에 있었고, 소련 국민들은 심각한 소비재의 공급부족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정도였고, 당선전용 기관지인 민족신문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게재되기도 했다(레닌기치 1988. 7.7. 4 면).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의 타개노력은 대외적 외교정책으로 이어졌고, 경제개혁지원 차원의 일환이었던 외교선언으로 ‘신아시아정책’ 성명들(변창구, 262) 이 거둬되면서 소련정부는 대외협력에 있어 점차 강도 높은 실리적 외교를 지향하였다. 소련은 이념을 넘은 대외협력구도를 만들며 한국과의 공세적인 교류를 성사시켰고 결국 1987년 12월 헝가리와 동독에 이어 88 서울올림픽 참가 협정서에 서명을 했다. 이와 동시에 1988년 1월1일 그라모프 소련 체육성 장관의 서울올림픽참가 공식발표, 소련의 볼쇼이 발레단 내한공연, KAL 기의 소련영공 통과허용 등의 한소 협력적 분위기가 이어졌다. 올림픽 이후에는 반공국가 한국으로서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산권국가들과의 수교가 이루어졌고 1991년에는 한소 수교까지 진입하게 되었다(강규형, 252).

한국과 공산권국가와의 올림픽 외교와 경제협력 그리고 수교에 이르는 관계발전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공산국가들의 변화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올림픽을 통해 보여진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구 소련은 약화되는 체제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올림픽 무대에 소련의 ‘스포츠 영웅들’을 등장시켰지만, 스포츠를 통한 공산체제의 승리를 증명하기보다는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이며 자본주의의 최빈국 한국의 변신에 깊은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여파는 그 동안 공산권국가들이 올림픽이라는 비정치적 형태를 빌려 우방국과 적국,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폐쇄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선전의 장으로 활용했던 이념의 틀을 약화시키는 데 작용하였다.

한국의 발전상은 변화를 절감하고 있던 소련정권 그리고 공산권국가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이었고 닳고 싶은 좋은 모델로 인식되었다. 소련해체이전에 소련의 국제정치학자인 한 마르크스는 88 올림픽이 소련사회에 미친 여파에 대해 피력한 내용에서 당시 한국의 경제적 발전상이 얼마나 소련에 큰 파장을 던졌는지를 말해주었다. (시사저널 1990.6.7) 두 나라간의 관계발전은 올림픽 이전의 스포츠 부문에서의 교류(고송무, 202), 한소실무교류와 서울올림픽 등 일련의 행사를 통해 한국의 실상은 이미 소련지도층은 물론 소련 인민들에게 알려졌고 소련언론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소련의 한국에 대한 언론의 기사는 그 동안 소련의 대표적인 신문 <프라우다>를 통해 나가는 뉴스를 접해왔다. 이 신문은 한국관련기사에 대한 소련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왔고, 한국주변의 소식을 소련이 특파원을 두고 있는 평양이나 일본을 통해서 가져오는 인용보도 수준에 머물고 자체해설조차 없었으며 극히 제한적인 보도였다(고송무, 193). 소련의 한국에 대한 기사는 주로 사건위주로 다루며, 당연히 긍정적인 기사는 기본적으로 없었고, 이러한 기사도 한국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 아니라 반대진영의 미국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소련언론에 한국에 대한 역사나 문화에 대한 것들이 다루어질 수도 그리고 일반인에게 알려질 수도 없었다.

서울 올림픽 뒤에 소련언론에서 한국관련 기사를 다루는 비중은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1989 년 상반기에 <프라우다>지에서는 총 37 건의 한반도 기사 중에서 19 건이 한국관련 기사였으며, 이것은 북한관련 기사를 양적으로 넘고 있었다(고송무, 192, 193). 내용적으로도 세계의 주요소식을 국가별로 소개하는 지면에서 1989 년 3 월 2 일부터는 정기적으로 한국의 소식이 실렸다(고송무, 195). 사건기사에서도 종전처럼 테모관련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종전의 이분법 구도에 의한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전두환’

이라는 적대적 표현보다는 ‘남한 당국’, ‘노태우 대통령’이란 표현으로 호칭에서도 남한을 인정하는 호칭으로 전환되었다.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1988년 6월에는 텔레비전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상이 소개되었고, 1988년 8월 <소련여성>지에는 소련선수들의 올림픽 분비상황을 특집으로 내보내어 올림픽 시설과 분위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고송무, 192, 193). 소련 방송과 언론의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는 시기를 같이하여 민족신문 <레닌기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1988년 6월 29일자 남한에 대한 소개는 구체적 경제발전상을 중국과 한국의 무역량이 중국과 북한과의 무역량의 두 배를 초과한다는 것과 한국과 소련의 맹방들의 동구권 국가들과의 무역도 하고 있다는 구체적 기사는 소련 고려인들에게 커다란 인상을 남겼다.

소련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영, 올림픽 개최국 한국의 놀라운 발전 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결국 올림픽을 통해 고려인과 한국인은 뜨거운 동포애를 나누게 되었다. 특히 소련 예술단원으로 참가한 고려인 예술인들과의 만남은 공연자나 관객 양측 모두 ‘혈육 상봉’의 감동의 드라마 같은 것이었다. 서울 올림픽 개막을 한달 앞두고 1988년 8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린 문화예술축전은 연극, 무용, 민속, 가요, 회화, 합창, 국악 부문 등 국제종합예술제 형태를 띠었고, 소련의 볼쇼이 발레, 모스크바 필의 공연도 있었다. 소련 예술단원 중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입상한 풍부한 음량과 호소력을 가진 명성 높은 소련의 소프라노 성악가로 알려졌던 남류드밀라를 비롯한 고려인 음악가가 속해있던 공연의 입장권이 가장 빨리 매진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한국인의 높은 관심도를 잘 말해주었다(“Money today”경향신문 2007. 4.9).

원래 공산권 국가들은 체재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모든 인민을 ‘소비에트 체육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속시켜왔고, 올림픽 텔레비전 중계도 자본주의의 상업주의적인 논리의 중계와는 달랐다. 소비에트

인민을 위해 스포츠중계를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이것은 ‘스포츠 영웅’을 통해 전 인민에게 애국심을 자극하며 통합하는 선전효과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었다. 공산권 국가들에게 88 서울올림픽의 중계는 올림픽게임 자체도 중요했지만 한국사회를 보여주는 강력한 무기였다. TV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참여했던 고려인이 직접 눈으로 본 소감은 민족신문<레닌기치>를 통해 생생히 전달되었다. 서울 올림픽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적대적으로 표현했던 북한 발 ‘남조선 소식’을 그대로 전달했던 것으로부터 ‘부강한 조국’, ‘한핏줄’, ‘한민족’ 등의 민족애를 강조하는 말로써 강조되었다.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구 소련 고려인들은 소련의 맹방인 북한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있었다. 소련과 북한 양국의 상호지원 아래 고려인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평양 문화축전을 참가해 왔고 친척이나 초청방문도 자주 이루어 지고 있었다(Ким Г. 외, 260-261). 서울 올림픽 이후 냉전구도에서 적국인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자, 민감해진 북한은 공산국 형제국이면서도 구 소련에 대해 약해진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올림픽 다음해에 세계 대축전을 열어 구 소련 고려인들을 대대적으로 초대하는 행사를 거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려인의 모국방문행렬은 북한에서 한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구 소련 고려인에게 서울 올림픽의 파장은 한국방문과 한국과의 문화교류와 한국기업의 진출 등 다방면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소련이 해체되기 전의 상호접촉은 고려인주도의 한국과의 자율적 교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소련정부의 지원과 호의적인 조치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소련당국의 협력적 분위기와 고려인들의 적극적 움직임은 이전에 고려인 자신들이 내려놓았던 민족적 유산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촉매적 역할을 하였고, 한국을 모국으로, 한국인을 한민족으로 간주하게 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고려인 집단이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모국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이들에게 북한은 더 이상 유일무이한 모국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서울 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는 소수민족 고려인의 민족적 자존감의 향상에 있었다. 고려인은 한인 민족집단으로서 보다 오직 소비에트 인민으로 살아왔고, 소비에트 사회에서 주체민족 러시아인을 흉내내면서 민족의 소속을 숨기기도 했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인해 자신이 고려인이란 사실을 타민족 앞에 당당히 드러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냉전체제하에 단절되었던 두 한민족이 올림픽을 통해 민족성과 서로의 동질성이 부각된 것은, 올림픽은 개최국 한국의 국가적 가치는 물론 한민족의 민족적 가치를 발휘하는 마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올림픽 국제학술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류학자 강신표(Kang Shin-pyo 2010)에 따르면 개최국은 잔치마당의 주인이며,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성과 자신의 특수성을 조화시켜 가장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장 집약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한국인 자신의 문화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한민족사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서울 올림픽의 물결은 다민족이 거주하는 소련사회에서 고려인 집단의 민족적 자부심을 고양하고 한인 소수민족으로서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소비에트 체제의 해체와 각 공화국들의 독립이라는 새로운 변화는 고려인으로 하여금 토착민 주도의 새로운 국가의 구성원으로 탈바꿈해야 할 운명으로 바꾸었다.

### **독립 공화국의 탄생과 토착민**

1991년 12월 구 소련의 해체로 인해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치시대는 막을 내렸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건설과정에서는 거대한 영역과 이질적 다민족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소비에트 인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민족과 인종을 배제한 균질화된 사회를 이루었다. 즉 소비에트 인민은 ‘home sovietcus’라 불리우며 국민들은 교육을 받았고, 도시화되어 갔으며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이루어졌다(박홍갑 외 상편, 314). 이러한 소비에트체제의 붕괴는 고려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지위를 흔들어 놓았으며, 사회 심리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구 소련의 어떠한 다른 민족보다 빠르게 소비에트 체제에 동화되어 소비에트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고려인들은 새로이 탄생된 각 공화국의 국가건설과정에서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소비에트시대의 각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토착민들과 한인과 같은 도래한 이주민족들은 대러시아화의 추진하에 같은 위치의 이등민족이었다. 공화국의 독립 이후 새로이 주도민족이 된 토착민족 카자흐와 소수민족들은 서로 입지가 달라져 있고 새로운 관계정립이 모색되고 있다. 같은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 민족의 재통합과정과 주도민족의 민족 정체성 회복운동은 소수민족 고려인의 향후 사회적 입지의 향방을 좌우하게 된다.

카자흐 국가의 건설은 토착민이 오랫동안 이민족 지배하에 피지배민족으로 전락해 있던 상태에서의 복구를 의미한다. 즉, 소비에트시대의 대러시아화로 인한 손상된 민족적 가치의 회복과 탈소비에트의 추구에 있는 것이다. 카자흐의 민족운동의 움직임은 소련말기에 이미 소규모로 시작되었다. 짜르 정부의 몰락에 이은 볼셰비키혁명 이후 공산지배권력에 대항하는 무슬림-민족주의 저항운동, 즉 무슬림세력과 민족세력이 연대했던 비스마치운동이 생겼다. 볼셰비키혁명의 성공 이후 스탈린의 탄압정책으로 인한 카자흐의 민족적 상처와 감정은 독립 이후 탈러시아화와 민족회복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동인이었다.

소비에트체제에 편입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제정 러시아가 카자흐 대초원을 정복하였는데, 이미 1850 년에 3 개의 오르다 중에

대오르다가 마지막으로 점령당하였다. 3 개의 오르다는 카자흐의 대표적인 부족연맹체로서 스텝지역의 유목민 집단들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었다. 카자흐는 원래 양과 염소를 방목하는 유목민이었으며, 겨울에는 부족이 한곳에 집합하지만, 봄에는 이동을 개시하며 여름에는 10 개 내외의 유르따(Юрта: 유목민의 이동식 천막집)로 나뉘어 소집단으로 분산하여 전형적인 유목생활을 해 왔다. 러시아가 카자흐의 세 오르다를 점령하며 러시아문화를 이식하며 식민지화를 꾀하였지만 카자흐의 전통적 유목생활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등장은 키르기스인, 카라칼팍인, 튀르크멘인 중앙아시아 튀르크계 유목민들과 마찬가지로 카자흐들로 하여금 점차 정착 농경민으로 전환시켰다. 이들이 농경 정착화된 것은 소련의 정착화 정책의 결과였다.

카자흐 유목민의 전통적 생활양식은 무슬림과 유목민 전통적인 관습이 혼합되어 있었다. 8 세기 이후부터 이슬람세력의 침투로 무슬림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유목집단의 족장을 중심으로 강한 가부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카자흐 사회의 무슬림은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인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의 원리주의적인 이슬람과는 달리 수니파 이슬람이 주를 이루고 거의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정도이다. 전통적인 관습 또한 유목생활의 해체와 소련의 도시생활로 인해 약화되었지만, 시골로 갈수록 그 흔적이 더욱 살아있는 편이다.

중앙아시아 스텝지역에서 카자흐민족집단이 공동체를 이루고 별개의 민족으로 분리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카자흐 민족의 형성은 중앙아시아의 지배세력의 역사과정에서 파생되었다. 카자흐를 비롯한 오늘날 각 공화국의 토착민족들은 지리적으로 고대부터 동서세계의 지배세력들의 각축전을 벌인 정복역사의 결과에서 생긴 혼성민족들이다.

중앙아시아의 민족형성의 기원은 고대 중앙아시아 원주민이었던 이란계 민족으로 출발한다. 이란계 민족을 기저로 하여 고대 돌궐제국, 아랍 무슬림, 몽골지배, 무굴제국 건설 및 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력들이 지배하면서 혼합된 민족을 이룬다. 카자흐민족의 원형은 킵차크(Кыпчак)부족집단에서 시작되는데 이 부족은 고대 스텝 이란계 부족 사카(Сака)와 우순(Усун)부족에 흉노족과 고대 투르크족이 발전하여 형성된 것이다. 카자흐민족은 이 킵차크 부족집단과 스텝의 여러 투르크계 부족들이 합체하여 형성된 것이다 (최한우 1996, 174). 카자흐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구분은 15 세기에서 16 세기에 이르러서야 형성되고, 15 세기 중반에 스텝지역 봉건세력이 붕괴하면서 지방 세력들이 일어나 카자흐 칸국(Казахское ханство)을 세우고, 칸국의 주민들이 우즈베크-카자흐인 혹은 간단히 카자흐인이라 불리면서 카자흐 민족이 형성되었다(위의 책, 176).

17 세기 중엽 카자흐민족은 3 개의 오르다 즉, 대오르다 (발하쉬호 주변의 시르강 하류), 중오르다(중부초원지방), 소오르다(아랄해 북부초원)으로 나뉘어졌는데 세력이 약해지면서 중가르의 침입과 지배를 받게 되었다. 18 세기 초 카자흐술탄은 중가르 침략에 대한 보호요청을 러시아에 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이 지역을 진입하기 시작했고 1850년에는 이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른 것이다(위의 책, 172).

제정러시아를 거쳐 1917 년에 소비에트로 전환이 될 때까지 중앙아시아 토착민족들의 민족주의파와 이슬람파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은 소비에트 임의대로 공화국들의 경계를 나누며 민족저항세력들을 분할시켰다. 소련은 헌법으로는 각 공화국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허용한 연방이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중앙집권화된 국가형태를 유지하였다. 형식으로는 모든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종교는 허용되지 않았고 언어는 러시아어를 다민족간 기본어로 자리잡게 하였다. 1980 년대 후반 소비에트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으로 급속도로 해체되었고 각 토착민족들의 민족주의 운동과 함께 각 공화국들은 독립을 맞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 짜르정부의 식민지화와 소련의

소비에트화의 결과는 오늘날 독립 이후 카자흐의 민족정서에 강하게 반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가건설이 카자흐 민족국가 건설의 방향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그 동안 지배세력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짜르정부의 강제병합으로 인한 토착민의 반러시아적 감정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수 세기 동안 각 공화국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슬라브계 공화국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분배정책이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슬라브계 공화국들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중앙아시아 공화국 국민들이 내재된 불만에 기인하고 있다. 소련정권은 형식적으로 공화국의 독립적 자치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통치는 모스크바에서 하달되었고, 토착민족에게 고위관리직이나 전문직은 대부분 러시아인 위주로 차지하게 됨으로써 도래인 민족이나 토착민이나 모두 피지배민족이며 2,3등 민족으로 머물고 있었다 (위의 책, 200-201).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공화국의 경우 당 중앙위 서기는 러시아인이, 부서기는 토착민이었던 카자흐인이나 우즈베크인이 임명되는 것이 통례였다. 때로는 토착민에서 서기로 임명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소비에트정권에서는 이민족들을 이용하여 토착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1930년대 40년대 이루어진 변방지역의 다민족에게 가해진 중앙아시아 내륙으로의 강제이주는 변방안보의 안정화를 목표로 했지만, 또한 토착민의 힘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소비에트의 토착민족 약화정책과 러시아화 정책으로 인해 독립과 함께 카자흐의 내재된 반러 감정은 반동적으로 강력한 민족주의 국가의 지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급진세력을 저지하는 구 제도권 말기의 공산당 간부에 의해 통치권력이 유지됨으로써 과도기적 상황을 평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카자흐 민족전통의 부활, 카자흐어 부활 등은 독립국가 건설의 중요한 명제로서,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다민족 통합을 이루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여타

카자흐스탄 소수민족 및 고려인의 위상과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 ‘민족국가 건설’과 고려인 위상

구 소련 해체 이후 독립국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는 것은 소비에트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며, 카자흐민족 정체성의 부활이었다. 그러나 카자흐의 민족성 부활의 움직임은 순탄할 수 만은 없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난제들도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는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비율에서 타 독립 공화국들과는 다르게 토착민 카자흐가 다수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과,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카자흐어를 구사하지 못했으며, 또한 국민의 구성원이 소비에트의 체제에 통합되어 있던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려인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소수민족들에게 기존 사회의 입지에서 혼란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주체민족이 러시아인에서 카자흐로 역전된 상황에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독립국은 민족통합을 위한 포용정책과 동시에 토착민족 국가건설의 추진이라는 기본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독립 공화국에서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인구정책과 언어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들의 실현과정에서 독립 초기에 러시아인을 중심으로 한 불만과 저항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탄력적인 ‘후퇴와 전진’의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의도된 ‘국가 건설’은 이루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5년 헌법개정을 통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격상시켰고, 1997년에는 국가의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하였는데(성동기, 215), 이것은 러시아인과 러시아 정부가 카자흐의 민족주의 색채에 강력히 저항함으로써 카자흐스탄 정부가 취했던 전략이었고 또한 러시아인의 밀집지역인 카자흐스탄 북부에 대한 분리독립 요구를 막기 위한 방어책이기도 했다.

카자흐 민족주의 국가건설에 대한 러시아인을 비롯한 이민족의 저항에 대응해야 했고 동시에, 인구학적 비율에서 카자흐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카자흐 인구증가정책을 시도하였다. 아래 도표에서는 독립 이전에 카자흐가 줄곧 전체 인구의 40% 이하의 비율에 머물다가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는 과반수를 훨씬 넘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카자흐스탄 민족별 인구비율(1970~2009)

민족 / 년도	1970	1979	1989	1999	2009
전체 인구(명)	13,026,300	14,709,500	16,232,300	14,981,000	16,009,600
비율(%)	100	100	100	100	100
카자흐	32.5	35.9	40.0	53.5	63.1
러시아	42.5	40.8	37.6	29.9	23.7
독일	6.6	6.1	5.8	2.4	1.1
우크라이나	7.2	6.1	5.4	3.7	2.1
우즈베크	1.7	1.8	2.0	2.5	2.9
따타르	2.2	2.1	2.0	1.7	1.3
벨로루시	1.5	1.2	1.1	0.7	0.4
위구르	0.9	1.0	1.1	1.4	1.4
고려인	0.6	0.6	0.6	0.7	0.6
아제르바이잔	0.4	0.5	0.5	0.5	0.5
기타	0.9	1.0	1.1	1.4	1.4

출처: 2009 카자흐스탄 인구통계,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 인구에 있어 이전에 공화국 전체인구의 절반 이하를 유지해왔던 것은 여러 가지 큰 역사적 사건과 연관이 있다. 카자흐스탄에 다민족이 구성된 것은 18 세기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20 세기 초까지는 카자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0 년대 초의 기근과 소련의 농업 강제 집단화 정책의 결과로 무려 수백만의 카자흐들이 아사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떠났고, 또한 1930 년대 후반 이후 수많은 이민족이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몰렸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2009 카자흐스탄 인구통계) 1939 년 당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카자흐는 전체의 37.9% 로 떨어졌다. 이 통계에서 1926 년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의 인구는 3,627,612 명이었지만, 1939 년의 경우 2,327,625 명으로 13 년이 경과하였어도 130 만 명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1920 년대 말과 1930 년대 초에 그만큼 많은 희생과 진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950-60 년대에 소련에는 처녀지 개간정책과 관련하여 러시아인, 우크라인인, 벨로루시인 등이 백만 이상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자흐 인구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인구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자흐 인구비율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에는 러시아인, 독일인, 유테인을 비롯한 유럽계 민족이 대규모로 떠나갔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해외 카자흐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정책으로 인해 2009 년 현재 카자흐는 63.1%를 차지하고 있다. 토착민 카자흐가 다수민족이 되었다는 의미는 독립 초기에 보였던 카자흐스탄 이민족의 저항을 누르는 힘이 되고, 카자흐 민족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 민족집단에서 인구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순위는 카자흐, 러시아인, 우즈베크인, 우크라인인, 위구르인, 따따르인, 독일인, 고려인 순으로, 고려인은 전체의 0.6%를 차지하는 10 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고려인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비율의 소수민족은 벨로루시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 등이 있다. 고려인의 인구학적 비율은 자연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시대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카자흐스탄 이외의 소련내 다른



공화국으로 고려인 인구의 이동이 있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강제이주 이후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목화재배와 농지개간으로 소련 국내이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는 오늘날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두 배인 20만 명이 살고 있다. 또한 스탈린 사후 거주이전제한의 폐지 이후 광범위한 구 소련의 타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립 이후에는 백계민족들이 떠났듯이 고려인들도 러시아 언어권을 유지했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지로 혹은 선조들의 고향으로 여기는 원동으로 이주하여 카자흐스탄 고려인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위의 표에 의하면 고려인 인구비율이 1989년의 0.6%이고 1999년 0.7%로서 더 높게 나타나지면, 이것은 백계민족의 대거이주로 카자흐스탄 전체인구가 줄었기 때문이고, 실제 고려인 인구수는 각각 103315 명과 99665 명으로 감소한 것이었다(2011 카자흐스탄 인구비교표). 이 외에도 1945 년 이전 출생의 사할린출신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카자흐스탄 고려인 인구비율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소규모 이주였다.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현재 전체 인구의 0.6%인 10 만명 정도로 이전과 별 변화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2011 카자흐스탄 인구비교표).

오늘날 고려인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부딪히고 있는 것은 새로운 언어의 적응문제로서, 독립초기에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한 적응은 빠르게 진행되어왔지만, 언어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다. 카자흐스탄은 1991 년 12 월 16 일 독립선언에 이어 1993 년 1 월 28 일 '카자흐어가 독립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유일한 국어'로 선언되었고, '러시아어는 민족간 의사소통 언어'로 규정하여 공식언어의 기능을 수행해온 러시아어를 격하시켜 충격을 주었다. 국가혼란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995 년 이후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헌법 제 7 장에는 국가어는 카자흐어이며, 러시아어도 공용어로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다(2007 카자흐스탄 헌법 위원회). 그러나 언어정책에 대한

헌법적 정비와 함께 점차 국가어에 대한 강도 높은 구체적 시행이 이루어졌다. 2001년부터 러시아어의 의사소통기능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키고 문화부문에서만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발표되었고, 2006년 5월 30일에는 대통령령(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К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и развития языков на 2001-2010 годы)에서 국가기관, 입법부, 사법부, 군대, 보건기구, 교육기관 등에서 국가어의 정착조치를 강화하였다(정경택, 309). 이것은 국가전반의 공식적인 행정부문의 업무를 국가어로 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며, 관공서나 교육기관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국가어의 일반화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카자흐위주의 행정관료의 인재등용과 카자흐 역사세우기의 교과서 제작, 거리, 지명 등의 카자흐어로 개명, 민족영웅을 기리는 대규모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카자흐어 부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어느 민족집단에 속하든지 카자흐스탄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국가어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카자흐스탄 미래의 국가어에 대한 확실한 보장정책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교육프로그램과 교과서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러시아 역사를 세계사의 일부로 편입시켰고, 러시아어 교육시간을 주당 2~4시간으로 줄였고 상대적으로 카자흐어 교육은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국어사용의 강화를 위해 중등학교에 학력평가지험을 도입하여 국어인 카자흐어시험을 필수로 정하고 대학입학시험인 “통합국가지험(ЕНТ)에서도 카자흐어와 카자흐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있다(위의 책, 312-313).

독립정부는 기본적으로 사회 주류의 전반에 깔려있는 소비에트 언어의 잔재에서 국가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카자흐어를 모르고는 주류사회에 편입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연구자가 현지에 거주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피부에 닿게 언어적 환경의 변화로 감지되는 것은 거리에서 카자흐어로 말하는 사람이 러시아어로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 지고 있다는 것이 있고, 또한 거리에 대한 명칭에서 러시아식 이름보다는 새로운 카자흐어 명칭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소련체제에서의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러시아어가 유일언어로 자리잡은 고려인들에게는, 독립 정부의 민족언어 부활의 기획 속에서 가장 큰 부담스러운 숙제로 남아있다.

고려인들의 국가어 적응에 대한 걸림들은 그 동안 자민족 언어를 상실할 만큼의 강력한 언어적 동화로 인한 소비에트 언어의 잔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에서는 2009 년 현재 카자흐스탄 각 민족들의 자신들의 민족어를 얼마나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5) 민족별 모국어에 대한 능력 (단위: 천명,%)

민족	민족별 인구수	자민족어 구사자	타민족어 구사자	자민족어 구사자 비율	타민족어 구사자 비율
총계	16009,6	14963,0	1046,6	93,5	6,5
카자흐	10096,8	9982,3	114,5	98,9	1,1
러시아인	3793,8	3748,3	45,5	98,8	1,2
우크라인	333,0	52,5	280,5	15,8	84,2
위구르	224,7	190,9	33,8	85,0	15,0
타타르	204,2	104,2	100,0	51,0	49,0
독일인	178,4	30,4	148,0	17,0	83,0
한인	100,4	36,1	64,3	36,0	64,0

출처: 2009 카자흐스탄 인구통계, 카자흐스탄 통계청, 재구성.

통계에는 고려인의 경우 36%가 민족어를 모국어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선택하였지만, 실상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모두 거주사회 언어인 러시아어이고, 실제 민족어로는 거의 소통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거리가 있는 비율의 수치로 보인다. 민족어를 모국어라고 느끼는 모국어에 기초한 정서적인 감정이 결부된 조사결과와 실제 객관적인 소통능력과는 별개라는 것을 말해준다. 더구나 고려인 집단 정착촌과는 달리 도시에 거주하면서 개별적인 생활을 해왔던 고려인의 민족어 구사비율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 표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그들의 주 소통언어가 민족어도 국가어(카자흐어)도 아닌 러시아어임을 보여준다.

표6) 민족별 언어능력에 따른 인구비율 (15세 이상, 단위:%)

민족	총인구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말하기	읽기	쓰기와 읽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읽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읽기
총인구	100.0	74.0	2.9	62.0	94.4	3.4	84.8	15.4	2.6	7.7
카자흐	100.0	98.4	2.3	93.2	92.1	4.4	79.1	17.5	2.9	9.0
러시아인	100.0	25.3	2.5	6.3	98.5	1.0	96.7	12.6	2.1	5.6
우즈벡	100.0	95.5	12.5	61.7	92.9	10.3	68.3	10.7	2.3	5.4
우크라이나인	100.0	21.5	2.0	5.2	98.9	0.9	97.1	8.0	1.3	3.7
위구르	100.0	93.7	9.7	60.8	95.8	6.4	81.8	15.7	2.6	7.2
타타르	100.0	72.6	6.3	33.7	98.4	1.7	94.7	14.2	2.3	6.7
독일인	100.0	24.7	2.5	7.9	99.0	0.9	96.9	9.1	1.5	4.4
한인	100.0	43.5	3.7	10.5	98.0	1.4	95.5	24.2	3.5	11.4

출처: 2009 카자흐스탄 인구통계, 카자흐스탄 통계청.

이 통계는 2009년 카자흐스탄의 주요 민족들의 국가어, 러시아어 및 영어에 대한 구사능력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카자흐 경우는 자신의 민족어를 대부분 잊지 않고 실제 소통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카자흐와 같은 투르크 계통의 민족인 우즈벡인, 위구르인 및

따따르인은 다른 이민족에 비해 비교적 카자흐어의 능력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백계 민족인 러시아인, 우크라이인, 독일인 등은 오히려 고려인들보다 카자흐어 소통능력에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려인의 43.5%가 국가어 카자흐어에 대한 구두적 표현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 말하기와 읽고 쓰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고려인은 10.5%에 그친다. 게다가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농촌지역에 비해 카자흐어 구사자들이 더욱 희박한 것을 감안할 때 도시지역에서 카자흐어를 구사하는 고려인은 위에서 보이는 평균 통계보다 훨씬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들의 주 언어가 러시아어였던 소비에트의 지식층이 도시에 더 많이 거주해왔기 때문이다.

고려인의 경우 탈디쿠르간이나 다른 농촌 등 많은 카자흐인들과 이웃하여 살았던 지역의 고려인들이 카자흐어 구사능력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알마타시의 고려인들 중에 카자흐어 구사 능력자는 손꼽힐 정도로 드물다. 그러나 현재 어린 세대 고려인들은 현지 학교에서 카자흐어에 대한 기본교육이 강화되어 국가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당장 카자흐어로 전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카자흐어를 못해도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못 느낀다’는 고려인의 흔한 일상적 표현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 실제 이들의 직업적 변화에서 나타나며, 이들의 새 국가어가 장애이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독립 이후의 직업적 양상의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소련 해체가 몰고 온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소비에트 경제의 근간이었던 국영기업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특히 소비에트 농업생산물에 기여했던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등의 지원중단, 정부수매의 대폭축소로 국영과 집단농장을 폐쇄하였다. 고려인의 경우 소비에트시대에서 이미 거주이전의 자유와 함께 1960년대 이후에

도시로 경제활동인구가 대거 집중되었고, 이들에게 선호되는 직업은 주로 교직이나 공무원, 의료직이었다. 독립 후 사회전반적인 경제의 혼란과 어려움은 저임금, 만성적 임금체불 등으로 비교적 고학력 엘리트의 고려인들을 생계형 직업으로 내몰았으며 소규모 시장경제로 분산시켰던 것이다 (강명구, 26).

표 7) 1989 년 고등교육을 받은 고려인 인구수 (1000 명당)

구 분	카자흐스탄 전체	고려인
노동가능인구 (16-59 세)	113	251
남자	107	245
여자	120	257
노동인구	131	285
남자	121	276
여자	142	297

출처: МСН Д. 외 1992.

공공기관의 영역에서 밀려는 추세와 함께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기업과의 비즈니스 동반자가 되거나 취업을 하게 되었다. 고려인의 경우 소련체제말기 어려워진 경제생활에 불법적으로 활성화되었던 ‘고본질’로 이미 사경제에서의 비즈니스를 익힌 장점도 있었다. 경제체제의 변화는 고려인의 집단적 농촌지역의 인구를 더욱 급속히 도시로 내몰기도 했다. 도시로의 이주로 고려인 집단 정착촌인 우수투베의 경우 젊은 고려인은 보기 드물게 되었고, 오늘날 많은 소비에트의 집단농장의 폐쇄된 건물들과 부속물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렇듯 독립 후 고려인들의 직업전환은 급격한 경제체제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 독립공화국의 언어정책에서 소수민족들이 주변화되고 있는 하나의 양상으로 볼

수도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강력한 민족어 부활정책과는 달리 이보다는 완화되고 점차적인 언어정책을 펴고 있는 편이지만, 강화되고 있는 국가어 비중은 고려인들로 하여금 점차 공식에서 더 이상 머물게 할 이유를 잃어가게 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과 교육기관 등 점차적인 카자흐어 전용으로 바뀌는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공무원보다는 교육직에 많이 남아있는 고려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아직은 초 중등학교와 대학교에 카자흐어반과 러시아어반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모든 서류와 보고, 회의가 카자흐어 위주로 전환되어가고 있고 카자흐어 강의의 비중이 증대해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국가언어정책은 비단 소수민족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다. 이미 카자흐 지식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러시아어 구사자 중에서는 자민족 언어인 카자흐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류의 카자흐인들에게도 카자흐어는 의무적으로 배워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다.

고려인의 언어문제는 언어적으로 부담이 없는 지역으로의 이주를 부추기기도 했다. 1950년대 말 소련의 거주이전 제한의 해제로 인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리고 연해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갔던 것은 자발적인 이동이었다. 그러나 공화국 독립 후 언어환경의 변화는 고려인들로 하여금 러시아어가 통용되는 곳 즉,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지역권으로 재이주를 유인하였다. 특히 고려인의 본고향으로 간주되었던 연해주를 비롯하여 그외 볼고그라드, 우랄지역 또는 러시아 각 도시나 농촌지역으로도 이동하였다.

표 8) 독립국가연합 국가 공식어

국가	국가 공식어	비고
러시아	러시아어	공식 및 생활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인이 다수 차지하는 크림자치주에서는 러시아어도 통용
벨라루시	벨라루시어, 러시아어	러시아어가 실질적인 비중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어	에스토니아어 강화정책
카자흐스탄	카자흐어	러시아어와 병행, 점차 카자흐어 강화정책
우즈베키스탄	우즈벱어	우즈벱어 강화정책

출처: 임영상, *황영삼 외*, 31.

카자흐어 구사능력이 없는 고려인은 공적인 영역에서 후퇴하게 되어있었고,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정부관료로 진입하기는 어려워진 구조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누구나 안정적 직장이 보장되어 취직 걱정 없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경제체제에 적응해야 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많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처가 되어갔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해외투자기업에 대해 중앙아시아의 다른 공화국들보다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하여 해외기업들을 유인하였다.

이러한 체제의 전환과정에서 오히려 호기를 만들며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며 성장한 고려인 기업가들이 있다. 오늘날 고려인을 대표하는 정치가들은 모두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고, 모두 대형 기업가 출신이거나 겸직을 하고 있다. 최 유리는 상원의원, 최 빅토르는 하원의원으로 있고, 김 로만(2012년 1월 하원의원 진출)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ов Казахстана)의 의원이며 고려인 협회장으로서 고려인 대표 정치가들이며, 대형 기업의 CEO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대형 유통과 건설, 금융 및 구리채광 등에 두드러진 고려인 거부 기업가들이 있다. 이것은 오늘날 고려인



사회에서 출세의 모델이 소비에트 지식인에서 기업가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려인들은 소비에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직업적 양상을 보이며, 예전에 ‘고려인지식인(Корейские интеллигенты)’로서 당간부와 지식인이 되겠다는 목표와는 다르게, 비즈니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교육의 의지를 낮추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과학기술협회(КАХАК)가 2002년에 발간한 <Известия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에는 각 분야에 성공한 고려인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려인 지도자급 전문 지식인의 명단으로 613명이 선정되었는데 이중에 1950년대 출생자는 96명이었으나 1960년대는 46명, 1970년대는 10명에 불과하였는데, 이것은 갈수록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차세대의 지도자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성동기, 225). 소비에트 시대에서 지식층에 자리잡았던 고려인의 모습은 오늘날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카자흐스탄의 미래의 인재양성에서도 카자흐 학생 위주의 장학생 선발 등의 교육혜택이 이루어지고 있고(위의 책, 257), 소수민족들은 경제활동에 더욱 몰리고 있어 토착민과 이민족의 사회적 성공의 가능성에서 그 간격을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국가어라는 언어적 장벽이 이민족의 주류사회의 진입을 막는 데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독립 이후 카자흐주도의 국가탄생은 다민족적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 기반을 동요시켰다. 공화국의 독립은 토착민에게 민족 정체성 회복에 바탕을 둔 ‘민족국가 건설’의 기회이기도 했다. 인구구성에서 카자흐민족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독립이후 이민족 유출로 인한 인구의 공백은 상대적으로 카자흐의 인구비율을 상승시켰고, 또한 해외 카자흐들에 대한 적극적인 귀환정책으로 카자흐인구는 카자흐스탄에서 다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가어 탄생과 언어정책은 점차 소수민족을 주류사회로부터 주변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독립 초기부터 ‘민족국가 건설’의 기획은 그만큼 130 여개의 타민족들을 소외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으며, 실제 초기 이민족의 저항과 분열,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독립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어의 강화정책이 소수민족을 배제하는 정책이었다면, 이러한 배제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민족간 분열과 갈등을 막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취했던 노력은 포용정책에 해당된다.

이민족을 배제하는 효과로 인한 민족간 분열의 우려는 1995 년 각 민족을 포용한다는 민족총회를 탄생시켰다. 각 민족단체를 대표는 민족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산하에 각 민족문화단체들을 통합하고 있다. 이것은 소수민족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의 기구로서, 2007 년의 헌법개정은 각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민족대표를 의회의 상원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소수민족에게 정치적 참여의 기회로 제공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기구의 설립에 양면성이 지적되는데 즉, 소수민족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소수민족을 감시하는 기능이 되기도 한다.

민족총회 산하에 각 민족문화단체에서는 각기 자신의 전통과 언어, 문화를 유지하고 계승하는 센터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의 언어와 전통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있다는 다문화 포용정책을 표방한 이면에는 국가어 비구사자에게는 사회 주류에서 퇴출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다문화 배려정책으로 포장된 이면에는 은폐된 차별정책’이 있다는 다문화 비판론적 성격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에서는, 고려인 민족을 대표하는 고려인 협회에서부터 고려일보와 고려극장, 고려문화중앙의 단체를 구성하는 산하 고려인 단체조직까지, 이들의 존재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한다기 보다 카자흐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소외된 소수민족과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 대표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카자흐스탄 2007 년 개정헌법에서는 민족총회에서 상, 하원의원으로 각각 8, 9 명을 진출할 수 있게 하며, 소수민족의 중앙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민족화합을 위해 민족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종교정책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003 년부터 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은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를 주관하고 의장이 되어 이슬람, 카톨릭,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의 종교지도자들과의 정기적 회의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자국의 민족과 종교의 화합을 과시하며, 사회적 통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카자흐스탄에 무슬림과 러시아 정교라는 뚜렷한 종교적 이분법으로 민족간 분열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종교의 인구분포에 있어 토착민 카자흐가 대부분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고, 카자흐 인구에 비례해서 무슬림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는 2009 년 현재 러시아 정교를 제외한 거의 모두가 무슬림 인구로서 민족별 종교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9) 2009 년 카자흐스탄 종교별 인구 (단위: %)

종교	종교별 인구비율
이슬람	70,2%
기독교	26,2%
불교	0,1%
기타	0,2%
무종교인	2,8%
무응답	0,5%

출처: 2009 카자흐스탄 인구통계, 카자흐스탄 통계청.

고려인의 경우에 종교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한국의 기업진출과 함께 수많은 한국인의 선교사들이 유입되고 많은 교회를 세울 기회가 제공되어 이러한 종교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각 도시에는 많은 한국인 교회가 상주하며 현지 한국인뿐만 아니라 고려인들도 신자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알마타만 하더라도 40 여개가 넘는 한국인 교회로 등록되어있다. 그러나 종교를 가진 많은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이전 원동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던 러시아 정교회에 주로 다니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종교성 성향은 토착민과의 강한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CIS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스탄과는 달리 카자흐스탄은 강한 무슬림 원리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카자흐를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카자흐스탄에서 종교적 갈등이나 차별없이 평화롭게 지낸다고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주도의 노력이 공헌하고 있다. 2003 년을 시작으로 매 3 년마다 열리는 세계 민족종교회의를 주도하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민족과 종교간 대화와 화해를 강조하며 카자흐스탄의 다민족 다종교의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종교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되 특정 종교의 정치적 움직임도 감시하고 통제하는 효과도 발휘된다고 본다.

내외신의 언론에서 독립국 카자흐스탄은 구 소련지역의 CIS 국가들 중에는 가장 경제적으로 개방되었고 미래지향적인 국가로 말해지고 있다. 또한 주변국의 민족간 갈등이 노골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은 민족간 충돌 없이, 또한 민족차별도 없는 평화롭게 지내는 안정된 국가로 스스로 평가하고 또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민족통합을 위한 여러 포용정책의 이면에는 카자흐 국가건설의 기획 틀 내에서 동시에 타민족에게 배제의 기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제4장 고려인의 강제이주와 러시아화

이 장에서는 고려인 이주민 집단들의 다양한 정체성의 형성과정과 내부의 집단들의 분화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고려인 두 집단의 소비에트화 과정에서의 이질성과 갈등의 배경을 드러낼 것이다. 두 집단은 다른 이주역사의 경험으로 같은 소비에트 체제하의 공동운명을 견게 되었지만, 다수집단은 강제이주라는 강압적 외부적 환경에서 빠른 러시아화를 이루었고, 소수집단인 신이주 고려인은 다수집단에 의해 덜 소비에트화된 이질적인 집단으로 주변화되었다. 외부적으로 고려인 이주민 집단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지만 고려인 집단 내부에서는 서로에게 다름이 강조되고 배척되는 ‘이방인’이 생산되었다.

### 1. 모범 소비에트 고려인

특정시기의 경제적이나 정치적 압박요인으로 한반도 북단에서 월경을 감행했던 한인들은 모국과 이웃한 땅이었지만 낯선 러시아인이 지배했던 거주사회에서 때로는 환대와 때로는 차별을 당하며 살아야 했다. 극동한인은 거주국에서 불법 이민자의 신분으로 법적 사회적 보장이 취약한 불안한 삶을 살아왔다.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되기 전에 극동 한인들은 이질적인 거주사회에 터전을 잡았고, 어려운 가운데 자주적으로 대한독립운동을 펼쳤다는 애국자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일제침략에 항거하며 해외 한인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성장시키는 저력을 발휘했고, 이들의 독립투쟁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한인 지식인, 의병, 농민 할 것 없이 참여하고 부농이나 애국자들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으며

독립군을 결성했다. 일본군과 무력투쟁은 물론 민족언론과 잡지를 발행하고 영문을 비롯한 각종 언어로 번역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꾀했으며, 또한 민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재양성을 하는 등 실로 다각적인 역량을 결집시켜왔다. 극동한인들은 한국의 항일독립운동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중심인물들이기도 하다.

한인 독립군은 이상적인 세상으로 바꾼다는 희망을 주었던 소비에트 건설에 합류된 이후 소비에트 건설의 공로자들로만 남게 되었고, 소비에트 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더 이상 민족적 애국지사는 용납되지 않았다. 한인 독립부대들이 볼셰비키 혁명군(적군)과 연대하여 일본군과 백군퇴치에 피를 흘렸던 것은 소비에트 신생정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부농의 토지들도 몰수되어 소작농의 불평등 구조에서 해방될 것이며 모든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전과는 더 비참한 상황이 한인에게 기다리고 있었다. 스탈린 철권 하에서 극동변방의 안정에 걸림돌이라 하여 고려인을 내륙으로 추방시키기에 이른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스탈린의 공포정치의 대대적인 숙청과 강제이주에서 한인들은 비켜갈 수 없었다. 대부분의 한인 지식인들이 제거대상이 되었다. 소비에트체제에서 한인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는 아주 취약했고 일정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주지 이전제한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타 지역으로의 이탈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작동하였고, 1941년 6월 독일 파시스트가 소련을 침공해 들어오자 소련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이주민 통제와 감시는 일반 주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박홍갑 외. 하편, 220)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스탈린은 ‘물리쳐야 할 파시스트’와 ‘반파시스트’라는 애국적 담론을 생산하여 만연시키며, 독일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를 외치며 모든 인민은 애국자가 되는 유일한 길만 허용하였다. 강제이주 된 이후 고려인 이주민 집단은

지배권력에 의한 탄압을 받고 또한 제한된 법적신분에도 불구하고 참전에 제한받는 것을 안타까와하며 애국자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 흔적은 소비에트 인민으로서 대조국전쟁(2 차대전)에 군인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안타까웠던 당시를 회고하는 고려인들의 글들이 민족신문<레닌기치>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이주 된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의 지위는 법령대로라면 ‘행정적 추방’으로 분류되었으나 1937 년 10 월 한인이주에 관한 종합 보고서에는 ‘특별이주자’라는 규정을 내리고 있었다 (박홍갑 외. 하편, 220) 다양한 이주민에 대한 처우와 통제의 강도가 달랐다. 적군 독일군에 협력자로 낙인되었던 독일인이나 폴란드인, 그리고 반체제의 불온세력으로 처벌적 성격으로 강제이주 되어온 체첸이나 잉구쉬 같은 민족은 이주초기의 고려인들보다 강도높은 통제를 받아야했다. 그러나 고려인들도 이들과 같이 특별이주민의 위치에서 군입대에 제한을 당하며 전쟁 중에 노동부대에 소속되어 산업 노동력으로 활용되어야 했다.

1937 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인들은 붉은 군대(적군)에서 중견이나 고급지휘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강제이주 이후 적군에 잔류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즉, 군인이 될 신분에서 박탈당하여 전쟁 중에 소련의 동부나 서부전선에서 총을 잡고서 파시스트와 싸울 권한을 제한당하였던 것이다. 군입대 신청에 대해 거부당한 한인 공산주의자들과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실망과 불만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러시아의 고려인 학자 부가이(Бурай Н.Ф.)에 의하면 1943 년 8 월에 작성된 소련 내부인민위원회의 첩보자료에는 “한인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한인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전선에 투입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내용의 수많은 청원서가 있다고 밝혔다(위의 책, 222).

고려인의 참전권 박탈은 스탈린이 준 가장 큰 모욕이라고 여겼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고려인들은 소비에트의 온전한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했던 자신들의 의지가 꺾이기도 했지만 예외의 경우가 제법 있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독일을 누구나 ‘미친 히틀러’, ‘적군의 원수 파시스트’를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각인되었고, 소년들은 반파시즘 배라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으며, 총을 잡고 전선에서 파시스트를 혼내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였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참전을 위해서 나이를 속여 ‘군사위원회’에 입대신청서를 써내고 입대허락 통보를 받아서 집에서 몰래 나와 전선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기도 하였다. 때로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에 고려인 이름을 숨기고 ‘카자흐’ 이름이나 ‘키르기즈’ 이름으로 바꾸고 입대하기도 했다. 어떤 고려인은 군사위원회를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별 이주민에게 적용되었던 참전 금지의 원칙과는 다르게 고려인 젊은이들의 참전의 열망이 의외로 쉽게 이루어졌던 예외적인 경우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고려인 개인소장자료에 있었다(Частный музей Чой Арипы, Алматы). 고려인에 대한 입대허락의 문서들은 전선부근 도시들 즉,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사라토프, 스페르들롭스크 등의 도시유학생들이 입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한세르게이, 82-84). 이것은 전쟁 당시 고려인들이 적성민족이나 불온민족 등의 특별이주민들로 분류되어 군입대가 금지된 것이 소련 전역에 모두 적용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고려인 참전 영웅과 용사의 이름들이 소련 승전역사 자료의 페이지들로 장식하고 있다. 소련의 참전용사로 전쟁영웅이 된 민 A.P. 는 그의 참전행적이 카자흐스탄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있고 타쉬켄트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거리의 이름이 남아있다. 그 외에도 잠수함장 한 A., 첩보원 최 V. 하사, 보병대대장 전 S. 대위, 기관총 사수 전 M. 등의 용맹했던 참전용사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 특히 여군의무상사로서 림 V. 같은 경우 ‘붉은 별 훈장’ 과 ‘조국전쟁 훈장’ 등 수 없는 전쟁포상을 수여받았다(Канг Г. 외, 88). 오늘날 고려인의



‘대조국 전쟁’ 고려인 참전용사들을 기념하는 단체로서 ‘장교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소비에트 시대 대위부터 대령까지의 장교출신들 48 명이 멤버로 포함되어있는데, 항공, 전차, 로켓, 수색,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복무했던 장교들이었다(고려인민족문화센터, 30). 노병들은 화려한 메달로 옷의 전면을 장식한 장교복을 입고 ‘8.15 조국광복절’이나 ‘대조국 전쟁 승전기념일’ 등의 중요한 행사에 자랑스럽게 나오며 공원과 거리를 활보하기도 한다.

한편 전쟁 중에 부분적으로 직접적인 참전 한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노동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탄광이나 금속 등 기타 전략산업의 노동력에 충당되었는데 주로 신뢰받지 못했던 ‘특별이주민’으로 구성되었다. 고려인들이 많이 투입된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탄광에서는 고려인이 무려 2000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Канг Г. 외, 89). 고려인들은 노동전선에서 독일인, 죄수, 전쟁포로와 함께 불가강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희생은 ‘위대한 조국전쟁’의 노력전선에 참여한 대가로 전후에 노동영웅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이란 메달리스트가 되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노동부대로 동원되어 콜호즈에는 부녀자들을 비롯한 노약자들과 청소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군대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공로자들이 되었다. 전시 초반에 파시스트에게 점령당한 소비에트의 유럽영토에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으로 피난했던 군인들의 식량문제가 중요한 과제였는데 정부에서는 콜호즈의 과중면적을 늘이도록 지시했고, 한인들은 처녀지를 개간하며 헌신적인 노동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그 대표적인 한인으로 크즐오르다 주의 콜호즈 ‘아방가르드(선봉)’의 벼재배 조장 김만삼이 있었다. 그는 1헥타르 당 15톤을 수확하여 세계기록을 세우며 전 소련에 그의 명성이 알려졌고 ‘김만삼에 대한 노래’도 지어졌다. 그의 과학적인 벼재배 방식은 널리 보급되었고 그로부터 전수받은 많은 노력영웅들이 탄생하였다.

전시 기간 동안 한인들은 전선 지원운동이었던 ‘국방펀드’에 헌신적 노동으로 벌여 들인 자금을 기부함으로써 그들의 국가를 살리는데 쓰고자 했다. 많은 한인 콜호즈는 수 만에서 수 백만 루블까지 기탁하였고 채권이나 물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다. 가장 눈에 띄인 것은 다른 민족에서는 볼 수 없는 대규모 개인 기부 한인들이 줄을 이었다. <Дальний Восток> 콜호즈 대표 신현문은 12 만 루블, 한인 트랙터 기사 임 파벨은 군용 전투기 제조를 위해 개인 돈 30 만 3000 루블을, 타쉬겐트 지역에 있는 콜호즈 대표 최 세르게이는 탱크와 전투기 제조 비용으로 100 만 루블을 헌납하였다. 최 세르게이는 거금을 기탁하면서 상부에 “개인 기금을 전투기 제조용으로 쓰일 것과 이 기금을 사용하여 해당 공장의 노동자들이 전투기 제조 시간을 단축하여 붉은 군대가 히틀러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도록 해달라”는 전보문을 함께 보냈다고 한다(박홍갑 외 하편, 77)

전시에 한인들의 희생과 노력은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다. 그 예로 알마타주 까라팔 구역(Карагальский район Алма-Атинской области)만 하더라도 1946년과 1947년 사이에 ‘1941~1945 대조국 전쟁에 헌신적 노동’의 공로자였던 메달 수여자 전체 3,861명 중에 1000명 이상이 한인이었다. 194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까지 전쟁기간 중의 높은 노동력의 달성과 인민 경제회복기간 동안 고려인의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 수는 타민족과 비교할 때 월등한 기록을 세웠다. 당시 소련의 네 민족의 영웅메달 수여자수를 보면 고려인 영웅 201명, 끼르기스인 영웅 165명, 따따르인 영웅 217명, 타지크인 영웅 230명으로 각 민족 별 총 인구수가 고려인보다 3.5배로부터 12배까지 많았던 것은 감안하면 큰 차이로 월등하게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레닌기치 1990.3.17. 3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영웅칭호를 두 번 받은 사람이 세 명인데 그 중 한 명이 ‘북극성’ 콜호즈 대표 김병화였다. 그의 이름은 거리에 붙여진

명칭으로 남아있다.

전쟁에서, 콜호즈의 벼농사에서 그리고 전혀 경험이 없었던 목화재배의 경작분야에서도 한인들은 경이적인 수확을 기록했다. 한인이 재배하는 농산물은 무엇이든지 인상 깊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양파, 사탕무, 채소, 참외, 수박 등을 경작한 많은 한인들이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수여받았다. 이렇듯 한인들은 강제이주로 탄압받은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놀라운 애국심과 헌신적 노동에 대한 열정으로 소비에트의 애국자임을 증명하였다. 곳곳에 적절해야 할 사회주의의 적들이 깔려있다는 스탈린의 억측과 절대권력은 전쟁 상황에서 강화되었고, 모든 인민의 역량은 나라가 위태한 상황에서 주적을 몰아내야 하는데 집중되었다. 전 인민이 침략주의와의 투쟁에 나섰고, 승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각자의 의무라고 여겼다. 승리는 전선에서뿐만이 아니라 후방에서, 광산에서, 농장에서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었고 대규모의 노동 영웅주의로 승리정신을 고양시켰다(박홍갑 외 하편, 78)

고려인들은 강제이주민의 지위에서 여러 제약 속에서도 전쟁시기에 국가의 주문에 기적적인 성과를 내며, 또한 자발적인 충성심을 발휘하여 귀속국가로부터 그 공헌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귀속국가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배반하기보다는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고려인들은 오히려 기회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일정 제한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적 정치적 활동이 허락되지 않았고, 중앙이나 지방 등 공산당 기관에 진입할 수 없었으며 군 복무도 제한당했던 한인들은 그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을 것이다. 귀속사회에서의 희망적 삶의 가능성은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노동에 전적으로 바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기도 했다. 고려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탁월한 성과는 근면함과 책임감으로 존경받는 민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한다.

소련은 전후 복구 사업과 경제가 회복되자 이주민들에 대한

강압조치들도 약화되어갔고, 전시와 전쟁 후 폐허의 복구과정에서 수많은 노력영웅이 된 한인들은 소비에트 사회에서 입지가 강화되었다. 스탈린 사후에는 거주지 제한이 해제되었고, 1956년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는 스탈린 격하운동과 더불어 '특별 이주자들의 법적 지위상 특별 거주에 따른 제한 조치 해제에 관해서' 라는 법령이 채택되어 민족탄압이 불법이었고 범죄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민족탄압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나 복구조치는 안되었지만 부분적으로 명예회복은 되고 있었다. 소련의 시민권 회복은 타지역의 높은 교육의 기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두드러졌다. 고려인들은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고려인 학자 한 발레리는 고려인은 정부관료와 정치인, 교육과 과학아카데미의 교육지도자, 농업 경제 지도자, 유명 스포츠인,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높은 지위와 성공을 이룬 예는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유일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다(박홍갑 외 하편, 81) 극한적인 시련을 극복하며 소비에트 사회의 일원으로 밀착하여 생존을 위해 잡은 기반은 고려인 스스로 '충직한 소비에트의 애국주의자이며 국제주의자'로 묘사하며 모범 소비에트 고려인들이 존재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자부심이 되었다.

## 2. 소비에트 고려인의 언어와 작명

고려인의 소비에트 사회의 빠른 적응과 귀속은 높은 교육의 기회가 크게 작용하였다. 소비에트 사회에서의 고려인 인적자원의 배출은 이 사회에 요구했던 언어적 환경과 언어적 동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급격한 러시아어의 동화는 러시아식 이름의 작명과 개명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였고, 타민족과의 결혼율에서도 증가를 보였다. 소비에트 고려인집단은 강제이주라는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런 집단적 경험을 하면서, 거주사회에서의 생존의 보장은 소비에트 권력에서 요구한 '유일 소비에트인'으로 되어가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민족적

유산의 고집은 오히려 ‘민족주의’라는 오명을 받기 쉬웠고, 생존에 걸림돌로 인식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고려인이 자신의 언어를 등한시하며 소비에트 언어로 전환한 것은 소비에트 권력에 의한 강경 언어정책이 있었고, 또한 고려인들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소비에트 정부에서 추진해온 언어정책은 광범위한 영역과 다민족으로 구성된 소비에트 연방의 능률적인 국가경영을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소통언어이며 공용어를 채택하는 것이었고, 채택된 러시아어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소비에트 권력은 각 민족의 언어와 전통 및 민족문화에 대한 보전을 강조해 왔고, 다민족 통합을 위한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었다. 그러나 스탈린 지배권력 하에서는 카자흐나 우즈베크어 같은 토착민의 언어를 제외한 다른 소수민족의 민족학교와 언어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 계기는 1938년 3월 모든 소련 인민은 러시아어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법령을 발표를 시작으로 1938년 4월 '민족학교 재편성'이라는 명령(Мерл. 1999, 186, 187)하달로 고려인 민족어 전용학교를 폐지하였고, 1939년 12월에는 민족어 서적의 처분에 대한 지시문 '민족어자료에 관하여'(위의 책, 335) 이 하달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강제이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를 중심으로 한인 민족사범학교, 40여 개가 넘는 한인학교들을 설립했던 노력들이 러시아전용 학교로 전환됨으로써 무산되었다. 이 조치는 비단 한인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은 아니고 토착민을 제외한 독일인이나 불가르인, 둔간인, 위구인 등의 소수민족들에게 내려진 조치였다.

민족어 탄압에서도 살아남았던 민족신문 <레닌기치> 는 체제와 당 이념의 선전도구였고, 민족예술을 표현하는 <고려극장>은 소비에트 체제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소비에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고무시키는 수단에 그치며 표현의 제한이 있었고, 민족적 색채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고려인 자신들도 소비에트 시기에 작품활동을 했던 고려인 작가들은 러시아어로 표현된 러시아 작품을 쓴 소비에트

작가들이며, 그 이전 원동에서 작가활동을 했던 고려인들은 민족작가라고 부르며, 민족문학과 민족신문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민족작가들의 맥이 강제이주 이후에는 소비에트 시기에는 이어지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지적하였다(정상진, 32, 33) 고려인 문학에서 민족작가와 소비에트 작가로 뚜렷하게 구분이 된 것은, 강제이주 이후 본격적으로 민족작가들이 탄압받음으로써 더 이상 작품을 통해 모국에 대한 향수나 민족성을 드러내는 일은 지속될 수 없었고, ‘소비에트 이념형 작가’로 전향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스탈린 사후에 고려인 민족에 대한 위상을 달라졌을지라도 고려인 민족언어의 위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레닌은 민족어에 대한 평등정책을 강조하면서도 문맹퇴치와 교육의 보급으로 혁명의 이데올로기 전파에 역점을 두었고, 스탈린의 언어정책은 러시아어 교육의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라면 1958년과 1959년의 후르시초프의 정책은 러시아어교육과 민족어 교육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이미 러시아어가 기능적 측면에서 상층언어의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오히려 러시아어를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민족어보다 러시아어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1960년대말과 1970년대의 브레즈네프의 시기는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러시아어를 구조적으로 교육시키며 모든 인민에게 러시아어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맞춘 언어정책으로 러시아어는 ‘민족간의 소통언어’, ‘사회주의의 언어’ 그리고 ‘대러시아인의 언어’가 되었던 것이다(유승만, 149, 150).

러시아어는 행정, 교육 모든 분야에서 출세하기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러시아어에 능통해야 했다. 소비에트의 민족과 언어에 대한 이중정책은 ‘소비에트 인간’ 만들기에 초점을 두어왔으며, 이리하여 러시아어는 러시아의 모든 민족에게 예외 없이 민족간을 매개하며 각 활동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통계에도 보듯이 러시아어가 소비에트 구성원에게 제1 언어로

차지하는 비율은 완만하게 증가하며 러시아어가 자리잡는 데는 무척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구 소련 전체 민족어유지 비율의 변화

연도	민족어가 제 1 언어	러시아어가 제 1 언어
1959	87.6%	10.8%
1970	87.7%	12.3%
1979	86.4%	13.6%
1989	69.1%	25.6%
1994	66.6%	25.5%

출처: 유승만, 154.

자민족어 보존의 정도는 각 민족마다 상이한 차이가 나는데, 특이한 점은 고려인의 경우는 타민족에 비해 모국어의 상실 정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다. 1979년 통계(1983 소련 인구통계, 128-129)에 의하면 소련 내 고려인들 389,000명 가운데서 55.4%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44.4%는 러시아 말을 모국어로 사용한다고 되어있다. 이 비율은 위의 표에서 같은 시기 1979년에 소련 전체의 민족어가 제1언어로 86.4%, 러시아어가 제1언어로서 13.6%인 것을 감안할 때 고려인의 러시아어 동화가 타민족에 비해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준다. 민족별 러시아어 동화에 대한 차이는 계량화된 수치의 통계에서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소련내의 고려인 92.1%가 러시아 말을 모국어로든 제2언어로든 할 줄 알았는데 비해 우즈벱 사람들은 49.9%가,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54.3%가, 투르크멘 사람들은 26.4%, 키르기즈 사람들은 29.9%, 타지크 사람들은 30.4% 만이 러시아말을 사용하였다(고송무, 116).

고려인의 언어적 동화는 이들이 거주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되어가는 기본적인 수순이었다. 구 소련의 고문서에는 고려인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가 러시아어와 모국어를 동시에 배우기에는 비효율적이며 부담이 되므로, 학교에서의 모국어 교육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의 편지가

있었다. 이 편지에서 고려인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의 미래를 보장받는 일은 러시아어로 소비에트 교육을 받고, 공산당 당적을 가지며 철저한 지배체제에서 요구하는 소비에트인이 되는 길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러시아어의 선택은 이미 소비에트의 위기에 전쟁터와 산업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아녀자와 힘없는 노인, 아이들만 남은 농장에서도 '기적같은 업적을 발휘하며 전승의 공로자들이 되며 자신들의 애국심을 보였듯이 소비에트 구성원으로 더 깊이 뿌리내리고자 했던 열망과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소비에트 체제에서 저항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화는 유일한 생존의 길로 모색되었고 더군다나 전후 거주사회에서의 민족적 자존심 회복과 함께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졌으며, 이것은 거주사회에 더욱 철저한 귀속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소비에트의 애국자로서 러시아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며, 소비에트의 일원이 된 것은 이들이 매일 부르고 불리는 이름도 달라야 했다. 이들의 러시아식 작명과 개명은 이미 강제이주 이전부터 일부 있었으나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원동에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자 했던 한인들은 러시아 정교회를 다니며 러시아 말을 배우고 러시아식 이름을 부여받는 등 일찍부터 러시아화되어 갔던 한인들도 일부 있었다.

좌릴가시노바(Джарылгасинова Р. Ш.)는 한인의 이름짓기의 변화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먼저 민족적 이름을 갖던 시기는 19세기 중반부터 1920년대, 그 다음 전통방식의 이름이 지배하던 것에서 변화하는 시기로서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 러시아식 이름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로서 1930년대에서 1960년대로 주장했다(고송무, 67). 실제 고문서 자료에 나타나는 한인들의 이름의 변화는 강제이주라는 큰 격변과 세계전쟁 등 한인 민족집단의 시련과 위기의 시기 이후에 큰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는 것을 보였다.



구 소련 고문서 자료의 한인 독립군 부대원의 명단에서 보면, 1922년 극동 소비에트 체제 초창기 당시까지만 해도 한인사회에서 러시아식 이름의 사용은 흔한 일이 아니었음을 나타내었다. 1922년 10월5일 한인 항일독립군 빨치산의 한 부대가 소비에트 혁명군으로 편입되었던 한인 부대원들의 명단(Мен Д. 외 1999, 94)에서는 임원 17명 중에 아직 러시아식 이름을 가진 이는 없었다. 또한 강제이주 직후 1938년에 어업 폴호즈 'Трудорыба'의 한인 구성원 21명중에 한인 모두가 민족본명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Бек Т. 외 2000, 137). 반면 비슷한 시기의 다른 그룹의 한인의 경우, 1937-1938 년에 탄압되었거나 출당된 공산당 당원 26명 중에는 5명(Мен Д. 외, 245, 248)이 1939년에 구리에브주 한인교사명단에서는 11명 중에 3명이 러시아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위의 책, 146, 147) 이것은 러시아식 이름을 가지는 것이 당원이나 교원 같은 지식층에 더 선호된 일이었으며, 한인 일반층에서는 거의 생소한 일이었음을 보여준다.

예외적인 경우로서 강제이주 이전에 한 한인집단에는 많은 구성원이 러시아식 작명과 개명을 했다는 증거도 있었다. 강제이주 이전 1930년대에, 극동 한인 중에 공화국의 요청으로 벼재배를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틴스키 관구에 이주해왔던 <Казрис> 한인 명단의 총 43가구 에는 부모세대 69명 중에 21명이라는 많은 수가 러시아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Мен Д. 외 1999, 176). 또한 러시아식 이름을 가진 부모 밑의 자녀들은 거의 모두 러시아식 이름을 가졌으며, 민족본명을 가진 부모의 가족에서도 아이들은 일부 혹은 전부 러시아식 이름으로 사용했던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원동의 한인 집촌을 떠나 먼 지역으로 이주해왔고, 소련당국의 관리를 받는 관심지역이었기 때문에 거주사회와 지역에 더욱 밀착해야 했던 환경도 작용했던 특이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2차 전쟁이 끝난 이후의 한인들의 이름을 보면 강제이주 시기의 그것과는 판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41-1945 년

독소전쟁(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기간동안 꼴호즈나 산업장 등 각 분야에서 노력영웅의 메달을 수상한 한인명단에서는 오히려 민족본명을 가진이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고(Бек Т. 외, 188-193), 1950년에 들어와서는 잠즐주(Жамбылская область)의 '꿈조타(Кумжота)'의 한인 꼴호즈 요원의 예를 보면 순수 민족 본명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있어, 이미 러시아식 이름이 일반화 되고 있었고, 한인의 성을 보지 않으면 어느 민족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신들의 언어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학교나 일터에서 동료나 상관들이 자신들의 민족본명을 부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고 불편을 주는 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식 개명이 일터의 상관이나 주변에 의해 부여되거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러시아식 작명과 개명이 불가피했다고 고려인들은 회상했다.

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식 이름이 고려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쓰일 때까지의 과도기에는 민족이름과는 전혀 생소했던 이름을 개명하고 작명하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았음이 나타났다. 그것은 다른 민족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러시아 이름은 짓기 쉽지만, 민족 성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민족본명에는 없던 러시아식의 부칭을 이름 뒤에 나란히 붙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외부인 기준에서 자신의 민족성에도 때로는 손질을 가하며 러시아어 발음에서 음차(음을 빌림)하였다. 즉, 김씨나 박씨 같은 성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서, 유, 이, 오, 노씨 같은 모음으로 끝나는 성은 민족식으로 성에다가 '이가' '박가' 라고 하듯이 '가이'를 붙여 이씨는 '니가이', 서씨는 '쉐가이', 오씨는 '오가이' 등으로 되도록 부르기 쉬운 러시아식 발음으로 바꾸어 썼다.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을 개조해서 쓰다 보니 뚜렷한 원칙없이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오늘날 이들이 같은 성을 두고 다양한 표기를 하다 보니 때로는 어떤 성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발음상 비슷한 알파벳을 임의대로

표기했기 때문에 한가지의 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염씨의 경우 Лем(Lem)과 Рем(Rem), Ем(Yem) 등으로 표기되었다. 한국학자 고송무는 논(Non), 흰(Fvon), 학(Khak), 현(Khen), 아가이(Agay), 자가이(Dyagay), 쉬가이(Shigay) 등 민족적 성의 기원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고송무, 67). 한인의 작명과 개명은, 민족적 본명과는 거리가 먼 러시아식 이름을 흉내내면서 민족성의 흔적을 유지한 제 3의 형태를 띠며 혼성성을 보였다.

부칭의 표기에서는 원래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에 남자는 -vich(вич, 비치), 여자는 -vna(вна,브나)를 붙이는 공식이 있는데, 한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에 이런 공식을 적용하여 부칭을 만들기도 했지만 러시아식에 없는 생소한 부칭이 되어 이것을 쓰기보다는 흔히 쓰이는 러시아식 부칭과 가장 가까운 발음을 채택하였다. 오늘날 이들의 부칭이 한결같이 러시아식 부칭들과 똑같은 것은 이러한 이유인 것이다. 민족신문 <레닌기치>에 게재된 단편소설 '녹색거주증'에는 소설 속의 한인 주인공이 대학시절 러시아인 등 유럽계 민족의 학생들과 학교생활에서 겪은 에피소드는 자신의 민족본명이 소비에트 사회에서 그대로 불리어지고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갈등상황을 보여주며, 또한 민족명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칭을 만드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김명식은 대학시절 서양 동창생들이 명식이란 발음을 하기 어려워 그를 김치크라 불렀다. 러시아사람에게는 김이라는 이름도 있으니 거기에도 애칭을 붙여 김치크라 불렀다. 조선인들에게는 'kimchikuk(김치국)' 같기도 해서 놀렸지만 학우들은 아주 좋은 이름이라하여 그렇게 불렀다. 대학졸업 후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숙희숙해면서 김치크라 부르기 무엇했든지 누군가 이름의 첫 자인 명의 발음 따서 Михаил(미하일)이라 하였고 부칭은 많은 조선사람들이 부른 것처럼 Иванович(이바노비치)라고 했다. 명식 본인도 이런 자기 이름 때문에 많이 난처해하곤 했다. 어디로 출장을 가서 사람들과 통성명하면서 명식이라고 하면 발음도 어렵고 인차 기억하지도 못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 쭈물거리고 난처해하였다. 특히 그의 아들이 성년이 되어 공민증을 타게 되었을 때는 실로 우스개말갈기도 하였다. 공민증에다 부칭을 기입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본명에 따라 러시아어 사전법으로 부칭을 부른다면 Менсикович (멘식꼬비치)로 밖에 되지 않는다. 러시아어로는 오줌을 싣다는 뜻의 단어와 비슷하게 들렸고 카자흐어로 해석하면 거의 쌍소리 비슷하게 들린다고 하면서 이런 부칭을 가지기를 아들은 결단적으로 반대하였다. (레닌기치 1990,2,29.04면)

민족명이 주로 한자어로서 의미를 담고 작명이 된 것과는 다르게 작명할 때 러시아식으로 발음상 잘 불리어지는 이름으로 임의적으로 지어왔던 것이다. 또한 고려인 여자는 민족전통과는 다르게 흔히 자신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성을 두고 남편의 성을 따랐다. 자렐가시노바 (Джарылгасинова Р. Ш.)에 의하면 1967년 결혼에 관한 소련의 규정에 따라 남편의 성을 취하는 경우가 생겨났다고 주장한다(고송무, 70). 강제이주 3세대 고려인 여성과의 인터뷰에서 연구대상 고려인의 거의 절반이상은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든 남편의 성을 따르든 자율적 선택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67년의 법은 지속적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고려인 여자들은 러시아인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은 물론 고려인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많았다. 남편의 성을 따르는 러시아식의 전통을 당연시하는 고려인 여성들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나는 엄 알리야 니콜라예브나이다. 아버지 성은 강씨였는데 남편의 성인 엄을 쓰고 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러시아 가정은 보통 한 가정에 한 성만 유지한다. 그래서 보통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른다. 우리는 러시아화된 사람이다. 엄마도 김씨였는데 아버지 성인 강씨로 바꾸었다. 나의 며느리도, 친구도 모두 그렇게 했다. 이것은 흔한 일이었고 우리의 정신이 러시아인과 똑같기

때문이다.(인터뷰, 2010. 8. 5)

오늘날 민족본명을 유지하고 있는 고려인은 사할린 출신의 나이든 세대를 제외하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식 이름의 사용은 이미 보편화 되어있다. 이들은 언어적으로 이미 러시아화를 이루고 러시아문화에 깊숙이 동화하면서 고유한 민족성과는 단절되어 살아왔다. 이것은 소비에트 교육을 받으며 소비에트 사회에 뿌리내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구 소련의 모든 민족이 예외 없이 러시아식 방식의 작명을 따르며, 언어적으로 러시아화 되어갔던 시대는 이제 과거가 되었고, 소련 해체 이후 각 공화국들의 독립 이후의 상황은 각 공화국 토착민들의 주도로 소비에트 유산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독립 공화국의 토착민들은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제 더 이상 러시아식 작명방식을 거부하기도 한다. 원래 카자흐의 전통 본명에는 한인들의 본명처럼 부칭이 없다. 이제 카자흐의 작명에도 이름, 부칭, 성 순의 나열식이 아닌 이름과 성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눈에 띄고 있다. 이것은 비단 카자흐뿐이 아니고 자라나는 고려인 새세대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8.15 독립기념일 행사에 등장한 고려인 어린이는 강 티무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독립이전에 이러한 행사에서 러시아노래나 민족노래 위주의 레퍼토리에서 이제는 카자흐노래도 합창곡으로 포함되고 있다. 이제 고려인들은 러시아화가 아닌 카자흐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 3. 고려인 민족집단의 내부 분화

#### 국내이주와 다양한 출신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언어적 동화와 함께 빠른 소비에트화에 합류하였다. 소비에트 고려인은 모두 한민족으로서 거주사회의 위로부터의 권력에 크나큰 시련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사회에 큰

공적을 쌓았으며, 소비에트의 영웅들이며 애국자 소비에트인이었다. 그러나 소비에트화에 몰입해왔던 기존 이민자는 새롭게 소비에트체제에 적응해야 했던 신이민자와 만나며 불가피한 갈등적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스탈린 사망 이후에는 소련 고려인들에게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고, 소련 연방 내의 고려인 이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전후 복구가 안정되어가고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그의 개인숭배와 독재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도래하였다. 1956년 강제이주민에게 내려졌던 거주지 제한 조치도 해제되었다. 1957년 소련정부의 ‘특별이주민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발표는 기존의 강압적이고 폭력적 조치에 대한 반성과 범죄적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계기는 전시와 전후 복구시기에 고려인의 공적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스탈린 치하에서 제한적 권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고려인에게 법적 사회적 지위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연방 내 타지역으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여 고려인 젊은이들은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찾아 떠나며, 다양한 직종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기도 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 고려인 집단은 대부분이 강제이주에 의해 정착한 고려인들이지만 강제이주와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유입된 후발 고려인들도 섞여 있다. 신이주만은 사할린으로부터 왔거나 혹은 북한의 노무자로 와서 소련에 잔류하고 있다가 이주오거나, 아니면 강제이주에 의해 우랄이나 타 지역에 있다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및 기타 구 소련지역 내 좀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서 흔히 이동했던 고려인들도 있었다.

고려인 집단의 인구는 인구비율을 보면 카자흐스탄 전체 거주 고려인 10만 명 중에 알마티에 25000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연해주 출신들로 구성되어있고 소수가 사할린 출신과 북한 출신이며, 사할린 출신의 경우 200여명이 살고 있다. 러시아의 사할린

고려인들은 1989년부터 한국정부와 일본의 지원으로 모국방문이 영주귀국 혜택이 주어졌다. 이러한 기회는 러시아 사할린 고려인 뿐만 아니라 구 소련의 독립 공화국에 정착한 사할린 출신 고려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졌다. 카자흐스탄 사할린 출신의 고려인의 경우 1945년 이전 출생자들은 그 대상자가 되어 몇 명만 제외하고 모두 한국거주를 택했다.

사할린 출신은 같은 세대의 연해주 출신과는 달리 한국어에 유창하고 한국에 대한 강한 정서적 유대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연해주 출신 고려인과는 잘 어울리지 않으나 한국어가 능숙하므로 고려일보나 고려말 방송에서 일을 하거나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현지인 가운데서 중계역할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기도 한다. 이들은 고려인 민족내부의 소수그룹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친선활동으로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알마타 사할린 출신들은 2000년에 고려인 문화센터 내에 ‘향우회’라는 사할린 고려인 단체를 결성하였는데, 일부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여 줄었지만 회원 100여명이 가입되어 있고, 그 중에서 활동적인 회원은 10~15명 정도 유지하고 있다. 사할린 출신들은 현재 60대 까지는 한국말을 구사하는 사람이 제법 되는데, 이것은 1938년 이후 대륙의 이주민 밀집지역에는 민족학교가 모두 폐쇄되었지만 사할린에는 민족사범학교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연령대의 연해주 출신 중에는 한국말을 구사하는 고려인이 없는 것이 크게 대조를 이룬다.

사할린 출신 고려인들이 러시아 땅을 밟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외부 압박적 상황에서 대륙 고려인들이 연해주 땅을 밟은 것과 유사하다. 사할린 출신은 즉, 일제의 지배하에 사할린으로 가게 되어 결국 소비에트인으로서의 공동운명의 길을 걷게 되었던 조선인들이었다. 소련의 대륙보다는 교육이나 직업에 있어 열악한 조건으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이유로 사할린섬을 떠나 구 소련 대륙의 도시들 즉, 가깝게는 하바롭스크에서부터 톰스크,

노보시비리스크, 알마티 등으로 유학하거나 더 나은 직장을 찾아갔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자리잡은 사할린 출신 고려인들은 연해주 고려인들이 강제이주와 함께 이곳에 먼저 자리잡고 난 이후에 사할린으로부터 유입된 소수 고려인 집단이었다. 구 소련 고려인 대륙의 밀집도시로 유입된 사할린 출신 고려인들이 대륙 고려인들과 만난 것은 처음은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후 사할린이 소련으로 편입되자마자 대륙고려인들이 사할린으로 파견되어 사할린 고려인의 소비에트화에 개입했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사할린 고려인들은 소비에트 체제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할린은 러시아의 죄인들의 유배지로 알려져 있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남사할린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사할린 고려인은 주로 한국의 남부지방에 살던 한인으로 세계2차대전을 전후로 일본에 의해 노동력으로 사할린에 모집되거나 동원되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자 일본정부는 한인들만 남겨두고 모두 철수하였다. 1946년 소련통계에 의하면 사할린 한인이 23,498명으로 나타나 있다(고송무41). 이들의 자신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남게 되었으며 소비에트에 복속된 이후 모국으로 귀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국적도 가지지 못한 채 무국적 소련공민으로 남게 되었다. 무국적자로서 고려인들은 3개월에 한차례씩 경찰서로 신원등록을 해야 했으며 교육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다 (권희영, 87). 이들은 1960년대까지 무국자나 무국적자나의 귀로에서 모국행을 위한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무국적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의 선택은 소련 공민이 확실히 되는 국적획득을 시도하거나, 혹은 귀향의 희망을 버리지 못해 남한으로 가겠다는 신청서를 쓰기도 했다. 특히 젊은 고려인들은 절망적 미래를 한탄하며 북한에 유인되기도 했다.



내 기억에는 소련 정상 공민증 대신 ‘무국적’이라고 명시된 갈색 거주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무국적 거주증을 ‘콘스키 패스포트(Конский паспорт(Horse passport))’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말처럼 꼬빠가 달려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고 자유와 권리가 없는 상태를 비유하여 지어진 거주증 이름이었다. 남한으로 보내달라는 신청서를 썼을 때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버리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고향으로 가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며 데모도 여러 번 했지만 60~70년대 와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귀향을 포기하고 국적을 받을 것을 택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우리같은 미성년자는 부모가 소련 공민증을 받으면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소련 공민이 되었다(인터뷰 2011. 6.12).

무국적자로 표시된 거주허가증으로는 대학도 갈 수 없었고 공산당 입당도 할 수 없어 젊은이에게는 장래가 없는 절망적인 나날이었다. 북한 당국은 북한에 가면 최고의 대학인 김일성 대학에 무시험으로 입학시켜주고 북한국적도 준다고 꼬셨다. 그래서 약 천명의 젊은이들이 갔는데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나빠져 그들의 생사도 모르고 많이 잡혀 죽은 것으로 안다(인터뷰 2009.6.14).

사할린 고려인 젊은이들의 북한국적의 선택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버렸다. 소련국적을 기피해온 사할린 고려인들은 후루시초프시대에 들어와 소련국적 취득자가 늘었다 하더라도 1956년 까지는 극히 일부에 해당되었다. 1958년 조사에 1,008명은 소련 국적을, 7,346명은 북한국적, 15,909명은 무국적으로 남기를 원했다. 1988년 1월의 통계에서는 35,000명의 사할린 고려인 중에서 소련국적자 32,000명, 북한국적자 456명, 무국적자 2,261명으로 나타나 끝내 무국적을 고집한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권희영, 88). 한 사할린 출신은 1960년대 초까지 자신의 삼촌이 한국 고향의 부모를 생각하며 모국귀환의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고 전한다.

삼촌이 사할린에서 항상 트렁크에 짐을 넣어 쌓아놓고 귀향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과 직접 소통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노력해서

결국 일본을 거쳐 한국의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때 삼촌은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울고 있더라. 그는 결국 꿈을 못 이루고 사할린에서 죽었다 (인터뷰, 2011. 7.1).

이 사할린 출신은 당시 삼촌의 애환을 회상하며 말하기를 “고르바췌프를 욕하는 사람이 많지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사할린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르바췌프의 개방정책이 소련의 해체를 앞당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련해체와 함께 사할린 출신들은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연해주 출신이 소련 해체 이후 일부 연해주로 돌아갔지만 재정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귀향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실향민으로 남아야 했던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사할린 출신의 지금의 혜택이전에는 폐쇄적 소비에트 사회에서 다른 다수 동족 연해주 출신에게 큰 차별을 받아야 했다. 두 동족의 분열적 삶에는 서로 다른 집단적 이주 경험의 역사에 기인된 것이었다.

사할린 고려인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편입 초기에 소련의 이념과 체제하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소련당국은 사회주의사상에 길들여져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며 언어소통이 가능했던 많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사할린에 파견하였다. 1948년 6-8월 사이 카자흐스탄 공산당과 우즈베키스탄 공산당으로부터 107명의 한인을 시작으로 7년간 2000명의 고려인 인텔리와 전문가들을 파견하였다 (권희영, 88) 파견 고려인들은 1970년대 대부분 돌아갔지만 일부는 사할린에 남았다. 사할린에서의 두 고려인 집단의 만남은 서로 좋지 않은 경험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이것은 초기 소련당국이 반체제인사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파견 고려인들에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어났다. 또한 교육기관과 작업장의 고위간부로 있게 된 대륙 고려인들은 사할린 고려인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었고, 소련당국에 의해서도 파견 고려인보다 사할린 고려인은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데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두 동족의 사할린 섬에서의 불미스러운 경험은 사할린 고려인이 직장과 교육을 찾아 대륙의 도시로 진출하여 연해주 출신 고려인들과 만났을 때 그대로 기억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집단에는 대립적 위치에 있는 두 집단 외에도 소수 북한출신이 있다. 구 소련지역에 정착해 있는 북한 출신 고려인에는 두 부류의 집단이 있다. 그 중 하나는 고려인 사회에서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소수의 북한 노무자 출신이다. 이들은 북한과 소련의 같은 공산 형제국이라는 관계에서 구 소련 지역에 도래하게 되었다. 즉 소련지역에 노무자로 계약직으로 왔다가 잔류하게 된 사람들이다. 해방 이듬해 북한은 생활고가 극에 달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젊은 노무자를 모집하여 소련의 연해주, 쿠릴열도, 캄차카반도, 사할린, 오희츠크 등 다양한 지역에 주로 어장이나 벌목, 광산 등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주로 1946~1949년 사이에 파견된 사람으로 이 기간에 모두 26,065명이었다(권희영, 86). 이들은 주로 계약직으로 오게 되는데 대부분 귀국하였으나 일부는 잔류하여 정착한 사람이 수 천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송무, 42).

또 하나의 집단은 소련에 망명한 북한 유학생 출신이다. 이들은 1956년 제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 비판’ 발언이 있는 후 김일성 독재와 개인숭배체제에 반기를 들면서 북한으로 귀국하지 못한 고려인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조로서 1960년대 모스크바에서 북한대사를 지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 유학 중이었던 영화과와 시나리오 학과, 그리고 음악대 학생들은 망명을 요청하여 소련전역에 흩어졌으나 후에 주로 알마타 등의 고려인 집단거주지에 모여들었다. 당시 10명의 망명인들은 ‘10진’이라 하여 작가나 예술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고, 모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 88서울올림픽 이후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에서 혹은 고려인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수 십년 동안 무국적자 생활을

하여 많은 권리의 제한을 받아왔다.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척을 그리면서 언젠가 귀향할 것을 꿈꾸었고, 북한의 변화상황을 주시하며 기다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로 1970년대 이후에 소련국적자로 전향하였다. 이들은 정치적 망명과 무국적 신세, 모국 귀환의 좌절 등 삶의 애환을 가진 고려인 디아스포라로 이미 80대 이상의 노인들로서 서너 명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사람이 아니다.

연해주 출신 고려인 중에는 사할린에 파견되었듯이 북한에 공산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파견인원은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949년 1월 1일 현재 428명이었다고 임은 (Im Eeun)의 기록에 있다고 한다(고송무, 42). 고려인 학자들은 대개 그 수를 5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었다. 소련정부는 사할린뿐만 아니라 북한과 연해주, 하바롭스크 등 극동의 공산화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이용하였다. 당시의 극동으로 파견 명령을 받았던 고려인들은 1937년 강제이주를 당한지 채 10년이 되기 전에 또 한번 강제이주 당한 큰 시련으로 여기고 있다(Камр Г. 외, 108) 그러나 스탈린 사후에는 스탈린 격하운동과 함께 김일성 독재에 대한 비판이 모스크바에서 흘러나오자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차가워졌다. 소련과 북한의 관계악화는 바로 파견고려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북한당국은 파견 소련 고려인에게 소련국적이나 북한국적 중에 택일하도록 하였고, 이때 대부분 귀환하였으나 북한국적을 택한 고려인도 있었다. 이후에 북한에 남게 된 고려인들의 소식은 소련에서 들을 수 없었으며 생사도 알 수 없이 모두 탄압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사불명의 고려인 수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증언자들은 당시 파견고려인의 반 수가 귀환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 50명 정도가 남았다는 증언도 나왔다(고송무, 43). 이것은 사할린 젊은 고려인들이 북한국적을 받아들이며 북한행을 선택한 이후 북한에서 생사를 알지 못하고 탄압당하며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과 같은 시기였다. 이 사건은 소련 고려인과 북한간에 유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북한당국이 함구를 일관하고 있어 모국 북한에 대해 가장 섭섭한 일로 남아있다(고송무, 43). 북한 파견 고려인 중에는 당시 북한의 중요한 요직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은 소련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고려인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식인들이었다.

대부분의 연해주 출신들의 고향은 북한의 함경도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어 북한은 모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련과 공산 형제국이란 연대 속에 연해주출신 고려인들은 정기적인 문화행사와 지속적인 북한여행과 친척방문을 해왔다. 이들은 남한출신으로 알려진 사할린 출신과 정서적 모국이 다르므로 서로 대립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서울 88올림픽을 계기로 북한보다는 고려인 사회에 부상한 한국 위주 방문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북한과의 친밀도는 크게 약화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발길을 자연히 끊고 있었다.

### 내부 주류와 비주류: 연해주 출신과 사할린 출신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 내부에는 유달리 긴장관계를 유지하던 두 집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수 연해주 출신과 소수 사할린 출신 고려인들이다. 두 집단은 서로 교제하지도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서로에게 ‘이방인’이었고 서로를 배척하였다. 두 출신들은 서로를 부르는 이름에서 구분되었다. 연해주 출신들은 강제이주 이주 일찍부터 대륙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본토 대륙 고려인이란 의미로 보통 ‘마테리코브스끼(Материковский)’라 불리거나 혹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거주지역 이름을 따서 ‘알마틴스끼(Алматинский)’, ‘타시켄스끼(Ташкентский)’ 등으로 불리어졌다. 사할린 고려인들끼리는 이들을 비하하는 말로 한국말로 ‘큰땅배기’, ‘큰땅치’ 라고 부르기도 했다. 반면에 사할린 고려인들은 ‘사할린스끼’ 라 불리었다. 또한 대륙 고려인들은 자신들이 러시아땅 연해주에서 온 ‘소련사람’인 것에 비해

사할린 고려인은 한반도 본토에 왔다고 하여 특유의 비하하는 어조로 ‘내지치’라고 불렀다. 두 동족에게는 서로를 다르게 부르며 비하하기도 하는 호칭에서 서로가 암묵적으로 인지하는 대립적 이질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서로의 일그러진 운명은 과거에 소비에트 권력자들이 정책적으로 이용했던 대륙 고려인을 소비에트식의 체제의 조직을 이식하기 위해 사할린으로 파견했던 계기로 시작되었다. 사할린에서 만난 이 두 집단은 각기 모국에 대해 다른 꿈을 꾸며, 서로 거주국에 대한 태도와 지향이 달랐다. 사할린 고려인은, 거주국에서 필사적으로 삶의 기반을 다지며 철저히 거주국에 동화되어갔던, 대륙 집단과는 큰 대조를 이루었다. 연해주 출신들은 강제이주라는 시련을 당하며, 오히려 위기를 호기로 만들며 전쟁 이후 소비에트의 애국자이며 공로자로서 인정받았으며 소비에트인으로서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반면, 사할린 고려인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갑자기 소련에 편입되었으며, 한반도 모국 귀향의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본국 귀환의 어려움은 물론 본국의 가족과의 연락도 불가능하였다(정근식 외, 4).

두 집단 모두 구 소련의 국민으로 살아온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민족말을 잃어버린 반면 사할린출신 2세들이 유난히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이들을 쉽게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것은 사할린 2세 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 부모세대인 1세대가 소련 공민이 되는데 비극적이었으며 모국 지향적 삶을 살아왔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거주하는 사할린 출신 한 고려인 2세는 사할린에서 나고 자랐으며 사범전문대학교를 졸업하여 결혼 전까지 사할린에서 거주했던 생활을 회상하였다.

러시아학교를 다니고 집 밖에서 러시아말을 해도 집안에서는

부모들이 러시아말을 못하도록 했고 우리말로만 하게 했다. 우리는 고사리 등 산나물과 물고기를 반찬으로 먹었고, 큰 행사 때 돼지를 잡아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내가 젊은 처녀라 외출도 삼가 해야 했다. 결혼할 때도 남편의 부모(고려인)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러시아여자가 아니라 조선인 아가씨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에 나와 결혼하게 된 것 같다 (인터뷰. 2010.6.14).

그녀의 기억한 것은 모국의 조선인의 평범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 모습이였다. 필자의 경우도 한국의 남부지방의 출신으로 아주 어린 시절 60년 70년대 까지만 해도 동네 큰 행사 때면 돼지를 잡아서 나누어 먹었던 기억과, 식생활과 가정의 분위기가 한반도 남부출신 사할린 고려인이 말한 그대로의 같은 정서를 회상할 수 있다. 소비에트로 편입된 이후에도 고려인 아이들은 학교에서 러시아어로 공부해도 일상언어는 민족어로 소통했고 먹거리나 자녀교육과 예절에 있어서 전통적 생활방식을 중요시하며 지켜왔던 것을 볼 수 있다. 타민족과의 결혼도 꺼리며 민족적인 것을 고집하며 소련국적을 거부했던 것은 사할린 거주가 임시거처지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두 집단은 귀속사회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더군다나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각각 지배와 피지배의 종속적 위치로 배치되어 처음부터 분열적으로 향하고 있었다. 소련당국은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후 소련공민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사할린 지역의 조선인들을 특별관리의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소련의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할린 고려인들을 전혀 말도 통하지 않고 일본말과 조선말을 하면서 사회주의와는 다른 사상에 물들어 있는 ‘문제의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이들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파견단을 구성하였는데 이름하여 계몽사업단이었다. 1948년부터 본격적인 계몽사업이 착수되었고, 계몽사업단에 합류한 대륙 고려인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대학이나 학교에서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거나 각 꼴호즈나 산업장에서 기술직이나 관리직에서

요직을 담당했으며, 모두 공산당에 입당하여 당적을 가졌던 지식인들이었다 (Ким Г.Н, Мен Д.В., 265-272). 이들은 고려말과 러시아말이 동시에 가능하였기 때문에 사할린 고려인을 직접 대하고 러시아 당국과의 중개역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들은 장기적인 과건으로 가족과 함께 갈 수 있었던 특전과 사할린에서 현지 고려인들을 다스리는 주요 간부위치에 배치되었다. 반면, 사할린 고려인은 일제하에서 일시적으로 과건된 노동자로서 주로 탄광이나 국영농장, 건축현장 등에 일반 노무자로 일했고 사무직이나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대륙에서 과건된 고려인들의 임무성격이 계몽이며 사상교육이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불온 분자 색출을 돕고 교육해야 했으며,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할린 고려인들을 통제하는 입장이 된 것과 더욱이 사할린 고려인들이 임금이나 취직에서도 불리한 조건에 있었던 상황은 사할린 고려인의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 언어적으로 사할린 고려인과 소통이 가능했던 과건 고려인은 주로 사할린 고려인의 산업장에서 정치부장 직위나 교육기관에서의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과건 온 고려인들이 자신들보다 상위의 직위를 차지하면서 관리대상이 되어야 했던 사할린 고려인들은 ‘일본인 밑에서 억압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동족 밑에서 통제 받으며 살아야 한다니’ 하는 억울한 처지에 있었음을 한탄하였다.

두 고려인 집단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던 사건은 사상계몽의 일환으로 단속조치를 하고 있던 소련관리들에 의해 일본인과 가장 가깝게 지냈으며 그리고 일본방송을 듣는 사할린 고려인들이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수배하고 붙들려가는 일이 생겨났다. 사할린 고려인들은 ‘사상 불온자’로 소련경찰에게 넘겨지는 과정에서 ‘큰땡배기들’이 자신들을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을 당했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다. 대륙 고려인들이 과건된 이후 사할린 고려인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불만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대륙 고려인에 비해 낮은 임금과 불리한 조건의 취업에도 있었다. ‘사할린스키’는 주로 대륙 고려인에 비해 사무직이나 관리직이 아닌 노동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더 낮은 월급을 받았고 심지어 똑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을 더 낮게 받아야 했다. 대륙 고려인이 주로 공장장이나 학교장 등 주요 직위에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사할린 고려인은 ‘일본물’ 이 들은 부류의 사람이라 하여 그 자녀들도 직장에서 더 낮은 직위를 가져야 했고 더 불리한 처우를 받아야 했던 기억을 상기하였다. 사할린섬에서 있었던 최초의 불편한 기억과 경험은 두 집단이 대륙에서 만났을 때도 연장선 상에 있게 되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 시기를 접어들면서 거주제한이 해제되었고 많은 억압적 요소들이 완화되면서 모국에로의 귀국의 꿈을 접으며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모색해 갔다. 소련국적을 취득하며 입당하고자 했던 사할린 고려인들이 늘어갔고 젊은이들은 대학공부와 더 나은 직장을 찾고자, 그리고 고려말을 하는 사람이 일하기가 유리했던 「레닌기치」 신문사나 고려말 방송국으로 일부 취직하여 넓은 대륙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펼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큰 땅은 기회의 땅이기도 했지만 긴 갈등적 삶의 시작이기도 했다.

연해주 출신은 사할린 출신에 대해 차별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근본적으로 출신이 다르다는 점과 성격차이를 거론하고 있었다. 출신에서 자신들의 조부모님들은 항일투쟁을 벌여왔던 영예로운 독립투사들이었고 소비에트건설을 위해 피를 흘렸으며, 연해주 땅에서 비교적 풍요롭게 살았다는 기억으로 사할린 출신 고려인들이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에서 대비하여 우월의 근거로 내세웠다. 성격차이에 있어서는 그들의 입으로 묘사되는 사할린 출신은 자신들의 정신은 ‘러시아인’과 가까운 반면 그들은 꼭 ‘일본인’, ‘한국인(남한사람)’과 닮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비밀이 없고 솔직하고 개방적인데 비해 그들은 겉으로 웃으면서 속이 다른 ‘일본인’과 같다는 것이었다.

대륙에 진입하여 대륙 고려인보다 수적으로 큰 열세였고 우등/열등

구조에서 주변화되고 배척당해야 했던 ‘사할린스키’는 자신들만의 그룹과 모임으로 구심점을 형성하면서 자신들끼리 했던 불만토로와 반격의 나레이티브는 다음과 같다.

눈도 까맣고 성도 김이고 밥 먹고 된장찌개 먹던 같은 고려인이면서 우리와는 만나지도 않았다. 러시아이름을 쓰고 마치 러시아사람들처럼 행세를 했고 우리를 지시하듯이 다루었다. 러시아식 이름으로 바꾸라는 그런 법도 없었는데 이름도 러시아식으로 스스로 바꾸더라. 사실 나도 내 이름을(본명을) ‘밀라이바노브나’ 같은 이러한 러시아식으로 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할린 출신들은 예절 바르고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양손으로 하는데 여기 사람들(연해주 출신)은 한 손으로 물건을 받고 건넨다. 생일 등에 초대되어 가보면 군소리 안하고 잘 하는 여자는 사할린 여자였다. 여기 여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에게 차를 준비해서 주거나 밥 차릴 생각은 안하고 치장이나 하면서 혼자서 해 먹어라는 식으로 했다(인터뷰. 2010.6.14).

‘사할린스키’는 민족 본명을 그대로 쓰면서 공손한 예절과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주체적으로 지켰던 민족적 자긍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혈연적 뿌리를 같이 하면서도 러시아식 이름을 쓰며 자신들을 부하직원 다루듯 했던 대륙 고려인에게 무시당해야 했던 억울함을 이야기했다. 고려인 주류집단에 편입되지 못했던 서러움과 소외감은 깊어갔고, 주류에 대한 증오심은 똑같이 생긴 고려인들이 러시아식으로 쉽게 개명해 버리고 러시아인 행세를 하는 거만한 ‘변절자’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사할린스키’가 조선인으로서 조선말과 조선이름을 쓰는 것을 당연시했던 반면 대륙 고려인들은 러시아식으로 적응해야 했던 당연한 논리가 있었다. “여기는 소련이었고 소련식대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다민족 국가였는데 우리 이름을 여기 사람들은 어렵고 생소해서 부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민족 이름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고 당당히 주장하였다. 자신들은 ‘러시아인’에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며 러시아식 작명과 개명 그리고 러시아식의 1가족 1성의 원칙을 따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사할린스키’가 현모양처의 전통적 여성상에 가치를 두는 반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가정에서 남편을 우위에 두지 않고 고분고분 하지 않는 러시아여성상을 동일시하고 있는 대륙 고려인 여성의 모습은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연해주 출신 여자는 러시아여자 흉내를 내며 가정에서의 여성의 전통적 역할과 미덕을 상실했고 남편에 대한 내조와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듯이 지적하고 있었다.

고려인 사회 두 집단은 결혼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다. 특히 러시아여성을 결혼상대자로 선호하며 러시아 제일주의를 견고 있던 대륙 고려인들은 그들 자녀의 결혼대상자가 ‘사할린스키’이면 격한 전쟁을 치루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큰 땅 사람들은 우리의 예절, 음식, 전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결혼도 모임도 러시아식 이름 가진 자기들끼리 하고 ‘미숙’이나 ‘경자’ 이런 이름을 가진 우리와는 결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러시아인 들하고 결혼했다. 사할린 출신 남편의 조카딸이 큰 땅 남자와 사귀어 결혼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 큰 땅 집안의 강한 반대에 아주 힘들었다. 당시 나는 큰 땅 사람과 사할린 사람의 대립문제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신문에 기사를 쓴 적도 있었다 (인터뷰, 2010.6.14).

두 집단 출신의 결혼문제에 부딪히면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쪽은 연해주 출신이었다. 사할린 출신은 반대하기 보다는 상대의 허락을 받기 위해 약자가 되어 기다려야 했던 더욱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두 집단의 결혼전쟁에서의 대립과 차별은 사적인 영역을 떠나 공적인 영역에서도 작용하고 있었다. 명목상 민족의 이름으로 운영되던 단체의 경우 민족 신문사에서 보다 고려극장에서 심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다. “신문사는 모두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었지만 고려극장 같은 데에서는 사할린 출신이 맡을 붙이지 못했다. 사할린 가수 문공자는 워낙 실력이 뛰어나 예외였지만 연극부문에서는 사할린 고려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불평에서 주로 민족어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신문사나 방송국은 그나마 사할린 출신의 입김이 작용했던 예외적인 곳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에는 주로 러시아로 쓰여진 기사를 받아 번역하는 업무 특성이 있었고, 방송국에서도 민족어 구사자가 우선적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할린 고려인들은 대륙지역으로 진출한 이점으로 삶의 질이 나은 도시적 생활과 수준 높은 교육 환경, 그리고 사할린의 긴 겨울과 여름의 폭열보다 나은 기후적 조건, 대륙의 풍성한 과일 등을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사할린을 떠나 대륙행을 하면서 가 장 기대했던 것으로 고백한 것은 대륙의 백색계 사람들은 순하여 유색계를 별 차별 없이 대했다 점을 들었다. 특히 카자흐스탄 등지의 유색계 카자흐 토착민들에게 러시아인들을 포함한 백색계 민족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입장은, 같은 유색계인 고려인 집단에게 토착민은 하나의 방패막과 같은 역할로 간주되었다. 반면에 사할린에는 러시아인과 따따르인 등의 백색계와 유색계로서는 사할린 고려인이 유일했기 때문에 백색인종에 의한 차별도 유난히 강했다고 한다. 사할린 고려인들은 민족내부의 타자화와 민족외부의 백색계에 의한 주변화의 이중고는 일제하에 ‘일본어도 못하며 녹색 배추잎도 먹는 천한 것들’이라고 일본인에게 차별받았던 아픈 기억이 잊혀지기도 전에 당해야 했던 시련이었다고 고백했다. 억압적 지배-피지배구조로부터 벗어나고자 대륙행을 선택했던 것은 탈출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류의 집단이면서 ‘러시아인’으로 행세하고 있던 대륙 고려인들에게 주변화되었던 사할린 출신은, ‘이방인’같은 존재로 밀려나면서 대륙 고려인 사회에 합류되기 어려웠다.

## 제5장 사회 전환기 고려인의 정체성 정치

이 장에서는 88 서울올림픽과 구 소련의 해체로 고려인 집단내부의 긴장과 분열에서 구심점을 회복하고 그리고 새로 등장한 모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경계의 형성과정에서 묘사되는 나내티브를 통해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지, 어떠한 의미와 가치들이 엇갈리고 충돌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들의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를 향한 다수의 차별적 이분법의 구도가 와해되고 새로운 차이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게 된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존재기반이 와해된 위기를 맞아 새로운 독립국의 국민으로서의 위치지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정체성 정치를 재현할 것이다. 외부구조의 변화에 따라 민족 내부에 달라지는 긴장관계와 새로운 생존기반을 위해 외부 구조와의 연대를 위한 제스처에서 유동하는 주체와 주체의 나약함을 보게 될 것이다.

### 1. 88 서울올림픽과 고려인의 민족적 구심력 강화

구 소련 고려인들은 철저히 소비에트 인민으로 살아왔으며, 소비에트 체제하의 모든 인민이 그랬던 것처럼 민족 주체적 삶은 거의 상실한 채 살아왔다. 강제이주라는 비극은 서로 고려인끼리의 민족적 친밀감과 단합을 차단하며 오히려 민족내부에서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분열이 조장되었다. 억압적 상황에서 유일한 생존의 길은 체제 내에서 철저히 모범적 구성원이 되는 것이었다. 강제이주 이후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콜호즈에서 근면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타민족의 모범이 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고려인들은 불리한 입지의 소수민족이면서 사회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인 면에서 성공적으로 기반을 다져갔다. 이들은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차 축적한 부를 자녀교육에 투자하며 도시로 진출하였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며 사회의 각 방면에 역할을 담당하였다. 소련 어느 지역이나 통하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러시아식 이름을 쓰고 러시아인과 결혼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수민족 고려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에 충성하며 모범 소비에트 인민이 되었어도 일등민족 러시아인 일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독일인이나 우크라이인 같이 백계 유럽인일 수도 없었으며, 같은 유색계 민족 중에서도 토착민과는 다른 입지에 있었다.

이들이 소련사회의 민족 외부에서 언제나 불리한 소수민족 위치에 있었다면 민족내부에서는 우열구조에서 우등을 점하는 위치를 차지한 다수집단이 있었다. 이들이 소련사회에 동화되면서 기반을 다진 역량은 새로운 고려인 이주민의 소비에트에 덜 적용된 모습과는 차별적인 것이어야 함을 과시하였다. 특히 러시아어에 익숙하지 못했던 사할린 출신 고려인과는 두드러진 긴장관계가 양산되었다. 이러한 차별과 갈등의 구조는 시간이 지나 새로운 이민자들이 소비에트 체제에 적응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두 집단의 우열구조는 마치 고려인이 영원히 지배민족 러시아인과는 다르듯이 신이민자 사할린 출신 고려인은 구이민자 연해주 출신 고려인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할 존재로 여겨졌다. 이것은 민족외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같은 고려인 내부에서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한국에서 열린 88 서울 올림픽은 구 소련 고려인 사회에 내재된 민족 내외부의 차별과 갈등구조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외부로부터 온 물결은 자신들이 속한 체제와 자신들이 추구해 왔던 가치와는 다른 정반대편에서 왔다. 한국이란 나라는 공산국이 아니면서 가장 황폐한 나라이며 가난한 나라로 마치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굳게 자리잡았던 고정 이미지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자랑스러운 모국의 등장은 그 동안 상실했던 민족성을 찾아야 할 가치로 부상시켰고, 민족어와

민족네트워크의 부활의 부르짖음 속에 기존 가치로 가늠했던 민족내부의 열등한 집단의 위치도 새로이 배치되는 기회가 되었다.

### 올림픽이 자극한 민족애

88 서울올림픽이 있기까지 한국인과 구 소련 인민으로서의 고려인의 접촉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공산/자본진영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소비에트 고려인에게 북한은 구 소련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형제국이면서 모국으로서 향수를 갖고 있지만, 반면 남한은 같은 피를 나눈 한민족이 살며 역사를 공유해온 모국이라는 인식보다는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반공이념으로 무장된 국가로서 가장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 소련의 고려인들이 한국을 이념적 틀에서 인식하여 왔던 반면, 한국인들에게 소비에트 고려인은 88 서울올림픽 이전까지 이들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단절되어 있었다. 소비에트인에게 알려진 한국 역시 1950년 6.25동란에서 보았던 폐허지역으로서의 한국을 마지막 인상으로 가지고 있었다.

소비에트 고려인에게 각인된 변함없는 진실은 자본주의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결국 망하고야 말게 될 체제였고, 한국은 자본주의국가 중에서도 ‘최빈국 자본주의’라는 이미지로 고정되어있었다. 이러한 폐쇄적 이념 내에서 정형화된 이미지의 해체가 가속화된 것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문화예술축전에 초대된 소련예술단원의 서울방문이었다. 이 방문예술단에는 소련 고려인들이 포함되어있었다.

한국인들은 공산사회의 예술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소련 예술단원을 환호했다. 소련의 볼쇼이 발레를 관람하고 러시아 음악과 명화를 감상하면서 새로운 러시아문화에 흠뻑 젖어 들었다. 한국인들이 서울올림픽에 대한 소련과 공산국들의 참가에 대한 뜨거운 환영에는 개최국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올림픽의 성공을 열망했기 때문이다. 공산권국가들의 서울올림픽 참가여부는 서울올림픽의 성패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여겨졌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명제로 부상되었다(이윤근, 199). 지난 1980년의 모스크바 올림픽과 84년 LA 올림픽에서 보인 동서 양 진영의 극한 대립과 각 반대진영의 불참사태 이후에 치러져야 했던 서울올림픽은 세계정세의 거울로 주목되는 무대이기도 했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모든 정치적 사회적 제 문제를 뒤로 한 채 전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올림픽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올림픽의 열띤 분위기에서 엄연히 살아있었던 반공법과 반공의식도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도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올림픽 행사의 영향력은 한국과 여러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발전도 박차를 가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던 한민족의 민족적 의식의 각성으로 나타났다. 소련정부의 남한과의 교류와 개방의 의지가 반영된 일련의 우호적인 태도와 동족이 이루어 놓은 놀라운 발전, 자신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영 등은 민족애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러시아 예술을 매개로 한 만남의 장에서 소련 고려인과 한국인은 원초적인 혈연적 유대의 감정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공연입장권의 매진을 이루며 인기를 끌며 선보였던 소련 예술단원 고려인의 음악무대는, ‘이산민족 상봉’의 감격적인 장이 되었다 (경향신문 2007.4.9). 고려인 성악가 남 류드밀라(Нам Людмила)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원동에서 ‘일본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총살당했으며, 고려인 모두가 조국을 눈앞에 두고 멀리 강제이주 당해야 했던 비극적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모두에게 눈물의 무대로 만들었다. 류드밀라가 말한 그녀 할아버지의 개인사는, 일제치하에 나라를 빼앗기며 항일투쟁을 벌이며 피를 흘렸던 역사로서 전 한민족이 공유하는 역사이기도 했고,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하며 같이 그 아픔을 나누는 슬픈 이야기였다.

한국에서의 ‘이산민족의 상봉’행사에서의 뜨거운 감정은 소련 고려인 사회에 그대로 전해졌다. 고려인 신문인 「레닌기치」에서



고려인 예술인의 한국방문 소감의 인터뷰에서 나온 한국에 대한 묘사는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는 조상의 나라’이며 한국동포들의 뜨거운 환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동포애에서 나왔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너무도 흥분되어 북받쳐올라오는 감격의 눈물을 참지 못해 너가수는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서울땅에 들어서자 난생 처음으로 나는 마음속깊이에서 치밀어오르는 조상땅의 부름소리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략>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나로서의 조상의 나라, 그 인민이 얼마나 나의 심정에 가깝다는 것은 형언할수 없는 그 어떤 신성한것입니다. 어떻게나 우리를 친팔들처럼 진정으로 대하여주었는지 말이 모자라 체험한 그대로 전할수가 없어요. 이번에 나는 처음으로 그런 참다운 큰 행복을 감축하였습니다. <중략>

옷차림도 현대의 유행식으로(유행으로) 차려입었고 아무런 가면이니 뒤속이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였으며 모두가 친절하고 낙관적(낙관적)이어서 인차 숙면될수(이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우리가 보고 느낀바도 그런데 한국인민의 약 80%는 다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대이고 20% 만이 아직 모자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 생활수준이 얼마나 높다는 것은 알만하지 않아요? 세계 발전된 10개의 공업국가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 <중략>. (레닌기치 1988. 10. 15, 4면).

올림픽에 참가했던 소련 예술가뿐만 아니라 소련 고려인 선수도 한국동포에 대한 소감에서 한결 같은 ‘호의’, ‘배려’, ‘진정한 대우’라는 따뜻한 동포애를 상징하는 말들이 고려인 신문에 등장하였다(레닌기치 1989.1.21, 4 면). 동시에 더 인상 깊었던 내용으로 장식하는 말들은 한국의 번영된 모습이였다. 한국을 다녀간 소련 고려인들의 소감내용과 올림픽 중계를 통해 보여진 한국은 현대적 도시거리며 세련된 여자들의 옷차림, 세계적인 공업국가, 높은 생활수준 등의 ‘부자 한국’으로 고려인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고려인의 찬사와 긍정적인 평가는 내용과 태도에 있어 소련 일반언론보다는 그 수위를 넘고 있었다.

한편 소련인민들이 자본주의 한국을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었지만 엄연히 이념과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찬사의 편향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적으로 소비에트인의 우수성과 찬사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는 의식적 자제력을 갖고 있었다.

쏘련 무용가들의 일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관중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용프로그램의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최 스웨틀라나(Цой Светлана)를 소련 연출가들이 선택한 것도 한국인들이 뜻밖에 흡족한 일이었다...<중략>...소프라노 가수들인 남 류드밀라(Нам Людмила)와 리 넬라(Ли Неля)의 맑고도 부드러운 힘차고 유창한 노래소리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많은 청중들로 하여금 탄복과 매혹감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까지 흘리게 하였다...<중략>.(레닌기치 1988. 10. 154 면).

위의 내용은 1988년 10월 12일 구 소련의 스포츠 신문 <소비에트 스포츠>에서 소련 예술단의 한국방문에 대한 성과가 실린 내용을 <레닌기치>가 인용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이 한국인이 ‘소련 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에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아직 소련 일반신문에는 소비에트 예술과 인민의 우수성만 강조하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 한국에 대한 찬사와 평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였다.

반면, 민족신문 ‘레닌기치’는 한국을 방문했던 고려인 선수나 예술인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한국에 대한 느낌 그대로 전달하는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족신문에 대한 검열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방문에 대한 고려인들의 호의와 감동을 그대로 민족신문에 실리도록 허락된 것은, 소련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암묵적인 배려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이것은 한국을 방문하는 소련 예술단에 고려인 예술가들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소련의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제스처를 나타낸 것이었다. 소비에트 역사에 없었던 이러한 파격적인 일들은 소련 말기에 개방의 물결과

함께 소련 정부도 거스를 수 없었던 내외부의 시대적 압력에 대한 돌파구 모색에서 나온 것이었다.

구 소련 고려인의 한국방문의 행렬은 올림픽에만 그치는 일회성이 아니었다. 민족신문 <레닌기치>에 실린 한국에 대한 찬사의 기사는, 그동안 오직 소비에트인으로만 살아온 고려인들로서의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민족애를 담고 있었다. 서울 올림픽 이후 고려인의 한국방문은 한국정부나 기관의 초대와 소련정부의 지원으로 매년 정례화된 행사로 발전하였다. 체육과 문화행사로 많은 모국 한국땅을 밟는 것은 구 소련 고려인의 자랑스러운 순례행사가 되면서 그들에게 단단한 이념적 이분법으로 각인되었던 적국 남한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고 있었다.

### 적국 ‘남조선’에서 또 하나의 조국으로

구 소련 고려인은 냉전과 조국의 분단이라는 그늘진 역사아래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반쪽의 조국과는 철저히 단절되었다. 88 서울올림픽이라는 세계 스포츠 축제는 단절되었던 한국의 모습이 소련 언론과 TV를 통해 보여졌으며 실제 선수와 예술단원으로 참여했던 고려인들의 한국체험은 한국이 이념적 체제하에 믿고 있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38 선이란 물리적 경계로 남북한이 공산/반공주의로 나누어져 있었고 남북의 군사적 대립상황에서 반공사상이 철저하게 주입된 한국인과 공산주의 종주국의 소련국민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1970년대 한국에는 ‘반공’이란 용어가 공적영역에서부터 일상적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반공교육과 반공표어의 주술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이 주술적 명령에 따라 ‘우리와 다른 적’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을 발동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다. 1980년대 말에는 반공이념과 교육이 많이 희석되었다 하더라도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이상 반공기치와 보안법은 살아있었던 시기였다. 반대로 소련의

입장에서 보는 한국은 사상적으로 소련과 북한 모두에게 적이며 자신들이 북한군을 지원하며 남한을 향해 총을 겨누었던 6.25 전쟁을 체험했으며, 남북한이 반쪽이 나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국인이 반공사상의 폐쇄적 이념 안에서 소련을 정의했듯이, 소비에트인에게 한국은 ‘반공 자본주의 국가’로 단정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소련망명 북한출신 고려인 한 지식인의 당시 남한에 대한 기억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한국을 ‘가장 강력한 반공사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남한’, ‘가장 가난한 나라 남한’이라고 회상하였다.

한국방문에서 돌아온 고려인들에 의해 역사 이래 ‘적국으로서의 남조선’이라는 말 외에는 한번도 입에 올릴 수 없었던 한국을 ‘조상의 땅’과 ‘한 핏줄 한민족’이라는 과감하고 솔직한 단어를 드러내며, 한국과 한국인을 언급할 때는 아예 이념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변화를 보였다. 소련체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찬사’는 오직 소비에트인으로서의 당에 충성하는 고려인이나 이념적 형제국인 북한언론에서 ‘미제 자본주의 남조선’을 타파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 외의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다.

고려인 언론은 예술제를 통해 선보이게 된 러시아 요리와 러시아 민요에 대해 서울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 및 폐막전에서 서울에 대한 인상에 대한 소개는 모두 소련 자신들의 예술의 위대함과 올림픽에서의 소련승리를 외치면서도 한국에 대한 호의와 응원은 그치지 않았다 (레닌기치 1988.9.27. 4 면) 특히 올림픽 행사 중에 한국인과 미국인과의 충돌을 부각시키며 같은 ‘동족 한국인’을 옹호하는 기사를 실었고, 또한 오히려 미국보다는 소련 쪽으로 편승하여 응원하는 한국인을 묘사한 발언을 민족신문에 기사화하였다. 한미 불협화음의 원인은 ‘미국이 남조선 인민을 존경하지 않고 전통을 무시하며 민족적 모욕을 주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미국선수와 소련선수의 대결에서 한국인은 오히려 소련선수를 응원했다는 것이다.

(레닌기치 1988. 10. 5. 3 면) 또한 <레닌기치>는 타스통신을 빌려 한국대학생들 500 여명이 “양키들을 썩 물러가라”라고 외치면서 미국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레닌기치 1988.9.29 4 면). 이것은 이념적으로 미국과 연대하고 있었던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분리하며 민족과 혈연 편향적으로 한국을 수용하고자 한 의미이기도 했다.

고려인과 한국인의 동족애적 함성은 북한과의 기존관계에서 미묘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소비에트 고려인들의 북한과의 친밀도는 이념적 형제국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고려인의 거의 대부분이 이들 조상의 출신이 한반도 중에서도 북한의 함경도라는 점에서 출신의 정서적 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 있었다. 1950 년대 말에 있었던 북한 파견 고려인들에 대한 탄압사건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북한 양국주도의 친선행사로 변함없는 우호관계가 지속되어왔다. 그 한 예를 보면 카자흐스탄 친선협회,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고려인 친선협회 그리고 알마타 시 당위원회에 1968 년 9 월 1 일에서 10 월 6 일까지 한달 이상 북한 건국 20 주년 친선과 문화교류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다.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쿠나예브 이름으로 내려진 지시는 <사회주의 카자흐스탄(Социалистик Казахстан)> 이나 <카자흐스탄 프라우다 (Казахстанская правда)> 등의 신문사 선전부에 알렸고, 또한 주요신문과 행정 단위의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에 북한의 경제적 문화적 위업에 대해 선전하도록 지시하였다(김 G. 외 1995, 260, 261). 이러한 문화행사는 공산주의 종주국 구 소련과 형제국 북한이 이념과 체제적으로 공조하고 있다는 강한 외부적 결속의 틀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서울 올림픽 이후에 고려인들은 남한에 대해 이례적이고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북한과의 기존의 우호적 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소련 음악가 남 류드밀라는 한국방문의 감동을 눈물로 이야기하면서도 북한의 제13차 세계청년 및 대학생축전에 고려인이

초대받았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 축전에 초대되어갔다면 마찬가지로 서울 올림픽에서 받았던 만큼 환영받았을 것이다’라는 멘트를 빠트리지 않았다(레닌기치 1988.10.15. 4면).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북한에 다녀온 방문소감에서 예전의 찬사보다는 ‘북한이 소박하고 질서정연하지만 살기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소련이 낫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하면서 형식은 우호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낙후된’ 의미의 부정적인 요소를 담는 표현도 있었다(레닌기치 1988.11.29. 4면). 이러한 북한에 대한 애매한 표현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폐쇄적 정책에 대해 비난까지 하는 것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즉, 북한체제의 거주이전 제한의 실정을 폭로하는 내용인데, “50년 전에 스탈린 치하에서 소련공민이 당했던 방식이 북한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고려인 작가의 단편소설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레닌기치>를 통해서 폭로되었다(레닌기치 1990.3.3, 4면).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이례적인 폭로는 이 단편소설의 연재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로 그쳤는데, 이러한 사태의 의미는 고려인 집단 내부에 이 소설연재에 대한 반대적 의견을 가진 고려인들이 압도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소설의 작가는 고려인 집단 내부에서 그 동안 반복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북한 출신의 소련 망명 고려인이었다.

이렇게 올림픽과 함께 친한의 분위기를 타고 불거진 북한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 반복적 인사가 고려인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북한에 대한 모국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이다. 아버지의 고향이 있고 친척들이 있어 1987년 북한을 방문한 고려인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1887년경 나의 할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만 연해주로 건너왔고, 북한에 삼촌, 동생, 누이가족들이 살고 있었으며, 북한에 친척들이 아주 많다. 평양가보니 지하철도 잘 만들어져 있었고, 김일성 동상도 크게 지어놓고, 모란봉, 역사박물관, 망경대, 김일성 고향 등에도

갔는데 정말 잘해 놨더라. 북한에서 뽕술과 맥주가 최고의 맛이였다. 그런데 87년 당시 북한 상품들 보다는 소련 것이 더 나았다. 북한 주민은 참 힘들게 살고 있었어. 쌀은 못 먹고 강냉이 죽 먹고 있었고, 짐치, 장 이런 것은 다 배급 받아서 먹는다. 북한방문 했을 때 오래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 잘 때도 여러 사람같이 자니까 화장실 갈 때도 사람을 뛰어넘고 가야 했던 불편이 있었다. 쌀도 다 떨어지고 없는 것 같았고, 가져간 선물도 모자, 옷, 시계 12개 가져갔는데 모자랐다. 나도 월급 받고 생활하는데 많이 준비할 수 있다. 사람 만나면 더 줄 선물도 없고 해서 20일 동안만 머물다가 왔다. 나는 외국에서 온 손님으로 간주하여 북한 당국에서 하루에 쌀 500그램씩 한달 치를 내 몫으로 배급 받았다. 부족한 선물은 돌아와서 소포로 두 박스를 북한으로 보내주었다(인터뷰 2011.5.23).

그는 모국의 향수를 잊지 못했던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르며, 지금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말하고 북한방문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고려인들의 모국방문의 발길을 끊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북한방문을 했던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고국방문을 대신한 것이라고 했다. 반체제인사로 유배의 경험을 가졌던 자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원했던 북한방문을 이루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또한 북한의 어려움은 이들에게 모국의 의미는 점차 희석되고 있음을 보였다.

소비에트 말기 고려인에게 서울 올림픽의 성과는, 양분된 이념구도와 조국의 분단의 그늘에서 거주국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학습되고 각인된 긴 억압적 이분법의 구도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들은 북한을 비난하지도 않지만 북한으로부터 인용하는 남한에 대한 부정적 강성비난을 예전처럼 그대로 자신들의 의견인양 모사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며 한국을 배려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에서도 보이고 있었다. 한국이나 한국사람을 칭할 때 북한식 그대로 ‘남조선’, ‘남조선 인민’이라 불렀지만 민족신문에 ‘한국’, ‘한국인’이라 표기하며, 한국식 표기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었다.

<레닌기치>의 올림픽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소련의 대승리’를 찬사하면서도 개최지역 서울에 대한 예의와 감사를 표현했고, ‘우리의 염원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라는 문구에서는 남북한 분열의 안타까움과 한민족이 진정으로 화합하고 하나되기를 기원하였다(레닌기치 1988.10.4. 4면). 올림픽 이후 더 이상 모국과의 관계를 차단했던 이데올로기는 힘을 상실해 갔으며, 남한과 더욱 왕래가 잦아지고 우호적 공간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려인 사회에서 한국은 새로운 조국으로 포용되고 있었다.

### ‘출세의 방해물’에서 ‘민족의 재산’이 된 민족어

서울 올림픽 때 고려인 예술인이 ‘민족상봉’의 감동적인 무대에서 가장 큰 문제로 느낀 것은 민족어를 구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한국방문 기간 동안 행복과 만족감을 느꼈다고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어를 몰라 통역원을 썼다는 사실을 가장 수치스럽게 기억하고 있었다. 고려인 중에 나이든 세대에서 고려말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인과의 소통은 거의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고려인은 자신의 고려말이 ‘유창하다’하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연구자와는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주로 평양말이라고 쓰이는 고려말은 연구자가 북한말에 익숙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려말을 좀 구사한다는 고려인들과의 대화에서 순조롭지 못하였다. 이것은 고려인이 모국어를 구사한다 해도 이들의 고려말은 이미 모국어의 원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고려인들에게 민족어는 사할린 출신과 극소수의 80세 이상의 노인세대를 제외하고는 민족어는 사장된 언어이다.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한민족 언어를 하는 사람을 보려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나 대학교에서만 구경할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이렇듯 민족어 문제는 고려인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인 거의



대다수에 해당되는 문제로 더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서울올림픽과 함께 고려인 사회에서 갑자기 등장했던 ‘민족 뿌리 찾기’ 운동의 분위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확산된 것은 민족어 부활의 문제였다.

고려인의 민족어 상실은 이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해온 가치와 문화가 모국 귀속적인 것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미 대륙 고려인들에게 자신들의 민족어를 잃어버리게 된 가장 큰 전환점을 강제이주 직후 원동에서와는 달리 민족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 시기에 민족학교는 소련일반학교로 전환되면서 민족언어가 고려인 민족에게 제 2외국어 같은 부수적인 언어가 되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민족어 자료 중에서 레닌을 위시한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가들에 대한 내용의 책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처분 대상이 되어야 했다. 민족학교가 소련 일반학교로 전환되기 이전에 실제 민족어 전용학교를 운영할 여건도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즉, 강제이주로 한인이 각기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었고, 고려인 탄압과 함께 적은 규모의 학생, 교원부족, 모국어 교과서 부재, 이중언어의 부담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강제이주와 함께 온 이러한 모든 불리한 상황은 이주 고려인들이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민족어와 점차 등지게 하였다. 이것은 강제이주 전에 연해주에서의 항일운동을 하며 민족학교와 민족단체, 민족군대 등 왕성했던 민족적 활동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이들에게 모범 소비에트인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데 민족어는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업무에서 소통되었던 유일언어는 지배언어인 러시아어였다. 소비에트 언어인 러시아어를 못한다는 것은 소속 소비에트 사회에 진입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였다. 더군다나 특별이주민의 신세로 거주에 제한을 받았던 부자유는 더욱 당당한 소비에트인으로서 소비에트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열망에 불을 지폈다. 철저히 소비에트인이 되는 것과 소비에트 언어의 선택은 대안이 없었던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올림픽 이후 거세어진 민족부활운동의 바람을 타고 민족어와 단절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과거는 자아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민족어를 상실한 것은 자신들의 의지부족으로서 극한의 상황을 맞았을지라도 이를 지속시키고 살려내지 못한 것은 잘못으로 지적되었다. 이들의 민족어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고려인 자식들은 강제로 민족어가 금지된 적은 없으며 자신들이 민족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 당시 어차피 자라나는 세대들은 러시아어를 하지 않으면 교육도 받을 수 없고 당원도 못되며 출세할 수 없다는 실용적 측면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므로 고려인 자식의 학부모들이 민족어 학습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편지를 (당국에) 썼다 (강상호 <레닌기차> 1988.11.18. 4면).

위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글이 당시의 문서에서도 발견된다. 1955년 10월 24일 고려인 밀집지역 탈디쿠르간(Талдықорған)과 크즐오르다(Қызылорда) 주당국에서 제안되었던 모국어 교육에 대해서 고려인 학부모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전체과목을 모국어로 교육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중앙부서에 보냈다는 문서가 있었다 (Мен Д. 외 1998, 296) 사실 모국어 교육의 반대에 대한 고려인 학부모의 편지는 강제이주 직후보다는 후르시초프시대의 등장 이후에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스탈린 사후 그의 민족탄압정책에 대한 비판이 노골화되고 민족어 교육제한이 완화되어 학교에서 민족어 학습비중을 높이는 배려를 했지만 이미 러시아어 위주의 교육을 받아왔고, 대학 입학시험을 앞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민족어 비중을 더 높여 교육한다는 것은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후퇴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1940년 4월 8일의 카자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록에서 ‘한인, 위구르인, 따따르인 등 소수민족 밀집지역의 학교에서 저학년(1~4학년)은 모국어와 노어로 교육하고, 고학년(5~10학년)의

경우 노어와 외국어를 한다'는 방침에서 보면 고려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언어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Мен Д. 외 1998, 292). 그러나 고학년으로 가면 이미 모국어는 교육이 단절되었고, 러시아어로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진학 경쟁에서 처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러시아어에 더욱 비중을 두어 공부시키려 했던 것이 학부모의 입장이었다. 또한 당국에서도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려인 학생들의 2개국어(러시아어, 모국어) 부담을 줄이도록 협조함으로써 모국어에 대한 기회는 더욱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모국어와 러시아어의 학습비중의 논란은 사실 고려인 밀집지역이었던 크즐오르다나 탈디구르간 주에서만 거론되었고, 타지역 각처에 흩어졌던 고려인은 이미 선택의 여지없이 러시아어 교육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다 (Мен Д. 외 1998, 29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비에트 고려인의 언어적 동화는 거주국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기본 수단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족어 부활론이 거세어진 상황에서는 이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민족어에 대해 의지만 있었으면 민족어의 명맥은 유지될 수 있었던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민족어를 외면한 자신들을 '민족어 거부자'로 묘사되었다. 민족어에 대한 교육은 흐루시초프 등장 이후 민족어 비중을 강화한 교육의 기회가 다시 왔지만 민족어 학습방법과 교재개발에 힘쓰고자 했던 일부 교육자들만 반응했고 전체적으로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것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출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민족어는 일부 민족교육자의 전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에는 고려인 학생이나 성인들 등 모든 연령층에서 실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 어제의 무용지물의 모국어가 이제 소중한 민족의 재산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레닌기차>에서 민족어 부활론에 편승하여 고려인 지식인들의 민족어에 대한 가치가 다음과 같이 새로이 정의되고 있었다.

“자기민족의 언어, 문화, 전통을 잘 모르고서는 진정한 소비에트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라고 할 수 없다.” (유 게라썸, “재소조선사람들”, 레닌기치 1990.3.173면)

“핏줄은 같다고 해도 언어가 다르면 온전한 의미에서 동족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며, 어느 민족이건 조상들이 쓰던 말과 글을 모르고서는 자기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 (리창달, “언어는 민족문화발전의 기본수단이다”, 레닌기치 1989, 8.24면)

“자기의 문화와 언어를 회복하고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후대들은 반드시 현 세대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될 것이다.” (김기성, “독자의 상념”, 레닌기치 1989.8.104면)

거세어진 모국어의 바람은 모국의 전통과 더욱 격리되어온 고려인 젊은 층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은 그 동안 민족어를 일부 나이든 조부모 세대의 전유물로 취급하며 모국에 대한 어떠한 향수도 없었던 더욱 러시아화된 세대였다. 한 젊은 고려인 학생은 이제 민족어와 민족문화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며, 민족어 학습의 길이 없는 것을 한탄하며 민족신문에 다음과 같이 투고하였다.

독자의 편지: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는 카자흐어를 공부합니다, 독일어 학습(구텐 아벤) 등의 방송을 자주 보고 있다. 공화국에 사는 조선사람들도 카사흐 TV 방송국에 조선어학습시간을 조직해야하고 전체조선사람들에게 조선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역사, 전통, 풍습, 등을 선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략>.. 쓰련에 거주하는 조선사람들은 차차 동화되어 지금의 젊은이들은 조선말을 전혀 모르며 조선역사, 문화, 전통, 풍습, 말조차 할 형편이 못됩니다. 조선사람들의 처지는 카사흐인이나 독일사람들의 처지보다 훨씬 못합니다. 이 방향에 신문사 일꾼들이 힘써 줄것을 당부합니다(알마아따 제54중학교 9학년 웨반 강 블라지미르) (“독자의견”, 레닌기치 1990.3.2.4면).

고려말 방송이 198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주 당 몇 시간에 그쳤고, 그 내용 또한 민족적 색채를 띠는 것이 아니라 민족신문처럼 민족어 번역수준의 소비에트 기사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 동안 민족어 가치의 하락은 민족어신문의 구독률에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민족어 신문 구독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데 고려인 독자의 구독을 자극하는 말로서 ‘사실상 조선신문을 안보는 사람은 러시아 신문도 안보는 사람이다’ 라는 편찬을 주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 신문 보면 다 아는데 뭐하러 조선신문을 보나’ 라고 생각하는 고려인들이 있다면서 그럴 때는 ‘<레닌기치>에는 러시아 신문에 없는 조선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난다’ 라고 반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일부 고려인 지식인 중에 민족어 찬양론자에서 나온 말로 치부될 뿐이었다.

서울 올림픽이후 민족어 부활운동에서 고려인의 의지는 우선 민족어에 대한 일반 고려인들의 접근성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족신문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서 나타났다. 민족어를 모르는 고려인에게 민족신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민족어의 기초가 전혀 없는 젊은이들에게 ‘조선말을 배우자’라는 신문의 지면에 러시아어로 설명하는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 외에도 1989년 1월 25일부터는 민족신문에 러시아어 지면의 부록을 만들어 일부 고려말 구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민족신문을 구독할 수 없었던 러시아어 구사자를 배려하는 방법으로 선회하였다. 민족신문도 내용적으로도 많은 탈바꿈을 시도하면서 독자의 실제적인 접근과 관심을 유도하였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민족극장의 젊은 배우들이 민족예술도 러시아말로 표현하는 데에 있었다(레닌기치 1989.1.20. 1면). 강제이주 1,2세대 이후의 극장배우들은 민족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젊은 배우들이 주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형식은 민족이었지만 러시아어로 표현되는 민족예술은 소비에트 사고를 가진 고려인 청중에게 소비에트

예술이 전달되는 것이나 다름 아니었다. 당시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에는 몇 개 안 되는 민족전용극장으로서 위구르, 러시아극장이 있고 또한 고려인 극장이 있다는 것이 큰 자랑이었는데 민족어의 명맥이 끊어진 민족극장은 그 가치가 많이 손상되었다는 자각을 하였다 (레닌기치1989.2.3. 4면). 최근 고려극장에서 연구자가 관람한 바에 의하면 모국어로 상연되는 민족극들이, 청중이 내용의 흐름을 모르면 이해와 소통이 어려운 정도의 어색한 모국어가 구사되고 있었다. 물론 연구자가 한국말에 익숙한 부분도 있고, 현지의 고려말은 함경방언이 많이 섞여 있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국어를 모르는 배우들이 모국어 대사를 외워서 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원래의 모국어가 외국어처럼 되어버린 고려인들에게 민족예술은 뿌리를 상기하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지만 보편적 관심과 흥미를 끄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민족극장인 고려극장은 강제이주의 혼란기에도 쓰러지지 않고 그나마 민족예술의 혼을 이어갔다고 고려인들은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작가들로서 조명희, 태창춘, 연성용 등의 민족작가 이후 세대는 민족작가라기보다는 소비에트 작품을 쓴 소비에트 작가로 불리어졌다 (정상진, 20). 2007년 현재 한 고려인 작가는 중앙아시아 및 카자흐스탄 문인협회 회원들로서 정장길, 이정희, 최영근, 남경자, 정상진 5명이 있는데, 이들이 유일한 민족어 작가들인데 앞으로 이들을 이어갈 후배들이 없다고 한탄하였다(위의 책, 20).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고려말 작가 5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할린 출신 고려인으로서 출신별 민족 언어보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민족어에 대한 자각은 1985년 소련 공산당 총서기에 고르바췌프가 취임하면서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고려말 방송부가 탄생했고,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국립사범대학에 고려과가 신설되는 계기로 조금씩 일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 이후로는 민족말 학습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자가 늘면서 1988년 9월1일

카자흐스탄 S.M. 키로바 국립대학교 기자학부에 조선어반이 신설되었다(레닌기치 1989.1.25. 3면). 이것은 당시 독일어, 위구르반만 운영되고 있던 것에서 조선어반이 추가로 운영된 것이다. 88년 10월 22일에는 조선말 방송프로그램에 시사보도위주로 하던 것에서 조선어 학습시간이 추가되었다(레닌기치 1990.3.7. 4면). 올림픽 직후에는 고려인 사회의 각계에서 민족어 재생운동이 절정에 이르렀고, 1990년대에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문화중앙이 설립되어 민족어교육이 이루어졌으며, 1991년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타를 시초로 독립국가연합국에 점차 한국교육원들이 탄생하여 모국어 학습기회는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민족적 색채를 띠는 것이 부르주아적이며 반소비에트라고 규정하며 탄압받아야 했던 시대의 민족신문인 <레닌기치>의 경우도 단지 민족말 형식의 체제선전의 번역지로 머물렀던 역할에서 큰 전환점을 맞았다. 체제와 이념의 폐쇄적인 틀 내에서만 허용되었던 이전의 사회주의 승리와 레닌 사상의 찬양, 집단농장 콜호즈의 노동생산성을 고무시키는 당 선전 일변도의 내용에서 한국의 서울올림픽 소식과 함께 민족문화와 전통을 이야기하는 지면을 늘여갔다. 민속놀이, 전통요리, 촌수와 호칭, 고려말 학습 등의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선보이고 한국의 시와 한국문학을 곁들이며 민족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새로이 매기고 있었다.

서울 올림픽 이후 고려인들의 민족 주체적 목소리는 더욱 거세어지고 고양되어갔다. 자신들의 말과 전통의 상실은 스탈린 개인숭배시대에 운명적으로 일어났던 일로 여기면서도 반성과 책임이 따라야 함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이들에게 민족어 회복의 의미는 단순한 언어의 회복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문화의 꽃을 피웠던 연해주 시절이후 반세기 이상 단절되었던 과거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 ‘사할린스키’ 해방의 의미

세계 냉전과 조국분단의 일그러진 역사에 의해 소련의 고려인들은 자신의 조국을 공산주의/자본주의, 북한/남한이라는 이념구도로

바라보았다. 남한이 적국으로 간주되어왔고 남한출신들이었던 ‘사할린스키’는 출신의 콤플렉스가 작용하였다. 민족문화의 복귀운동과 민족어 상실에 대한 반성, 그리고 한국이 또 하나의 조국으로 수용되는 등 일련의 변화는 고려인 사회내부에서 남한출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해 왔던 ‘사할린스키’와의 팽팽한 긴장구도를 흔들었다. 이것은 또한 민족내부에서 언제나 당연시되던 ‘사할린스키’에 대한 차별구조의 약화나 해체, 그리고 그 구조 속에 구속된 ‘사할린스키’의 해방의 가능성을 말한다.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남한에서 열렸다는 사실과 소련과 남한과의 관계발전은 사할린 출신 고려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었다. 사할린 출신의 부모세대에서 ‘꿈’으로 그쳐버렸던 모국방문이나 영주귀국으로 모국행이 이제 현실화되었고, 자신들이 지켜왔던 모국적인 요소들이 더 이상 천대와 멸시를 받을 이유와 근거도 약화되었다. 사할린 정착초기에 소비에트 언어를 못 알아듣고 소련식 체제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할린고려인에 대한 연해주 출신들의 고정관념은 소비에트인으로서의 ‘함량미달’, ‘비천한 출신’, ‘일본인 성격’이라는 변하지 않는 진실 같은 것이었다. 이제 한국과의 소통이 가능해진 변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고정된 이미지와 차별의 틀은 무의미해지며 ‘사할린스키’에 더 남아있던 민족적 유산이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뀌며 두 동족의 힘은 반전되었다.

‘사할린스키’는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내에서 알려진 민족본명을 주로 썼지만 사실상 직장내부에서 통용되는 러시아식 통명을 이종으로 지니고 있었다. 그 이유는 민족본명을 사용하는 것은 곧 ‘나는 사할린스키요’ 하며 알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연해주 출신이 소련사회의 똑 같은 구성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러시아식 개명을 선택했듯이 같은 맥락에서 사할린스키도 직장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식 이름을 선호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할린스키에게 이중이름의 사용은 고려인 다수 집단에게 사할린스키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했다.

사할린 출신이 외부적으로 통명을 사용하여 출신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은 대륙 고려인들이 걸어온 길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연해주 출신은 러시아인을 모방하여 아무리 소비에트 모범 구성원이라 자부해도 결코 지배민족 러시아인과 달라야 했던 숙명에서, 차선책으로 타민족이 볼 때 토착민인지 고려인인지 민족적 구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 콧수염을 달았던 것도 고백하였다. 사할린스키의 러시아식 통명사용이 민족내부의 출신 구분을 은폐하고자 했다면 연해주 출신의 콧수염은, 물론 다른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민족외부에서 민족소속을 숨기고자 했던 의도도 있었던 것이다. 사할린스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식 이름으로 직장에서 되도록이면 차별적 상황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할린스키'들이 민족본명사용을 숨기고 꺼려왔던 구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민족본명이 자랑스럽게 되었다. 당시 한 사할린스키는 자신의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개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연구자 앞에서 자랑하였다. 모든 상황의 역전은 사할린 고려인에게는 정서적 조국으로 여겼던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 잔치는 자신들의 출신의 족쇄를 해체하는 마법과 같은 것이었다. 이 마법의 힘은 항상 '이방인'으로 취급받으며 주인의 자리에서 우위를 점했던 연해주 출신 고려인 앞에서 당당한 목소리도 낼 수 있게 했다. 고려말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선어 방송국'에 일했던 사할린 출신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흥분되었던 기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TV를 통해 17일간 내내 올림픽 중계를 지켜보았다. 올림픽 보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모른다 (세미나, 2008.7.14).

한국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서울, 부산에서 운동(경기)하는 거 보았고 가지는 못했지만 상상으로 푹 빠졌다. 올림픽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고려인 아이들이 방송국으로 찾아왔다. 올림픽은 못 본 사람도 많지만 아이들이 많이 본 것 같더라.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왔는데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칠판, 책 아무 것도 없었다. 아이가 분필을 갖고 왔고 문을 칠판 삼아 가르쳤다. 소문이 나서 고려인 아줌마들까지도 가르치게 되었다. 우리 사할린출신들은 우리말을 그대로 구사하지만 큰땅치들은 우리말을 잊어버렸다. 큰 땅치가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도 우리 사할린 출신들이 한국말도 러시아말도 잘했기 때문이다. 1991년 알마타 한국교육원이 설립되었을 때 큰 땅치는 한국인과 말할 때 통역이 필요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겨우 할까 말까 하였다. 그때 큰 땅치들은 우리말이 유창한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나고 질투를 하기도 했다 (인터뷰 2010. 6. 14).

당시 연구자는 알마타에 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그녀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세미나의 발표장에서 토해낸 그녀의 서울올림픽에 대한 감동이 무얼 의미하는지 간파하지 못했다. 단지 소련치하에서 오랫동안 모국과 인위적 단절을 겪은 피억압자의 서러움 정도로 읽고 있었다. 그녀가 서울올림픽 당시의 ‘자랑스러운 조국 한국’에 대한 감동을 눈물로서 회상하며, “나는 고려인이요!”하며 그제서야 길거리에서 말할 수 있었다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귀속사회에서의 지배민족이나 타민족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눈물의 의미는 고려인 다수집단을 향해 ‘나는 사할린스키요’라고 외치는 것이었고, 민족내부에서 출신의 억압으로부터 나온 해방의 눈물이었다.

대륙 고려인을 대상으로 ‘모국어 가르치기’의 열정에서 사할린스키는 자신들을 비난하며 소외시켜온 이들에 대한 힘의 반전을 맞보았다. ‘우등한 존재’는 “열등한 존재” 앞에 “모국어를 못해서 한국동포들이 묻는 말에 대답은 못하고 웃기만 해서 참 부끄러웠다”는 고백을 했으며, 이 말은 소수집단내부에서 웃음거리로 회자되는 말이었다. 이것은 집단내부에서 당당하던 연해주 출신은 ‘모국어를 못하는 고려인’이라는 약점을 가지게 되었고, 모국어를

못하는 것이 더 이상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으로 반전되었던 것이다. 사할린스키의 승리감은 민족어에만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전통과 의례도 잘 몰라서 전통명절에 상차리는 법과 절하는 법을 사할린스키 자신들이 연해주 출신들을 가르쳤다는 사실도 사할린스키 스스로 더욱 자부심을 부여하는 일이었다.

큰땅배기들은 러시아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모임에서 우리 옛 가요, 우리 타령을 부르고 놀았다. 지금은 서로 결혼도 하고 달라졌다. 전에 큰 땅 사람들에게 왜 우리 명절을 안 지내는가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한식날 보니까 큰땅배기들이 성묘에 더 많이 오더라. 큰땅치도 우리명절도 지내고 공동묘지도 갔다 오고 추석, 돌, 환갑도 지낸다. 요즘 절하는 법도 서로 가르쳐주고 지킨다. 부모들이 하나까 자녀들도 배우게 되고 영향을 받는다. 큰땅치 사람들은 한국적 냄새가 나는 음식을 잘 안 하더라. 모든 나물에 물기름(식용유)을 넣는다. 양배추 김치도 물기름 넣고 질료니바자르(질료니 종합시장)에서 파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배워서 (우리식으로) 하더라고 큰 땅치들은 시리떡(시루떡)은 할 줄 알지만 송편을 못 만들었고 돌 행사 이런 것도 모르더니 지금은 돌행사도 하고 백일 때에도 때때웃도 입히고 그런 행사 있을 때 우리를 초대하기도 한다.

조카 결혼할 때 큰땅치 남자 쪽에서 그렇게 반대에 부딪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식구들이 후회했고 지금은 조카딸을 그렇게 좋아하더라. 조카 시댁식구들이 “큰 땅여자들도 많은데 왜 사할린치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냐고 반대를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무슨 차이가 있다. 다 같은 고려인인데 눈이 멀어 반대를 많이 했다. 지금은 조카한테 배우는 것도 많다.”라고 고백을 하더라. 그 시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예절 바르고 공손하고 한국음식을 잘 해내는 며느리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인터뷰 2010. 6.14).

소비에트 고려인의 경우 민족전통은 민족학교 폐쇄와 함께 왔던 빠른 민족어 상실에 영향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관습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었다. 콜호즈 단위로 집단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민족적 의례들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다. 특히 회갑이나 돌, 출산의례, 혼례 등의 통과의례는 소비에트식 절차가

가미되어 다소 변형된 형식이기는 하지만 지내고 있었다. 통과 의례보다는 더 간편화된 절차로 지내고 있었던 세시풍속도 그 흔적이 유지되고 있었다. 주요 명절에는 설날, 한식, 단오 그리고 추석이었다. 그러나 거주 제한이 해제되고, 콜호즈의 위축과 함께 1960년 이후 도시로 고려인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맞았고, 민족의례는 도시생활에 맞게 변형되고 잊어갔다. 더군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 젊은 고려인들은 언어는 물론 러시아식 문화에 더욱 흡수되며 결혼이나 회갑도 러시아식 피로연으로 대체되었다. 도시 대다수 고려인들은 이렇듯 소비에트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옛날의 전통적 의례행사나 관습은 사할린 출신 고려인과 시골 거주 고려인들이나 남아있던 유물 같은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두 고려인 집단간 가장 민감한 사항이었던 결혼에서 서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더 자유로워졌다. 특히 연해주 출신 쪽에서 미래의 배우자로서 어떤 결함과 결격을 가졌다는 이유가 아니라 단지 사할린 출신이라는 이유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전쟁도 과거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사할린 출신 고려인들은 한국과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언어적으로 소통이 가능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할린스키는 자신들이 ‘표준어’를 구사하는 데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내었다. 자신들이 구사하는 모국어는 일반 고려인들이 구사하는 모국어와는 크게 차이가 나며 한국어 표준어와 가깝고 조선어 방송을 할 때 많은 부러움을 받았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사할린 출신이 구사하는 고려말은 대부분 함경도 방언으로 한국인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연해주 출신의 말과는 차별화된 민족어이며, 모국어 중에서도 남한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다. 실제 한국과의 중계역할에서 연해주출신의 모국어 구사자는 전무한 실정에 있고, 갈수록 한국어 실력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용적 통역과 번역의

활동가는 사할린스키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모국과의 공식적 채널로 인정되는 고려인협회나 민족신문사에 모국어 구사자로서의 위치를 구축하였다.

뛰어난 모국어 구사실력이 고려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역전의 상황은, 그 옛날 자신들이 러시아어를 못해 소비에트 체제를 이해 못하였고 사상 교육대상자로 지목되어 연해주출신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했던 수모와 서러움을 씻게 하는 것이었다. 사할린스키의 연해주 출신으로부터 받았던 억압은 실제 이들의 나래티브에서 드러내는 언어나 문화적 차이보다는 서로를 향했던 부정적 감정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즉,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차이보다는 과거에 경험했던 우월감이나 수모와 수치심의 재현이기도 했다. 이들의 대립적 나래티브에는 러시아말을 잘하는 러시아인 성격을 지닌 ‘소련사람’, 일본말을 잘하며 ‘일본인 같은 사람’, 한국말을 잘하는 ‘내지치’라는 성격과 문화적 차이를 거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적 이미지 속에는 과거에 차별받았던 경험과 ‘소련인 행세를 하는’ 연해주 출신, ‘증오의 대상인 가해자이며 적국 일본인 성격 같고, 타파해야 할 적국인 남한 출신’의 사할린 출신이라는 서로의 멸시적 시선이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할린스키가 이미 소비에트체제에 체질화된 이후에도 이들을 향한 차별적 이미지는 거두지지 않았다. 연해주 출신은 심지어 사할린 출신을 가리켜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굽혀 보이며 비개방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의 ‘일본인’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강자의 약자를 향한 고정적 시선과 증오심은 강자 앞에 주체적 목소리를 드러낼 수 없었던 약자에게 솟아나는 분노에 대한 강자의 대응감정이며 인식적 폭력이었다. 이러한 폭력의 저변에는 자신들의 조상이 피흘리며 일제에 항거하며 싸웠던 명예로운 독립운동가로서의 우월감이 있었고, 일본을 향한 적대감의 기억도 깔려있었다.

사할린스키의 해방은, 억압하는 강자와의 본질적 차이에서보다 ‘정형화된 이미지’로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받는 감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였다. 이들의 일상을 지배했던 대립적 감정과 각인된 차별적 구도는 올림픽으로 추동된 ‘하나의 조상’, ‘한 핏줄’이라는 ‘원초적 감정’으로 흡수되었던 것이다.

두 집단간에 긴 분쟁은 이제 과거로 이야기되며, 사할린 출신들은 대륙 고려인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것도 말하고 있었다. 관리자 위치를 접해야 했던 대륙 고려인이 고압적인 자세로 사할린 출신 자신들을 다루었다는 원망은, 사할린 출신이 그렇게 위치 지워져야 했던 억울함과 분함이 대륙 고려인에게 투사된 것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은 최악의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었다. 일제 노무자로 동원되어 갖은 고생하다가 전후 자신들을 외면하고 일본인들만 빠져나간 상태에서 모국귀환도 못하고, 갑자기 생소한 공산주의 나라 소련에 편입되어 정상 공민중도 아닌 무국적 거주증 즉, ‘말패스포트’를 지급받아 꿈작없이 간혀야 했으며, 사상 불온자라 하여 마치 ‘일본군의 포로’같이 다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원망할 일본인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새로운 지배권력자를 향한 저항도 무의미한 것이었다. 이들의 억울함은, 자신들에게 개입되었던 거주사회의 또 다른 ‘약자’ 대륙 고려인을 향했던 것이다.

마테리코브스키(대륙고려인)들이 자신들은 소련사람이고 우리는 일본사람으로 보았다. 큰땅사람들은(대륙 고려인) 높은 직위에 있었고 우리는 월급도 적게 받고 차별하여 서러웠다. 누가(고려인인 우리가) 누구(같은 고려인) 밑에 들어가야 하는 게 억울했다. 특히 소련 케지비에서 우리를 일본스파이라 하여 많이 잡아갔을 때 큰땅사람들을 많이 원망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큰땅사람들도 소련당국에 지시받고 와서 일한 것 아닌가. 갔다. 우리를 케지비에 밀고했던 스파이가 큰땅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중에도 없었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나 (인터뷰 2011. 6.12).

사할린 출신은 피지배적 위치에서 대륙 고려인을 향한 원망과 원한

같은 부정적 시선을 보냈던 것은 대륙 고려인에게 꼭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다. 한 사할린 출신은 사실 당시 사할린 고려인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소련당국에 고자질한 사람이 ‘큰땅치’일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오해일 가능성도 있다고 자백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큰땅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관용적인 자세도 보였다.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할린 고려인들은 연해주 출신에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자 자신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이들의 조상은 모두 강제적이거나 반강제적인 억압적 환경에서 고향을 떠났던 조선인이었다. 사할린에서 모국행을 위해 귀향의 보따리를 풀지 않고, 소련 국적을 거부하며 모국적인 생활풍습을 고집했던 사할린 고려인의 모습은, 연해주에서 러시아 국적을 거부하고 집단적 전통적 생활을 유지하며 민족적 단합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자신들의 모습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또한 사할린 고려인들이 ‘일본 스파이’라 하여 감옥에 가게 된 것은 자신들이 과거 극동에서 ‘일본 간첩’, ‘불온민족’으로 몰려 강제이주를 당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 연해주 출신이 소비에트 사회에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존재의 기반을 다져왔듯이 대륙으로 들어온 사할린 출신 고려인도 소비에트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70년대 사할린에서 대륙 카자흐스탄으로 나와 당에 입당했고 앞길이 창창 했는데 소련이 해체되어 당시 큰 실망을 안게 되었다 “는 한 사할린 출신 지식인의 증언을 통해 사할린 고려인의 대륙행과 입당은 출세의 수순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과정은 사할린 출신이나 연해주 출신이 똑같이 걸어왔던 길이었고 단지 시간적인 차이만 있었을 뿐이었다.

연해주 출신이 타자화했던 사할린 출신은 일방적 피해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귀속사회의 권력이 이들을 관리하는 자와 관리를 받아야 자로 배치된 것이 약자의 입장에서 불평등 구조로 인식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 두 출신 모두 권력구조에 의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륙 고려인이 사할린에 파견된 것이 시대적 구조에 의한 것이라면 사할린 고려인이 일본국민이 된 것도 선택의 여지없이 위치 지워진 것이었다. 이들이 사할린에서 노동자로 일한 것은 일제의 지시에 의해 파견된 것이었다. 대륙 고려인이 이전에 모국을 떠나 연해주로 월경한 것도 형식은 자발적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할린 고려인처럼 일제의 식민의 그늘에서 강제성을 띤 움직임이었다.

대륙고려인들이 사할린 조선인의 상위에서 군림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치욕을 느껴야 했던 과거는, 소련정책에 의해 소련식 제도를 이식하기 위해 사할린과 북한에 파견되어야 했던 대륙고려인에게도 매우 불운했던 일로 회상하였다(Кант Г. 외 1997, 108). 더구나 강제이주 전후 다수의 고려인 지식인이 숙청되어 사라졌고, 그로부터 10여년 이후 지식인 위주의 수준 높은 고려인들이 다시 원치 않는 재이주를 당한 것은 소비에트 고려인에게 또 다른 탄압으로 받아들였다. 북한 파견자는 한국분단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파견 고려인 수 천명은 당국의 명령대로 사할린에서 동족 고려인을 ‘사상 개조’를 하고 관리해야 했던 것은 권력에 의해 밀려들어간 것이지 대륙 고려인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외부구조에 의해 놓여 있게 된 같은 처지의 집단이고 자신의 일부분이기도 했던 소수를 향한 멸시적 시선과 부정적 감정은 어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처절하게 소비에트인이 되어야 했던 절망의 화살일 수도 있다. 이것은 탈식민주의자 파농이 지적한 종속적 주체화 과정의 부작용으로 생긴 무의식적 콤플렉스와 흡사한 것이다.

호미 바바 (Homi Bhabha)에 의하면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의 ‘흉내내기’는 저항과 전복을 의미하지만, 파농은 이를 종속적 주체화 과정으로 보았다. 모범 소비에트인이 되기 위한 강한 열망을 보이며 이분법의 신화로 사할린 출신을 타자화한 것은 파농의 말처럼 하나의 무의식적 증상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에 의해 지배를 받던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지배문화를 기준으로 우월과 열등, 문명과



야만을 나누는 이분법적 생각을 낳았고, 이 이분법적 신화에 맞추어 지배문화 ‘따라하기’나 ‘흉내내기’가 정당화되었다. 대륙 고려인들은 지배민족 문화의 따라하기 즉, 러시아식 교육체제 내에서 타민족에 비해 고려인들의 높은 교육열, 예로부터 혼혈을 꺼렸던 민족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과의 결혼, 러시아식 작명, 아내의 남편성 따르기 등으로 빠른 러시아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분법 신화 이면에 내재하는 모순이 있고 이로 인한 자기현존을 파괴하려는 신경증적인 소외현상이 있다. 흑인이 적극적인 프랑스언어를 자기언어로 소유하려 하면서 백인과 동일화를 이루려는 욕망 뒤에는 자기 가치를 부정하는 병적 증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파놓은 지적한 것이다.

대륙 고려인이 내부 집단을 타자화했던 우등과 열등의 구조는 그들의 생존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고정관념이었다. 그러나 바바가 주장한 것처럼 ‘우등’의 존재도 실제 안정적이지 않다. 자기 안의 모순이기도 한 것이며, ‘열등’한 존재가 있어서 ‘우등’의 존재가 있었다. 또한 소비에트 사회에 강하게 밀착한 만큼이나 지배민족이 아닌 이상 언제든지 주변화될 수 있는 불안감도 내재했다고 본다. 민족내부에서 ‘우월한 존재’로 유지하게 했던 그 틀은 너무나 취약한 것이었다. 자신을 받쳐주었던 소비에트 체제의 약화와 올림픽이라는 국제 스포츠 축제의 계기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구호 속에 팽팽한 대립구도를 무력화시키며 ‘열등’한 존재의 의미는 소멸되어갔다.

## 2. 역사인식의 차이, 그리고 모국과의 경계

### 과거에 대한 시각차이와 내부갈등

소비에트 고려인은 거주사회에 강하게 동화된 만큼이나 강한 이분법으로 내부의 타자에 대한 차별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했다. 소비에트 권력에 의한 강제이주라는 극단적 처방 앞에 ‘특별 이주민’이라는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어 지정된 주(행정단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주이전 제한의 적용을 받았고, 전쟁에서도

정식군인으로 참전하지 못하고 범죄자나 ‘특별 이주민’들에게 할당되었던 전쟁 동원 노동자로서 혹독한 시련도 감내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파시스트를 무찌르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기를 쓰고 전쟁에 참여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려인 집단농장(콜호즈)에서 당국에 의해 지시된 농업생산 할당량을 초과 달성하는 충성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인으로서 존재하게 했던 체제가 해체되자 ‘과거로의 회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과거 ‘고려인 민족탄압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한 탄원서를 내며 공식적인 소련정부의 사과와 잘못에 대한 인정도 받아내었다. 민족신문에는 고려인 지식인들에 대한 숙청과 강제이주 조치에 대한 비판과 자신들이 잃은 말과 글, 전통관습에 대해서도 찾아야 할 것으로 주장되는 글들로 도배했다. 반면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소비에트시대에 일어났던 탄압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소비에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 동조하는 고려인들도 있었다. 즉, 자신들은 소비에트 체제가 있었기에 발전하였고, 소비에트 체제에 의해 혜택 받은 사람들이며, 강제이주 조치도 탄압이라기 보다는 고려인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여겼다.

강제이주에 대한 긍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고려인이 연해주를 떠나지 않았다면 거기서 일본의 첩보행위에 고려인들을 끌어들이는 일은 계속되었을 터이고, 고려인은 계속 의심받아 살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이다(고송무, 29). 고려인 연금생활자 리 니콜라이는 1937년도의 이주가 왜 고려인에게 잘된 일인지를 설명했다.

물론 정든 원동땅을 버리고 타지방으로 이주해 가기는 누구에게나 섭섭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강제이주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비극과 불행이었다고 하는 것도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 그 당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가?

첫째, 짐은 얼마든지 다 가지고 갈 수 있었다.

둘째, 집, 가축, 터밭, 남은 곡식 값은 돈으로 배상해 주었다.

셋째, 매 식구들에게 보조금을 내어주었다.

넷째, 목적지에 도달하였을 때 지방 인민들은 임시 이주민들이 살 집을 마련해 놓고 마차를 동원하여 가지고 온 짐들과 사람들을 실어다 주었으며 힘이 자라는 대로 도와주었다 (레닌기치 1989. 6. 14, 4면).

그러나 위에서 제기된 강제이주 조치에 대한 정당성의 주장은 강한 반박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고려인들의 의견은 민족신문에 줄줄이 게재되었다.

우슈토베에 사는 강이남: “리 니콜라이은 고려인 청년들이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기타 도시들에서 공부할 권리도, 붉은 군대에 복무할 권리도, 전시에는 조국의 영예와 독립을 사수할 성전에 참가할 권리까지도 박탈당하고 거주지 제한까지 받게 된 것이 좋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비참한 형편에 동정하면서 가능한 도움을 계속 주어온 카자흐 인민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레닌기치 1989. 7.15.4면)

코카서스 지방의 모즈독 (Моздок) 시에 사는 송빈: “존경하는 리동무! 소련, 전 인류가 매장해 버린 스탈린을 변명하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말대로 간첩 몇 명이 있었다고 하자! 그것이 전체 인민을 간첩행위자로 선고하고 강제이주시켜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게 한 데 있어서 변명으로 될 수는 없다. 리 동무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이주 시, 이주 후 죽은 사실을 모르는가?”(레닌기치 1989. 7.15.4면)

이 외에도 하바롭스크에서 송희현은 이 문제에 대해 고려인들의 토론회가 있었던 결과에 대한 보고에서, 강제이주를 옹호하는 일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했고, 왜 부당한지를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다.

며칠 전에 하바롭스크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고려인 부락’에 다녀왔다. 거기에는 1937년 중앙아시아에 이주했다가 거주지 제한령이 폐지된 후 원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거의 30년을 살았던 고려인들이었다. 그 부락의 고려인 100 여명이 모여서 <레닌기치>에 나온 리 니콜라이의 강제이주에 관한 기사를 읽고 토론회를 벌였는데

그 결과의 종합글은 나한테 맡겨져 이렇게 쓴다. 사실을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 원동에서 강제적으로 이주당한 고려인은 어디로 무엇 때문에 가는 지도 모르고 너절한 화물차량에 실려갔다. 리 니콜라이는 자기의 기사에서 강제란 말이 옳지 않다고 썼다. 이것을 반박하기위하여 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려 한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원동 고려인들의 문화중심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시 신한촌에 널리 알려진 스탈린 구락부, 조선극장, 9년제 7년제 학교들이 있었으며, 시내에는 조선사범대학, 8호 10년제 학교가 있었다. 그리고 조선어로 발간되는 <선봉>신문도 있었다. 한인들은 조선말 방송도 자주 들었다. 이런 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에 대한 아무런 설명회도 없이 이주 위원회 위원이 와서 사람들은 모아놓고 이주기간을 정하고 한명당 150루블씩 보조금을 주었을 뿐이었다. 이주기일은 1937년 10월 3일, 5일, 7일, 11일, 13일이었다. 1935년, 1936년, 그리고 1937년에 소련의 여러 도시에 가서 공부하던 사람들은 친척이 어디로 간지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소련의 고려인들은 전부가 소비에트 조국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간첩들, 이류분자들에 대한 경각성이 대단히 높았다. 1937년 고려인 이주는 일본의 간첩행위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존경했던 17차 당대회 대표였던 김 아나파시, 작가 조명희, 우리의 선생들인 박창내, 강병제, 송희, 최호림, 강주익, 리중수, 리중립 등이 현재 죄없이 희생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의 절대다수가 일제 간첩이라고 누명을 썼던 것이다. 실상 한 두명의 간첩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이들 때문에 20만의 한인들을 무리하게 강제로 실어간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레닌기치 1989. 8. 17. 4면)

강제이주 옹호론에 대한 반박은 끝이 없는 듯하다. 이외에도 리 니콜라이가 정상적 이주였다고 증언했던 내용과 반하는 다른 증언들이 있었다. 즉, 짐은 얼마든지 갖고 갈 수 있었다지만 열차 승차시에 일인당 몇 킬로그램씩 제한을 당하였고, 남긴 재산에 대해 보상도 못 받았으며, 목적지에 도착했어도 재이주를 해야했고, 살 집이 없어 땅굴을 파야 했던 이야기들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강제이주 옹호론에 편승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보며, 고려인들이 당시 소련의 외부정세에서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고려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도 말한다. 이 주장은 리 니콜라이의 의견과는 또 다른 측면을 밝히고 있다.

원래 연해주 있을 때부터 고려인들은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일본이 간첩으로 한인을 이용하고 있었다. 연해주에 한인이 밀집해 있어 이로 인해 소련은 일본이 한인이 사는 지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극동이 혼란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려인을 이주시킨 것이다. 극동의 안전과 고려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련이 조치한 것이다. 고려인이 ‘적성민족’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다. 못 믿을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당에 가입하고 높은 직위에 있을 수 있으며, 사할린에 사회주의 체제 수립하기 위해 사할린에 파견했겠나.

이주할 때 화물열차에 사람을 태웠다는 것은 그 당시 열차가 그런 것밖에 없었고, 다른 민족들도 모두 그렇게 타서 이주했다. 수많은 열차가 전쟁을 앞두고 동원되었다. 이주 이후 다른 민족들은 당에서 퇴출을 당했어도 고려인은 당원에서 퇴출되지 않았다. 그만큼 고려인은 신임을 받았던 민족이었다. 그리고 고려인들은 입대신청에도 받아들여졌다. 군대도 갈수 있었다. 거주이전 제한 문제도 당시 집단화 정책을 일환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일정지역 내에 머물도록 했던 조치는 소련전체 인민에게 해당되었다. 오히려 러시아인이나 타민족 보다는 일찍 거주이전 혜택을 받아 부분적이지만 타지방으로 농사지으러 가기도 했다. 나의 조부모님도 1946년 당시 코카서스지방에 농사지으러 가셨다.

고려인 지식인들이 숙청당한 것은 스탈린은 인민을 ‘로보트’처럼 만들고 싶어했다. 고려인들도 당시 똑똑한 지도자 고려인들이 다 제거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도 같은 고려인끼리 밀고하고 배신과 모함을 하였다. 살아남은 자들은 같은 죄없는 똑똑한 고려인들을 밀고하여 살아남았고, ‘바보’들만 남았다”(인터뷰 2010.8.9.; 2011.6.26; 2011.7.4).

위의 주장에서 고려인은 소련권력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민족으로 묘사하며, 일반적으로 ‘적성민족’으로 낙인되어 강제이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위기상황에 어쩔 수 없는 소련의

선택이었음을 역설했다. 그 근거로 실제 1940년대 후반에 거주이전이 허락된 정상 공민증을 받아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한 기록과 증거가 있고, 또 타지역에 흩어져 있던 젊은 고려인들이 군입대 신청이 수락되었던 증거문서도 있으며, 강제이주 직후에 당에서 퇴출되지 않았던 고려인 당간부들의 서류와 당증을 증거로 보이고 있다. 강제이주와 거주이전 제한 등의 극단적인 조치로 고려인이 받아야 했던 시련은 소비에트 권력이 취했던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의 하나였으며 어떠한 민족도 인민도 예외 없이 겪었던 과정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극단적 상황에서도 고려인은 오히려 타민족에 비해 더 대우받은 민족으로 묘사되었다. 강제이주 이후 소련당국에 의해 다른 민족보다 정상 공민증을 더 빨리 배부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당에서 퇴출되고 체포되어 간 사람도 있었지만 계속 당위원회의 고위직에 남았던 고려인이 있었다는 것, 고려인이 원했던 입대도 거부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도 허다하였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려운 위기속에서도 고려인들이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민족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흔적들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이는, 고려인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묘사해왔듯이 소련권력에 의해 ‘적성민족’으로 분류되어 박해를 당하는 고려인이라는 시각을 반박하는 것이며, 또한 고려인의 과거를 언제나 가난하고 언제나 약자의 입장에서 당하고 있는 ‘무능력’한 것으로 묘사되는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나는 2007년 모스크바에서 고려인에 대한 영화 시연회가 있다 하여 초대되어 갔다. 그러나 그 영화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영터리였다. 영화에는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처절하게 가난하게 사는 모습으로만 그렸다.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고려인 영터리 학자의 자료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이다. 연해주 고려인들은 모두 교육을 잘 받았고, 부유했으며, 애국자였다. 일제에 의한 핍박으로 조선의 똑똑한 양반들이 연해주에 망명하여 모였다. 우리 할아버지도 부자였고, 우리 엄마는 비단 옷만 입었다. 원동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연해주 신한촌(블라디보스톡)에는 주요인물 3최가 있었다. 3최는 정교회 신부였던 나의 할아버지 최 이반, 최재형, 최니콜라이 였는데 이 사람들이 고려인 집단을 리더했던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독립운동의 물적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다. 일제치하에서 임시정부는 제일먼저 블라디보스톡에 생겼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그 이후이다.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했고, 그래서 항일 빨치산 운동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 수많은 민족학교가 운영되었고 신문도 제작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모국을 지원했다. 이토오 히루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의병활동도 여기서(연해주) 나온 것이다. 3.1독립운동도 조선에서 목사와 학생들이 조직하고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연해주 민족지도자 이범윤, 최재형, 김경천 이 세사람이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다. 연해주 고려인들은 정말 대단했고 존경받았다.

어떻게 이런 내용은 무시되고 어렵고 가난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지 나는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 시연회 끝나고 나는 지금 영화의 고려인의 모습은 맞지 않으며 대단한 조직력으로 우리 연해주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민족적 업적을 이루어내었는지를 발언하였다. 시연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 나의 의견에 모두 박수를 쳤고 동조를 했다. 거기에는 전 소련의 고려인 연구 학자들이 다 모였었다(인터뷰 2010.6.22).

위의 주장에 의하면 고려인 강제이주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던 고려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고, 그만큼 존경받았던 민족이었는데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련을 당하면서도 한민족사의 하나의 커다란 획을 그으며 민족정신의 꽃을 피웠고, 혁혁한 공을 세웠던 수많은 항일운동가와 민족지도자들에 대한 모습보다는 가난하고 못난 조상으로 부각한 내용의 영화는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해주 한인을 어느 편에서 묘사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시 한인 중에 러시아 국적 취득자와 미취득자, 민족자본가나 지도자들 및 항일무력투쟁의 수장들 등의 가진 자와 소작농을 전전했던 못 가진 한인들의 분열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있다. 러시아 제정 말기의 정치적 양분과 내전으로 고려인들이 어느 곳이든 선택해야 했고, 소속된

반대편은 적으로 간주되며 분쟁과 분열의 역사에 휘말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고려인의 과거의 기억에서 “국내전쟁으로 인해 고려인들 부농과 민족 지도자들은 모두 짜르정부와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 적군에 편승된 고려인들은 가난하여 토지를 분배받기 위해 적군에 뛰어 들었다.” 라고 말해지는 것은 고려인 내부의 분열을 말하며, 민족 지도자 및 독립 운동가는 백군, 그리고 빈농은 적군으로 양분화되어가고 있었음을 말한다. 강제이주를 전후로 순수 지도자들은 말살되었고, 그나마 남은 지식인들이 밀고에 의해 다 잡혀갔다고 한탄한다. 이것은 주로 백군에 편승했던 가진 자들의 ‘억울한 패배’와 살아남은 자들이 소비에트 건설의 공로자로 인정되는 서로 엇갈린 운명의 흔적이기도 했다.

‘고려인 역사가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개탄하는 고려인은, 고려인 지식인 사회에서 주류집단의 반대편에 있음을 말하며, 이러한 갈등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의 주류와 주변화된 비주류의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알마타의 독립 후손가들의 단체를 이끌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주로 알려지고 인정받으며, 단체를 주도하는 대표세력 중에는 순수한 독립운동 지도자 후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었다.

항일 운동가며 민족지도자로 알려진 ○○○, ○○○의 경우는 그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그 당시 순수 항일 운동 지도자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총살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다. 어느 자리에 가서 기록영화를 보고있을때 ○○○는 당시 자기 조상이 총맞아 죽은 것도 아닌데 마치 그 당시 그렇게 희생된 마냥 우는 쇼를 하더라 참 웃기는 것이다. 이들이 왜 살아남았나를 생각해봐야 한다. 첫째, 이들은 주요인물이 아니었다. 둘째, 이들에게는 빨치산 부대도 없었고 투쟁하지도 않았다. 당시 김경천 같은 사람은 대단했던 항일 운동지도자였다. 당시 희생되었던 순수 투쟁가들은 빛을 못보고 있다(인터뷰 2011.6.4).



그러면서 그는 김정권 같이 묻혀 있는 애국지도자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과거 고려인의 독립투쟁에 대한 공적은 내세우지 못했고, 오히려 소비에트 건설의 공로자로 자처하고 선전해야 했던 것이다. 민족 독립운동은 하나의 타파해야 할 민족주의로 여겨졌고, 소비에트 당에서 선전하는 다민족 국제주의와도 어긋나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도 고려인 사회에서 독립군부대를 이끌며 싸우다 희생된 투사의 공적은 매몰되고 소비에트 혁명군에 합류하여 살아 남은자들만 평가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활발한 한국과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과거 러시아에서 독립활동을 했던 애국지사들에 대한 관심이 한국의 기관이나 학계에 의해 부상하면서 더욱 가세되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발굴 작업은 오늘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초대되어 한국방문을 하고 각종 행사를 치르며, 민족 항일운동의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이라는 알마티 독립 유공자 후손사회가 1998년 4월에 결성되었고, ‘이동휘’, ‘고려인 영웅들’ 등의 책들이 출판되면서 후손들에게 독립운동사를 상기하고 재조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단체의 헤게모니를 쥐며,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류의 다른 편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밀려나 있으면서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비주류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려인 자신들의 과거는 각기 다른 스펙트럼으로 보여진다. 스탈린의 강제이주 조치가 민족탄압이었으며 반인륜적인 행위로 비판하며, 이에 대한 고려인의 명예회복까지 인정받았지만, 한편에서는 당시의 억압이 공포스런 기억으로 남아있으면서도 강제이주 조치는 오히려 고려인들을 위해서 잘된 일로 평가되어지기도 한다. 소비에트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지금 일반 고려인들에게 강제이주에 의한 의견을 물으면 자신의 조부모들이 당했던 상황에 대해서 입조차 열지 않는 사람이 많다. 혹은

‘고려인들만이 당했던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으며, 모든 민족이 당했던 일이다.’라고 일축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것은 공포의 함구령과 같은 민족에 의해 서로 생사를 갈라야 했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밀고하지 않으면 밀고를 당해야 했고, 체포된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적대감과 원한 같은 것은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고통스런 기억으로 전수되고 있는 부분이다. 고려인 민족내부의 긴장은 역사적 사건에서 서로 다르게 위치되었던 분열의 잔재이기도 하다.

### 이질적인 모국: 북한 출신 망명가의 애환

디아스포라의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샤프란 (W. Safran) 은 거주국으로부터 소외된 이민집단으로서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갖고 모국에 대한 향수와 강한 연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윤인진, 5) 그러나 구 소련의 고려인의 경우 강제이주 이후 특별한 체제하에서의 귀속사회에 대한 강한 동화와 모국과의 단절의 경험은 모국귀환의 희망을 꺾었다. 서울올림픽이 몰고 온 충격은 구 소련의 고려인을 다시 민족적 회로를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국 한국과의 유대가 강화되는 동시에 고려인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실망과 원망도 함께 하고 있다.

귀속사회의 변화로 인한 전반적인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면서 각 독립 공화국에서는 각기 모국으로 떠나는 타민족의 이민 행렬이 나타났다. 러시아인이 러시아로, 독일인이 독일 본국으로,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떠나고 있었지만 고려인은 모국 북한이나 한국행을 선택하지 못했다. 마음의 고향 북한은 살 곳이 못되었으며, 부국인 남한은 받아들여지는 곳이 아니었다. 이들은 모국귀환을 전적으로 본국에서 지원했던 독일인이나 유대인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귀향지로 그 옛날 선조들이 꿈꾸었던 제2의 고향인 러시아 연해주를 택했다. 러시아 연해주는 선조들의 애착이 묻어있는 곳이며, 현재의

불안을 떨치며 자신들이 가진 러시아 언어와 소비에트 문화는 소비에트의 유산으로 소비에트 삶의 연장이 가능하리라는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 소련은 1991년 4월 “탄압받은 제민족 명예회복에 관하여”(심헌용 1999, 364) 라는 법령의 제정으로 고려인들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고려인들이 원했던 재이주 지원비 등의 실질적인 물질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해주로 돌아가서 다시 정착한 고려인도 일부 있었지만, 많은 난관에 부딪쳐야 했다. 정부의 지원도 없었을뿐더러 귀향지에서 반기는 이도 없었고, 이들이 오랫동안 떠나고 없었던 연해주의 빈자리는 이미 타민족들로 뿌리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고려인들은 오히려 현지인들로부터 배제당하는 입장이 되어 다시 돌아와야만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에서 다시 벼농사를 지으며 정착을 시도한 고려인들도 중앙아시아보다는 벼농사에 더 열악한 기후에 부딪혔고, 그곳에서 자치주를 건설하겠다는 꿈도 모두 허사로 끝났다. 자치주 건설의 희망으로 많은 고려인들이 연해주 재이주를 위한 과정에서 투자를 했다가 피해만 봤던 고려인들도 생겨났다. 자치주 건설 시도가 비현실적 시나리오로 끝난 이유는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러시아 정부가 고려인 자치주로 허락할 일도 만무하고, 현지민의 절대적 반대에도 부딪쳐야 했으며, 도시에 무엇보다도 재이주를 감행하는 고려인들이 얼마나 될까도 문제였던 것이다. 이미 중앙아시아 도시생활에 뿌리내려 살고 있는 젊은 세대 고려인들이 호응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정착지에서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귀향도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원하던 원치 않든 고려인의 대부분은 살아왔던 중앙아시아 독립국들의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연해주로의 이주가 아니라 한국행이 가능한 고려인들이 있었다. 사할린 출신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지원으로 방문은 물론 영주귀국이 허락되어 실제 1945년 이전의 출생자로서 사할린 출신 고려인은 영주귀국을 선택하여 거의 남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한국이 아닌

북한으로 언젠가는 꼭 돌아가야 할 곳으로 생각하는 고려인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북한 출신 망명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사할린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교류가 늘어감에 따라 한국어 구사 능력자로 인기리에 중개역할을 해왔던 이들이었다. 망명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인 북한과 한국의 정치적 동향에 대해 예민한 시각으로 촉각을 세우고 있고, 북한과는 단절된 상태에서 거주국에서의 한국과 관련된 활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비록 북한식 발음이지만 한국말을 거의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었으므로 일부는 고려인 대표신문이며 한글신문인 고려일보사에 요직에 근무했으며, 고려말 작가활동으로 이름을 날렸던 ‘3진’(리진, 허진, 한진)도 여기에 속한다. 망명 출신들은 그 동안 한국정부나 기관의 초청에 의해 한국방문도 수없이 하며 한국과의 관계에서의 적극적 활동으로 한국사회에서도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소련에 유학 와서 북한에 가족과 고향을 두고 훌훌 단신 타국에 남게 된 비운의 고려인들이다. 이들은 당시 정치적 단합이나 활동을 금지당하며 소련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외로운 무국적 생활을 해왔다. 소련에서의 망명자 생활의 서러움은 철저히 혼자여야 했고 무국적 공민에서부터 느껴야 했다.

모스크바 유학시절 소련당국에 의해 우리들의 망명이 받아들여지면서 당총비서가 불러 조용히 살라고 하면서 ‘집단으로 정치하면 알지?’ 라고 단단히 말했다.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우리들의 망명에 대해 북한당국이 못마땅해하고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썽거리가 생기면 강제노동수용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북쪽에는 엄청난 추위의 수용소가 있다. 우리를 소련 전역으로 한 사람씩 따로 흩어놓았다. 1958년 망명 이후 1975년까지 17년간 무국적 공민으로 있었다. 무국적자로 업무상 타지역으로 가려면 구역의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파견가야 할 상황에서 3일전에 알게 되어 급하게 허가신청을 하면 일주일 넘게 걸려 겨우 허락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미 필요했던 시기가 지나서 허락이 난 것이므로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망명 이후 소련공민증을 받으라고 권유받았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을 봐서

언제든지 들어간다고 생각했으며 임시거처지로 여겼기 때문에 공민증을 받지 않았다 (인터뷰 2011. 5. 19).

소련국민과는 다른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목숨을 부지하도록 해주었고 받아주었던 후르시초프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당시 살 곳도 주고 직장도 주었고, 지금도 집도 있으며 춥지 않게 난방도 되고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지 생활의 만족감 뒤에 항상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토로한다. 이것은 자신들이 딛고 있는 곳은 항상 ‘조국을 떠난 임시 거처지’였기 때문이었다. 망명자 출신인 만큼 소비에트시대 북한과 연대하고 있었던 다수 고려인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분리된 삶을 살아왔다. 이들의 소외된 망명생활은 다시 고려인 집중지역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주로 재이주하여 모여들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10진’이라 이름 붙여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이례적으로 북한당국의 허락으로 북한친척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으나 ‘정치적 방문’으로 이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착지에 새로운 동지를 튼 지도 오래되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한 한국과의 비즈니스에 참여하며 일거리를 갖고 있지만 마땅히 만족을 못한다는 한 망명자는 긴 망명자의 외로움과 실향민으로서의 아픔을 토로한다.

(북한에서) 어린시절 받은 인상이나 버릇, 교양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 항상 우리 한반도에 관심이 가게 되는데, 아무리 여기가 잘산다 하더라도 외국이고 임시로 사는 느낌이거든. 한반도의 성과는 내 성과이고 불행은 내 아픔이며 기쁨은 나의 기쁨이지. 우리 아들 딸들은 여기가 조국이겠지만 우리는 달라.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고향생각하고 눈물 똑똑 흘리는데 여기 있는 다른 민족의 노래가 어찌 들리겠는가 말이야. 한반도에 부모님 묘지가 있고 어린시절 살았던 고향이 있고, 동지들, 선생들, 전우들의 무덤이 있을테고... 내 조국은 한반도다.

북한은 가보고 싶어도 못 가. 김일성한테 잡혀 죽어. 죽을 때 한국에서 죽고 싶다 (인터뷰 2011. 5.15.).

위의 망명 고려인은 자신의 조국은 실제 북한이지만 한반도라고 말한다. 조국을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갈 수 없는 고향이 북한에 있으며, 발 디딜 수 있는 곳은 한반도의 한국이기 때문이다. ‘조국에 대해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죽기 전에 고향에 가보고 싶고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을 말하면서 ‘한국에서 죽고 싶다’라고까지 말한다. 이 말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고향에 갈 수 없다는 체념이며, 불가능한 현실 앞에 선택한 차선택이 한국이다. 한국에서 ‘뜻있는 일’을 하다 죽고 싶고, 통일에 앞당기는 일에 일조하고 싶기 때문에 한국행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행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원망마저 깊어가고 있다. 그의 섭섭함은, 북한의 심리도 잘 알고 한국의 대북정책의 자문이나 전문가로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탈북자를 비롯하여 자신들과 같이 조국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하며 잘못 활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가 자신들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흉내내고 있다. “한국은 너희들 10진(망명자 단체) 필요 없고 우리끼리 한다. 그래 너희들 북한을 반대하고 소련으로 망명했으니 참 장하고 용감하구나. 우리편이네. 그래 많이는 못 도와주어도 한국으로 오고가는 여비는 도와주마”라는 식이라고 했다. 한국은, 자신은 방문여비를 도움받는 일회성의 초청과 방문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한국에서 살며 한국의 국민으로서 적극적인 일꾼이 되고자 함을 몰라준다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일본과 러시아, 한국의 언론의 뉴스를 탐색하며,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특히 한국의 당국의 정책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의 실책은 잘못된 시각과 분석에서 나온 것이며, 자신들과 같은 사람을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강조한다.

요새, 앞을 내다보는 큰 사람도 애국하는 사람도 한국에 없다. 옛날 박정희 같이 통일할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한국은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중국을 활용해서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갈 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것을 못한다. 연평도니 천안함 사건 터져도 입도 병긋 못하고 뺨 쳐다보기만 하고 있어. 개성공단은 그렇다 치고 금강산 같은 머저리 사업은 왜 해서 북한을 퍼주나. 대북방송이니 풍선 띄우는 것도 별 소용없어. 어떻게 하면 선전효과가 있나 그것을 연구하고 전략을 짜야지.

그래도 김일성은 통일방안과 그 구체적인 방안도 내어놓았다. 그런데 남한은 못내 놓더라. 남한 국민들이 통일되면 망할 까봐 통일을 반대한다는 데 뭐가 그리 걱정인가. 북한 먹여 살리는 것 일도 아니다. 저 남아메리카 같은 넓은 땅도 있고, 일년에 세 번 농사짓는 곳도 있는데 그런 거 활용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남한은 탈북자들에게도 잘못하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탈북자들에게 직장에서 받아들여도록 해야 한다. 함경도 말을 쓴다고 같은 동포라도 싫다하고 꺼린다는데 싫거나 좋거나 그 한 사람 두 사람 못 받겠어? 몽땅 일하게 해서 남한에 오길 참 잘 왔다 생각하고 충성하도록 만들어야지. 남한에 와서 행복하다고 실제적으로 느끼도록 조건 쥐어주고 만들어 주어야지. 너희들 자유세계니까 맘대로 벌어들여라 하는데 갑자기 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황장엽 같은 사람도 아무일 못하다가 살만 하니까 죽었지.

김정일은 큰소리치면서 중국이나 미국 잘 이용한다. 경제위기와 내부에 주민들 불만 많을 때 사건 하나씩 터뜨리고 관심을 돌린다. 맘대로 전쟁은 못 일으키지만 이러한 것을 잘 이용하는 똑똑한 사람이다 (인터뷰 2011. 5.15, 5.29).

그가 평가하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외교는 그야말로 ‘뺨점’이라 매긴다. 북한에 대한 파악이 안된 상태고 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여기며, 북한에서 ‘가장 바쁜 일(북한에서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며, 남북한 정세에서 사안별 구체적 방안을 조목조목 나열한다. ‘탈북자에 대한 대우’, ‘해외에 한국을 지지하는 뜻있는 동포의 활용’ 등의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대북 전문가’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간주하며, 한국이 자신을 부르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비추고 있다.

망명자 출신 중에는 해방 이후 남한정부가 친일적 성향이 있다 하여 남한에 고향을 두고 정치적으로 북한을 선택하여 북한 국민이 되었고, 모스크바 유학 중에 소련으로 망명한 음악가도 있다. 그는 중학생이 될 무렵 일찍부터 학교 일본 세계 2차대전때 일본으로 징병되어 전쟁을 경험했고, 북한군으로 6.25에도 참전했으며, 마지막으로 소련 망명까지 일그러진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다. 망명생활로 북한에 있었던 형제와도 단절되었고, 형제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부모와 친척들을 남한에 두어야 했던 한 많은 삶을 살았다. 그는 잦은 한국방문으로 마음을 달래지만 북에서 이미 자신으로 인해 잘못된 형제에 대한 절망과 함께 한국의 부모님이 자신과 형제의 이름을 부르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그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고, 타민족(러시아인)과 결혼하여 평온하지 못한 가정사는 모국을 더 그립게 만들었다.

나는 김치 같은 우리음식을 먹으며 살고 싶다. 하루라도 김치 없이는 살 수 없다. 평소에 한국사람이 그립고 한국말을 하는 한국인과 대화를 하고 싶다. 나는 20년간 일요일마다 알마타 한인 000 종교단체에 다니고 있다. 종교에 심취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생긴 고려인들을 보면서 향수를 달랜다. 실제 거기에 나오는 고려인들이 한국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지만...<중략>...나는 러시아여자와 결혼하였다. 나이 들면서 이 외로움 이루 말할 수 없다. 러시아사람들은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 내 자식들도 모두 러시아화 되어 한국적 예절이나 부모존중과는 거리가 멀다...<중략>...나는 망명을 왔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친척도 아무도 없다. 가족도 남과 같고 나에게서는 의미가



없다. 러시아여자와 결혼한 고려인들이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인터뷰 2010. 9.5).

그는 같은 고려인이 배우자가 아닌 것에 큰 미련을 가지고 후회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민족 전통적 정서를 가진 고려인 여성을 더 그리워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젊었을 때는 ‘노랑머리 여자’와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고려인 여자와 살게 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한다. 그의 강한 모국의 향수는 개인사의 불행을 더 가중시켰다. 망명자가 나이들어감에 따라 한민족 전통적 정서에 더 애착을 가지는 경향은, 강제이주 후손들 중에 특히 러시아인과 결혼한 고려인 여성들이 러시아 문화에 익숙하여 일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망명자 자신들은 소비에트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구조와 과거에 이념에 갇혀 겪어야 했던 갈등과 모순에 대해 몸서리를 친다.

소련에서는 일년에 수십 만부의 논문이 마르크스-레닌사상에 기초해서 레닌에 대한 찬양으로 통과한다. 모든 학문과학이 이념과 체제를 벗어날 수 없었다. 소비에트의 학자나 예술인은 권력의 시녀로서 최고권력자를 찬양하는 예술이나 책을 만들며, 권력자의 이름으로 나온 책들은 누군가에 의해 대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소비에트 당시 누구도 불평불만은 물론 당지시나 의도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은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고려인들은 특히 소수민족이라는 약자로서 함부로 불평하지 못하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소비에트 정권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지배권력에 아첨할 뿐이다. 고려인은 절대 자치적이고 정치적 역량을 가지지 못한다. 위정자들은 이러한 고려인을 이용한다(인터뷰 2011.6.1).

그는 자신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고뇌해왔던 북한의 독재정권, 소비에트 공산당원들의 출세주의며 공리주의, 공산 특권계급의 부패, 아첨하는 고려인, 평탄하지 못한 가정사 등의 과거와 현실을 떨쳐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소중한 것들을 찾고 싶다고 한다. 그의 소원은 매일 김치를 먹으며, 한국사람과 한국말로 대화하면서 여생을 한국에서 마치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생활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은 그의 예술활동에도 있다. 그러나 그의 정기적으로 여는 음악회에도 거주사회에서 부자유가 있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다. 알마타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던 망명음악가의 지인들과 함께 연구자의 가족도 초대받아 알마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극장에서 열리는 유명 작곡가들의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그러나 음악회 중반쯤 그의 곡이 연주된 이후부터는 불편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다른 작곡가들의 곡에 비해 그의 곡은 유난히 짧게 끝났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연구자를 비롯하여 그에 의해 초대받은 지인들은 연로한 노인인 그를 걱정하였다. 끝난 후 언짢은 표정을 숨기려 하며 말했다.

이 음악회에서 나의 곡 선정에 대해서 위원장과 사전에 조율을 했었는데 교향악 ‘조국’은 너무 길어서 4악장 중에 2악장만 하는 것으로 약속되었다. 그러나 1악장만 연주되었다. 끝난 후 위원장에게 따졌는데 2악장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지휘자를 불러 물어보려 했지만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내가 카자흐인이었다면 최고훈장을 수없이 받았을 것이다. 고려인이라 차별하는 것이다. 차별 이루 말할 수 없다. 책으로도 쓸 수 있다. 나는 5년 전만 해도 10년 이상 작곡가 동맹위원으로 있었다. 당시 위원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적이지 않았다. 미리 위원장이 9명의 위원을 뽑아놓고 형식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2011.5.19).

그는 고령에다가 한스러운 삶의 여정, 못다 이룬 꿈에 대한 미련, 모국의 향수는 그의 음악이 말해주었다. 그의 교향악 ‘조국’은 한국의 민요곡을 접목하여 듣는 순간 웅장한 유럽풍의 곡들과는 달리 한국적 냄새가 물씬 나는 곡이었다. 연구자는, 지휘자나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다르고 익숙하지 않는 이질적인 곡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그의 음악의 소재도 항상 한국적인 것을 찾으며, 그의 음악의 세계는 조국을 말하고 있었다.

그가 음악세계에서 배제 당한다는 이야기는 일반 고려인들이 입버릇처럼 “카자흐스탄은 가장 민족적 차별이 없는 곳이며, 서로 친선적이다.”라고 하는 말과는 대조를 이룬다. 음악의 세계는 음악가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전문가끼리의 서열이 매겨지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다. 첨예한 이해관계와 경쟁 속에서는 차별구조는 쉽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힘든 몸을 이끌고 있는 그가 미소 지으며 가장 행복해하며 자랑하는 말이 있다. 그는 바로 카자흐스탄에서 최고급 병원인 대통령 병원에서 언제든지 무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자신의 모든 건강문제에 대해 친절하고 섬세한 상담이 이루어지며 모든 직원들이 상냥하며 최고의 수준이라고 만족해한다. 자신이 이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음악의 공훈자로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는데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혜택은 그의 조국 한국에서도 불가능한 특권으로 여기고 있다.

그의 조국에 대한 애착은, 현재 가끔 한국을 방문하며 활동하는 것을 가장 보람으로 생각하며, 남북한 정세와 주변 동향에 대한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인터넷을 검색하고 읽는 일이다. 그가 가장 진지하고 걱정스럽게 반복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좌파들은 친북을 넘어서 종북세력으로 변했다. 어떻게 많은 국민들이 세뇌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북한 정권을 잘못 보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걱정과 불만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한숨짓는 것은. 지금이라도 임시거처지가 아닌 모국에 거주하고 싶다는 것이다 (인터뷰 2011. 5.19).

망명자 출신들은 귀속국가를 임시거처지로 여겨오며, 망명지에서 내내 조국의 정세에 귀를 기울이고 귀향을 기다리며 살아온 고려인이다.

1970년대 외서야 정식 소련 국민자격을 가지고 귀향의 기대를 접었다가, 서울 올림픽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을 붙였다. 이들에게 조국은, 고려인 사회에 주류를 이루며 부자 한국을 모국이라 하며 순례지로 삼아오면서도 자신들의 조국을 카자흐스탄이라고 말하는, 원동출신 고려인과는 큰 차이가 있다. 모국방문은 이들에게 절반의 꿈의 실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에게 조국은 자신들의 전부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귀속사회에서 살아온 역사도 그들의 존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자신이 그 사회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몸부림과 인정받고자 했던 달려왔던 여정은 이미 그 사회에 깊숙이 발을 담구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절반의 성공은 이들에게 가고 싶은 곳과 살아야 할 곳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모국과 ‘임시 거처지’의 사이의 경계가 뚜렷해질수록 모국에 대한 갈망과 절망, 원망도 깊어지고 있다.

### **이질적인 모국: ‘한국의 특수’와 ‘못 믿을 한국인’**

냉전의 해체와 세계적 긴장완화의 물결은 구 소련 고려인들에게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대우, LG 등 한국 굴지의 기업들이 구 소련지역에 진출하며 한국의 세계적 경제적 위상을 실감하게 되고, 같은 한민족이 이루어놓은 변영은 귀속사회에서 소수민족 고려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쾌거도 있었다. 동시에 커다란 사회변동으로 인해 고려인들은 예전의 직장 걱정 없던 시대에서 독립 이후 사경제분야로 내몰리면서 개인 비즈니스와 식당 등의 사업에 관심을 두며 적응해가야 했다. 때를 같이하여 소련지역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는 한국기업과 관련 비즈니스, 교회 등은 물론 각 부문에 고려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모국의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고려인에게 많은 가능성을 꿈꾸게 했던 만큼,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국의 드림’ 대한 한계도 실감해야 했다.

동포라고 하여 이들이 꿈꾸는 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리 따뜻한 한국과 한국인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해 카자흐스탄 지역에 대해 일부 한국인들의 머리 속에 각인된 것은 광활한 땅, 풍부한 석유와 광물자원 등의 자원부국으로서의 기업가와 투자가의 매력을 끄는 곳이었다. 특히 자원과 건설 분야에 한국 투자자와 사업자가 카자흐스탄에 늘어나면서 일부 한국어에 능숙한 고려인들이 자연적으로 중개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참여 고려인은 대부분이 한국인 사업가의 이미지에 대해 주저 없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많이 오갔으며, 20년 동안 비즈니스로 한국인을 수없이 경험해 왔다는 고려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 죽도록 일 시켜놓고 다 해주고 나면 결정적일 때 (나를) 툭 떼어 놓는다. 속여 먹는 것 참 날쌔다.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다. 내가 한 두번 당한 것이 아니다. 한국업자라고 와서 같이 일을 해보자 해서 할 것으로 믿고 담화(비즈니스 미팅, 협상)도 한다. 일이 결정되어가면 싹 가버리고 소식도 없다. 나를 담화에 왜 끌고 가는가 말아야. 예를 들면 여기에 금광이 있어 그들이 재료(관련 자료)를 달라 하면 구해서 주지. 그러면 한국 가서 팔아먹더라고. 못 팔면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해. 한국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하면 시험 채굴할 돈을 받아 갖고 외서는 파는 채만 하고 그 돈만 싹 받고 일도 안 하더라..... 가장 영리하고 교활한 민족이 히브리인데 이 사람들을 속여먹는 사람이 바로 한국사람이야. 중국사람들이 전세계에 다 정착했는데 한국에만 정착 못한 것도 이유가 있지. 한국사람하고는 주의해서 해야 해 (인터뷰 2011. 5. 29).

건설업이든 자원개발이든 이 지역에 돈 벌기 위해 온 대부분의 한국인은 쉽게 속이는 사람들로 낙인 찍고 있었고, 한국인 사업자들에 대한 원망의 골도 깊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한국인과의 사업경험이 있는 고려인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는 이야기에서 연구자는

대부분이 이런 비슷한 범위의 이야기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았다. 한 사할린 고려인은 “한국사람과 사업할 때 나보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면 나를 팽해버려. 그래서 끝까지 자료를 주면 안돼.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불평하며 불신을 나타내었다. 한국과의 비즈니스 경험에서 결정적일 때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 이들은 나름대로 철칙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에 대한 역공의 무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한국인을 못 믿듯이 이에 못지 않게 한국인들도 생김새가 같다고 고려인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귀뜸한다. 한국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가는 사람’, ‘돈벌기 위해 속이는 사람’의 이미지에서 ‘고려인에게 속임을 당하는 한국인’이라는 이미지도 첨가된 것이다. 한국인이 이곳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 와서 사기당할 정도로 어리석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인 기업가나 사업가가 현지에서 당하는 일도 연구자도 가끔 듣는 실제 이야기이다.

한국의 대형건설사의 경우 2006년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12억달러 규모의 야심찬 재개발사업을 시도하였는데, 여기에는 고려인이 개입되어있는 현지 시행사와의 상호 맞소송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대형사건이 터졌다(머니투데이, 2008.9.24, ○○사업). 이 외에도 소송이 걸려 있거나 경제위기에 더하여 이미 망한 한국회사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당하는 한국회사 측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기업을 상대로 사기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 경고하고 있고, 한국의 같은 업계사람들은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며 의아해한다. 그런데, 고려인들에게 한국사람은 ‘사기당하는 어리석은 한국사람’이 되며, 자신들은 ‘한국사람보다 더 눈치 빠르고 똑똑해서 한국인들을 더 잘 속일 수 사람’으로 자처하였다.

한국회사에 고용된 고려인의 경우도 한국인에 대한 평판에 대해 좋게 말하는 편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사람은 ‘돈벌러 온 사람’, ‘일을 많이 부려 먹는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붙었다. 이것은 한국기업은, 기존 소비에트 체제에서 모두가 예외없이 국영기업의 직장을 다니며 직장에서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시간을 채웠던 습성에 젖은, 소비에트 직장문화와는 크게 배치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퇴출당할 우려가 없었던 안정적이던 직장관념에서 볼 때 이들에게 자본주의 기업주는 자신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돈의 논리로만 일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사람으로 비쳐졌다. 기업이 경쟁을 해야하고 이익에 따라 업주의 호주머니에서 월급이 나오는 자본주의 논리는 겪어보지 못한 생소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특히 한국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카자흐들의 불만에서 더 잘 보인다. 한국어를 조금 하는 한 카자흐 대학생은 한국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기업주가 온갖 잡일과 심부름 및 청소를 시켜서 자존심 상해서 일을 더 이상 못하고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되었다고 했다. 직장에서 일정한 한 가지일을 하기를 고집하는 현지인 피고용인은 자본주의 고용주가 이들을 비 전문영역의 피고용인으로 간주하여 이것 저것 잡일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인과 고려인간의 갈등은 비즈니스나 기업에서만 생기는 일만이 아니었다. 구 소련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모국 한국에 의해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자신들의 연해주 선조들의 과거의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하는 작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한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후손들은, 중개역할을 했던 고려인과 한국인들과의 관계에서 나쁘게 발전했다는 것이다. 애국지사의 후손으로서 자신의 선조들의 고귀한 자료를 건네고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일부 고려인 및 한국인 중개역할자들이 개입하면서 후손들이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중개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국에서 책을 내준다고 해서 모든 자료들이 고려인 중개자에게 건네졌다...<중략>...책이 출판된 것이 아니라 고려인 중개자가 자료만 한국에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터뷰 2010. 6.22).

이와 비슷한 경우의 예로서 독립후손들의 자료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여러 번 듣게 되었다. 비교적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 후손 중의 한사람은 한국인에게 건넨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억울한 경험을 토로하였다.

나는 1995년 알마타 한국교육원에 한국어를 배우러 갔다가 내가 ○○○선생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한국에 초대받아 총 7-8회 정도 한국을 방문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독립운동가이신 할아버지의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왔다. 여기에는 나의 아버지가 자필로 쓴 자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중략>...자료를 돌려받기로 하고 한국인 A씨에게 주었는데 받지 못했다. 당시 나는 한국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을때 한국에 가져갈 자료가 없어서 너무나 속상했다. 내가 A씨한테 달라고 따졌는데 책을 편찬하기 위해 한국의 다른 B씨한테 주었다고 했다. B씨는 A씨한테 받은 것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한국에서 책이 편찬되었다. 나는 후에 그 자료들은 한국○○협회에 기증하라고 했다. 그렇지만 돌려주기로 빌려갔던 것을 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터뷰 2010. 6.22).

그녀는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자신의 소중한 자료를 '허락 없이 임의대로 처분했다'는 한국인에 대한 섭섭함과 불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일과 관련된 자기경험을 책을 펴내서 그 내막을 적어놓았고(Ли Л., 52) 연구자에게 보여주고 한권을 건넸다.

연구자는 고려인 작가의 한 후손으로부터 또 다른 '자료 스캔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신의 할머니가 한국인에게 건넨 할아버지의



자료와 책을 돌려받지 못해서 원망하고 있다고 했다(인터뷰 2010. 7. 23). 한국인과의 이러한 '자료 스캔들'을 경험한 당사자들은 '신뢰 못할 한국인'이란 교훈으로 각인되고 있었다.

항일투쟁의 역사발굴 프로젝트의 '특수'는 고려인집단 내부의 잡음과 분열조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항일투쟁사에서 전설 같은 영웅 홍범도 사후 나타난 후손의 진위문제를 둘러싸고 고려인 사회는 '진실과 '꾸며낸 이야기'의 공방으로 한 때 떠들썩했다고 한다(인터뷰. 2011.7.4).

동족끼리 불신하는 과장과 교훈은 한국인인 연구자와 연구자의 정보제공자 사이에도 작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자의 정보제공자인 고려인에게 자료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자료주인은 말하기를 '자료를 자신의 손을 떠난 곳에는 절대 두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사를 하라고 권유했다. 그리하여 자료 복사를 위한 대기시간을 포함해서 긴 시간 동안 복사가게에서 연구자와 같이 기다려야 했다. 연구자는 그동안 이 사람과 잦은 만남과 전화연락으로 충분히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생각했지만, 자료에 관한 여러번 경험으로 학습된 교훈이 있었다. 그 중 하나의 고백은 «나는 한국에 논문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나의 원고료를 한국 교수가 가로챘다. 그래서 나는 가만있지 않고 대사관 통해서 돈을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받아내었다»라고 하며 자신이 만만하게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려인의 중요한 자료는 한국으로 건너가면 언제나 '돈이 되기에 '한국인은 돈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라는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독립한 지도 벌써 많은 해가 지나가면서 다양한 사업가 고려인들도 탄생하였고, 사경제 체제에 적응해갔다. 한국인과의 불신 속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고려인들은 '돈 벌러 온 한국인'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또한 '이용해 먹고 가는 사람'인 한국인과 지속적으로 사업파트너를 맺으며 돈벌기 시도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인은 '자신들은 한국인보다 못할 것 없이 똑똑한

사람'이고 '한국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지만 고려인에게 당하는 사람'이라고 비웃으며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이분법으로 자신을 우위에 놓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과의 교류초기에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인을 동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전경을 보여준다. 고려인들은 한국에 대한 접근의 한계를 느끼고,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동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며 이용하려고 한다는 실망감과 배신감에 한국인과의 경계를 그었다.

그러나 젊은 고려인 세대는 모국과의 관계에서 기성세대들의 반응과는 달랐다. '한국사람이 열심히 시키지만 월급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하며 한국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묘사되고, 이들사이에 한국어 배우기도 인기가 많다고 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소비에트 시절의 경험이 없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된 세대이면서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국과는 더욱 거리가 먼 현지의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젊은 고려인들이 조상의 모국에 대한 애착과 동질감은 기성세대보다 더욱 희석되어 있었고, 한국기업에 취직의 꿈은 경제적 논리에 있었다. 이들은 모국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만큼 서운함이나 실망의 표현도 없으며, 자본주의 논리와 각자의 다양한 시각으로 살아가는 타민족과 다름없는 젊은이에 가까운 것이다.

### 3. 새로운 독립국의 국민 되기

서울 올림픽에 이은 소련의 붕괴는 고려인들이 지향했던 소비에트인으로서의 존재의 근거를 해체하였다. 소비에트 체제는 더 이상 이들에게 생존의 기반을 보장해 주지 못했고, 소비에트의 해체는, 올림픽 이후 모국의 등장의 감동과 민족문화 부활의 탄성이 그치지 전에 소비에트 고려인이 만난 충격이었다. 이들은 처절하게 절망을 넘으며 추구해온 희망의 고지는 어느 날 갑자기 해체된 것이었다.

이들은 기존 귀속사회의 구조의 붕괴에서 또 다른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했다. 즉, 귀속사회에서 주체민족이 바뀐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의 투쟁을 해야 했다.

토착민족 카자흐가 새로운 귀속국가의 주인의 자리에 있게되는 것은 자신의 영토에서 제정 러시아 때부터 오랫동안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일로서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 영토에는 러시아에 의해 개입된 식민의 역사로 130여 개가 넘는 민족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로 공존해왔다. 카자흐가 주도하는 정부는 카자흐 민족정체성의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기본으로 하여 소비에트의 잔재를 청산함과 동시에 새로운 체제에 적응시켜나가며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신정부는 민족주의적이면서도 국민통합을 내세운 소수민족의 포용전략을 동시에 펴고 있다. 소비에트적 사고와 행동양식에 익숙한 소비에트인은 새로운 체제의 과도기의 어려움을 만날 때 소비에트시절의 향수를 자주 말한다.

과거의 소비에트시대와는 달리 독립국가에서 고려인은 토착민족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해가는 과정을 겪어야 했고, 여기에는 그동안 카자흐의 관계에서 쌓아온 상호신뢰가 큰 밑받침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스탈린의 탄압시대에 비극의 경험을 공유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두 민족은 서로를 위로했던 관계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고려인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 냉정한 현실 앞에 고려인들이 겪는 갈등과 무게는 고려인이 구사하는 ‘고마운 카자흐’와 ‘꼭 배워야 할 카자흐어’의 담론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소비에트 고려인이 과거의 향수에 젖어있으면서도 카자흐스탄 국민으로 ‘되어야 할’ 현실의 압력이며 동시에 또한 존재의 뿌리를 내리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 ‘고마운 카자흐’의 정치

모범 소비에트인으로 살아온 고려인에게 기존체제의 붕괴가 커다란 충격인 것은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귀속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를 넘어

귀속사회자체가 재배치되는 복합적 상황이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었다. 민족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러시아 지배민족이 몰리나고 주체민족이 카자흐로 전환된 상황은 소비에트 지배체제에 강하게 편승하고 동화되었던 고려인의 입지가 복잡해진 것이다. 이러한 입지는 소비에트 시대에 카자흐나 고려인 모두 같은 이등국민으로 있던 것과는 다른 상황으로 고려인에게 새로운 위치짓기를 부과하고 있다. 새로운 귀속국가가 과거의 공산체제가 아닌 민주체제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체적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비주체민족은 곳곳에 배제의 요소들이 잠재해있다.

구 소련체제는 다민족 국가로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다민족 공존의 논리가 강조되는 사회주의 체제였다. 민족문제에 있어 레닌은 연방을 민족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그는 각 민족 지역에서 교육, 공공회의, 기관 등에서 자민족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체제가 출범한 이후 민족문제는 항상 연방 내 전체 인민의 통합정책과 긴장관계에 있었고, 민족적 형식의 자치 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등이 허락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명령체계 내에서 움직였고, 체제나 이념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율성은 없었다. 소비에트의 일관된 정책하에 국제주의적인 플로레타리아의 단결을 부르짖고, 민족간의 친선과 우애를 중요시하며, 가장 모범적인 민족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소비에트의 수사학적인 표현의 반복이었고, 내용적으로는 러시아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지배민족 러시아인 이외에 토착민 카자흐나 우즈벡, 고려인과 같은 이주 소수민족 등은 어떠한 실질적인 민족 권리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같은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중앙아시아 공화국에는 원주민이 형식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도 했지만 실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주요 관료와 산업장의 핵심요원들은 모두 러시아인을 비롯한 슬라브계 민족들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소수민족이면서 도래민족인 고려인뿐만 아니라 토착민족인 카자흐인도 피지배민족이었다.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공평하며 자신의 문화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외침 속에서도 맑스-레닌주의의 기저에는 민족이 결국 말살된다는 논리가 숨어 있었고, 대러시아주의에 동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깔려있었다 (최한우, 228) 토착민족인 카자흐어가 카자흐 민족간에 비중 있게 살아있었어도 카자흐 민족내부의 상층부는 고려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어로의 동화를 막을 수 없었다. 소련의 모든 소수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카자흐과 고려인은 어차피 주도민족의 사회로 진입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같은 피지배민족이었다.

소비에트 체제가 대러시아주의를 주도해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민족과는 달리 토착민들에게는 형식적인 배려를 한 흔적이 행정구역(공화국 또는 자치주)과 언어적,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토착민족적인 색채에서 볼 수 있다. 1938년 고려인을 비롯한 위구르, 따따르 등의 소수민족학교를 소련일반학교로 전환하였지만 각 공화국의 토착민족의 학교는 살아있었다. 유달리 백계민족의 차별을 심하게 느낀 사할린 고려인들이 대륙으로 이주한 이유중의 하나도 대륙의 토착민의 러시아인에 대한 견제력 때문이었다. 사할린의 경우 토착민의 중화적 힘이 없었기 때문에 유색인종/백인종의 강한 양분법으로 사할린 고려인은 더욱 배제와 소외감이 가중되었다고 느꼈다.

고려인은 러시아인 주도의 사회주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러시아적인 것 (russianess)을 추구하면서도 토착민 카자흐를 비롯한 타민족과의 표면적 갈등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 더군다나 토착민과 같은 유색계 민족이며 가부장적인 요소와 같은 민족적 특성의 유사성에서 어떤 우호적 끈을 맺고 있었다. 카자흐 또한 고려인의 민족성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카자흐와 고려인은 민족적 감정이 없으며 오히려 서로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서로가 말하고 있다.

고려인의 민족적 평판은 때로 권력의 힘에 의한 인위적 개입으로 타격을 받기도 했다. 소비에트 정권은 토착민족의 힘을 저지하기 위한 지렛대로 고려인과 같은 힘없는 소수민족을 이용한 부분도 있었다. 그 예로서 구 소련말기에 타슈켄트 고려인 총장 엄 빅토르를 모스크바 정부는 우즈벡 민족주의 학자들을 제거하는데 교묘히 이용하여 우즈베키스탄을 통제하고자 했다 (위의 책, 225). 소수민족을 이용하여 토착민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분산시키고자 소비에트 정권의 정책은 민족간 화합을 부르짖으면서도 오히려 민족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던 측면도 있었다. 고려인이 러시아 편향적으로 러시아어만 구사하며 러시아주의를 걷고 있었고, 소비에트 정권에 충성하며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왔던 과정은 타민족에게 소외와 배제를 낳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고려인 민족을 지칭하여 ‘기회주의적이다’라는 말은 타민족간에 흔히 돌고 있다. ‘기회주의적이다’란 말은 지배권력에 편승한 비주체적인 뜻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이 말에 대해 ‘영리하다’, ‘능력있다’라는 말로 정의하고자 했다. 즉, 자신들이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며, 또한 좋은 성과를 내어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거주국 타민족의 고려인에 대한 민족성에 대한 인식은 극단적 상황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며, 소비에트사회에 편입되고자 했던 강렬한 열망을 보인 데서 기인된 것이었다. 모범 소비에트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에서 민족내부에서 우월한 집단임을 내세우며 같은 민족그룹을 배제했듯이 외부적으로 타민족과의 경쟁도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토착민의 땅에 지배민족으로 군림했던 러시아인과 토착민의 반감과는 다르게 이민족으로서의 고려인은 타민족과의 사이에서 드러냈던 불협화음은 없었다.

카자흐과 고려인의 민족적 관계는 무엇보다 문화적 전통에서 유사한 정서를 공유한다고 믿고 있었다. 연구자자 카자흐들과 대면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한국드라마에 관한 이야기였다. 연령대에 관계없이 많은 카자흐들이 한국드라마에 심취해 있었는데, 특히 드라마 속에 한국의 가족관계에서 보이는 장유유서의 문화와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카자흐전통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카자흐의 유목문화의 특징상 계절적 이동을 위해 보통 10 개 내외의 가족으로 구성된 협동그룹을 운영하며 안전과 생산에서 상호공동체계를 유지하므로 전통적으로 혈통과 친족이 중요시되었다. 혼인에 있어서도 7촌이내의 친족과는 결혼을 금하는 전통이 유지되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그리고 집단 공동체 내에서는 최고의 연장자를 중심으로 한 강한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카자흐와는 사회문화적 정서의 공통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서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고대역사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배한 고대 투르크족이었던 흉노는 한반도의 고대국가 고조선과 동맹을 맺어 중국의 진과 한나라에 대항했고, 돌궐과는 고구려와 동맹을 맺어 수나라와 전쟁을 하였다. 한반도의 고대국가들의 관직명이나 여러 단어에서 언어학적으로도 투르크어의 흔적을 증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현지 카자흐인이나 학자들은 카자흐들이 스스로 언어적이나 정서적으로 한민족과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두 민족의 역사적 및 정서적 유대에 대한 인식은 상호 신뢰와 정신적 안정을 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독립 이후 고려인들에게 서서히 달라지고 있는 변화는, 두 민족간 그동안 서로 좋은 평판을 유지하며 문제없이 지내던 관계의 수준을 넘어, 카자흐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도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고려인 자신들이 국가 최고지도자에 의해서도 특별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카자흐화의 긍정적 동참이 강화되고 있었다.

여기 우리 대통령(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이 올바른 정책을 쓰고 있고, 서로 친하게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한다. 대통령은 소수민족 각기 자기언어를 배우도록 하고 문화센터도 열어주어 우리 민족노래, 춤 이런

것 마음껏 하게 했다. 타민족과의 콘서트도 같이 하고 있다. 여기 땅 주인이라 토착민이 텃새하는 것은 있다. 그러나 고려인에 대한 믿음은 있다.

나자르대통령이 전에 말하기를 고려인들은 벌써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카자흐인은 이제 일어나서 차나 마시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예수님이나 허물이 없지. 그렇지만 국민들이 의욕이 나게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수도를 아스타나로 옮기려 했을 때 말이 많았는데 옮기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가. 수도는 그 나라의 얼굴인데.

카자흐 민족 내부에서는 불만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소수민족들은 아주 대통령을 좋아한다. 대통령이 돈벌고 싶으면 마음껏 벌여라 그러나 법은 지켜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민투표를 취소하고 총선거 한 것도 참 잘한 것이다(인터뷰, 2010.6.14).

이들의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우호와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민족적 차별을 두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민족차별의 우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민족적 탄압의 아픈 경험에 대한 흔적이기도 했다. '지금 가장 좋은 시대이고 안정적이다' 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미래에는 언제든지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과 강박관념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조국으로부터 거부당했던 아픈 경험도 상기하고 있었다. 소련 해체 이후 수많은 소비에트 이민족들이 자신들의 조국으로 떠났던 상황에서 고려인들은 남한이나 북한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거주국을 그대로 모국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카자흐와 고려인의 두 민족의 아름다운 관계의 표현과 현재 권력에 대한 신뢰의 표현은, 생존의지로서 현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나타내지만 무겁고 불안한 현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고려인의 러시아인과의 결혼, 그리고 러시아식 작명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던 시대와 크게 대비를 이루며 카자흐에 대한 친밀적 태도가 강화되는 현상은 고려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보였다.



작년 연구자는 알마티 공원 노천무대에서 고려인의 8.15 광복절 행사를 관람하였는데, 이 행사는 전문 극장 배우나 가수, 무용팀 위주로 구성되어 펼치는 명절의 대형극장에서의 행사와는 달리 많은 재주 있는 일반 고려인들이 무대를 장식했던 특징이 있었다. 춤과 무용의 음악도 러시아 예술 흥내에 편중했던 예전과는 달리 노래와 춤에서 카자흐음악의 비중이 러시아의 그것과 비슷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고려인 어린이 무용가 중에는 카자흐이름도 등장하였다. 고려인 합창단 ‘고향’의 멤버들의 연습곡 리스트에는 예전에 없었다는 여러 곡의 카자흐어 노래도 들어있었다. 한국어 전통가요도 뜻도 모르고 외워서 하듯이 카자흐 노래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외워서 부르고 있었다. 오늘날 고려인의 주요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 예술로부터 카자흐의 음악과 노래로 점차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초기 토착민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 자신들과 외모적으로 닮은 토착민 흥내를 내며 고려인 민족이라는 것을 숨기기도 했다. 고려인들은 토착민 카자흐가 자신들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었던 언덕이 되어 주었다고도 한다.

연구자가 카자흐스탄에 와서 일찍부터 접했던 정보가 ‘고려인에게 고마운 카자흐’였다. 연구자에게, 고려인 강제이주의 참상을 겪었을 때 자신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는, 어렸을 때 들었던 감동적 동화이야기보다 더욱 가슴을 뜨겁게 하는, 소설 같은 아름다운 실화였다. 한국을 대표하여 카자흐스탄에 파견된 기관장들이 카자흐들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빠짐없이 건네는 덕담도 ‘당신들은 어려울 때 고려인에게 은혜를 베푼 따뜻한 민족이며, 같은 민족으로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라는 감사의 발언이다. 이 이야기는 세대교체가 되고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겪은 고려인 당사자들이 없지만 후세에게 진실로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믿어온 이야기가 의외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고려인도 제법 있었다. 여기에 대해 연구자 앞에서 몇몇 고려인은 언쟁도 벌였다.

A: “고려인이 이주할 당시 카자흐인들이 살던 마을에는 주로 텅텅 비어있었어. 가축도 다 빼앗겼고 가뭄이 겹쳐 아사하거나 모두 떠날 수밖에 없었지. 일부 카자흐인들이 남았다 하더라도 자신들도 먹고 살게 없었는데 어떻게 고려인들을 도와주었던 말인가. 살던 카자흐사람들은 거의 사라지고 남겨진 폐가나 헛간들을 일부 고려인들이 차지할 수는 있었지.”

B: “그런 말이 나온 것은 고려인들에게 빵을 주며 도와준 카자흐인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렇게 다 도와주지는 않았겠지만.”

A: “그게 사실이라기보다 카자흐인들에게 아부하는 말이야.”

연구자: “왜 아부를 해야 했나요?”

A: “문제없이 서로 잘 지내야 하니까. 소련시대 때는 절대 민족적인 것을 내세우면 안되었고 민족끼리 잘 지내야 했어.”(인터뷰 2010.8.1)

위의 대화에서의 A씨는 고려인 강제이주역사를 연구하고 있고, 많은 개인소장 자료를 지니고 있는 고려인으로서 ‘고려인에 대한 카자흐의 도움’에 대한 이야기가 허구임을 진지하게 주장하였다.

카자흐의 경우 1920년대부터 강제 정착과 집단화 정책으로 기존의 유목생활로 생계를 이어 갈 수가 없었어. 집단화 정책으로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금지시켰고, 이동을 하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정착생활을 강요한 것은 살아남기 힘든 방식이었다. 그들의 주식은 육식이었는데 모든 토지와 가축은 철저한 관리와 통제하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모든 가축을 잡아먹고 인육까지 먹어야 했다. 소비에트 정부는 전 지역에서 거둔 곡식을 수출했고 공민들은 굶주려 죽어갔다.

스탈린은 지식분자들을 타도하였다. 1930년대에 카자흐 지도자 500명을 없앴고, 고려인이 강제이주 당한 해 12월에는 카자흐스탄의 제1장관 카자흐 바이투르시노바가 총살당하였다. 카자흐, 고려인 할 것 없이 민족간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관계를 멀리하였고

공포와 극도의 기아에 시달렸다. 각 마을에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굶어 죽거나 잡혀가서 죽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 그들이 살던 유르파(ger)와 집들은 모두 비어있었다.

런 카자흐들이 어떻게 고려인을 도와줄 수가 있었겠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카자흐들은 고려인들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나빴다. 고려인은 먹을 것이 없으면 풀이라도 뜯어먹고, 뭐든지 심어서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고기 없이는 살수 없는 민족이었고 가축을 모두 빼기고 그나마 남은 가축은 더 이상 남지 않아 굶어 죽었으며, 멀리 떠나기도 했다. 그것은 인공적인 기아였다. 고려인들의 주변의 민족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어 아이들을 혼자 어디 보내지 못했다. 왜 왜곡된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가? 왜냐면 고려인들은 일터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런 ‘이야기’는 다른 민족에게 적을 만들지 않고 굶겨서 죽이고 아첨하기 위해서였다(인터뷰 2010.8.9).

1940년대를 전후해서 이민족들이 강제이주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유입되기 이전에 192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토착민에게는 소비에트 집단화 정책과 1930년대 초 가뭄까지 겹쳐 카자흐의 수난시대가 있었다. 1931~1933의 대기근과 소련의 무자비한 정권으로 전체 카자흐민족의 42%에 해당되는 175만명이 기아와 탄압의 희생양이 되었고 백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갔던 것이다 (마지또브, 44). A씨의 설명은 먹을 것을 준 것도 허구지만, 집을 내어주었다는 이야기도 허구로서 다들 떠나고 없었고, 빈집이나 헛간을 고려인들이 이용했을 뿐이라고 한다. 사실 ‘고려인들에게 빵을 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고려들끼리는 서로 웃는다고 말한다. 역사적 사실의 진의를 따지며 반대의견을 주장한 고려인은 ‘눈앞의 권력에 아첨하는 비굴한 고려인’이 생산한 정치적 발언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민족내부에 항상 ‘주체적이지 못한’ 소수민족의 비굴한 자화상을 말하기도 했다.

고려인에게 각인된 ‘고마운 카자흐’는 사실진의를 떠나서 카자흐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담론이기도 하다. 카자흐민족을 대표하는 특성은 인내 (patience), 환대 (hospitality), 포용 (tolerance)를 들 수 있다

(Абдигалиева, 47, 48). 원래 카자흐는 수천년 동안 민족을 형성한 적이 없으며 주즈가 생길 때까지 민족을 구분한 적도 없었다. 다른 민족이라 하여 소외시키지 않았고 이는 사람이건 지나가는 사람이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전형적인 카자흐의 민족적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Кшибеков, 200) 이 민족성의 근원은 원래 유목생활을 하며 초원을 찾아 계절적 이동을 해 왔던 생활양식과 관련되어 있다. 하늘과 초원을 벗삼아 끝없는 대초원에 양떼를 몰며 외로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은 사람 그림자만 보아도 반가운 일이었다. 어쩌면 길고 긴 한가한 시간에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낯설든 주변 아는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를 매 순간 가장 우선시해왔다(위의 책, 47). 가까운 친족집단끼리 가족단위로 몇 개의 유르따를 짓고 생활을 하는 이들은 지나가는 손님이라도 자신들이 가진 재료 중 최고의 것으로 요리하여 손님을 접대하여 보내는 것이 생활이고 미덕이었다. 그 대표적 접대음식으로 양고기 요리 ‘베스바르막’으로 자신들의 전통음식이기도 하다. 음식분배에도 위계질서가 있으며 가장 귀한 손님은 최고 연장자 옆에 앉게 하며 양머리를 먼저 나누어 먹는 관습도 있다. 이 요리는 카자흐의 중요한 행사에 항상 준비되며, 손님에게 많은 양을 떠주며 먹을 것을 권하는 태도에서 이러한 민족성을 나타낸다.

‘고려인에게 고마운 카자흐인’이란 이야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려인이 카자흐인에 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희적 체스처로 볼 수 있다. 어느 고려인이 말한 것처럼 강제이주 당시 카자흐의 최악의 상황으로 도움을 못 받은 고려인도 있었으며, 도움을 받은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 고려인이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여러 이주 고려인 당사자의 증언에서 나온다. 잘 곳도 머물 곳도 없는 생존의 귀로에서 카자흐가 내어준 방이나 헛간에서 잤다는 것과 현지인 카자흐가 준 말젖을 먹고 설사를 해서 고생을 했다 등의 술한

경험록이 있기 때문이다.

다민족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각 민족에게 부각된 민족성으로 고려인은 ‘부지런한 민족’, 독일인은 ‘정확한 사람들’로 평가되지만 고려인들에게 카자흐는 ‘착한 사람들’로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카자흐의 민족성은 공화국 독립 이후 사경제체제와 함께 급격히 서구화 과정을 겪고 있으면서도 보존해온 전통관습에서 쉽게 드러난다. 식민시대에 자신들의 전통을 상실했다는 피해의식은 민족정체성의 복구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과 함께 재창조되고 있고 유목문화에서 나온 민족성은 소중히 간직해야 할 정신적인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카자흐의 민족성을 대변하는 ‘고마운 카자흐’의 이야기가 고려인 사회에서 일반화된 것은 두 민족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며 우호적 관계의 역사성과 연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지만 한편에는 변화된 거주사회에서의 생존에 대한 현재의 불안을 담고 있었다.

### ‘꼭 배워야 할 국가어’의 정치

그러나 새로운 사회 정치적 대변동은 민족간 좋은 감정과 호의적 관계로서 포괄될 수 없는 문제들이 소수민족 고려인 앞에 산적해 있다.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신생국가 건설에 가장 우선시되었던 문제중의 하나가 카자흐 민족어 회복정책이었다. 소수민족 고려인은 가장 모범적으로 호응하는 것 같으면서도 언행에 모순을 보이며 새로운 국가어 배우기에 대한 억압을 감당하고 있다.

혹자는 그 동안 쌓아온 두 민족간 좋은 관계유지는 고려인들의 미래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주체민족과의 호의적인 관계가 두 민족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한 소수민족의 미래를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독립국가의 의지와 정책방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소수민족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비에트 고려인이 달려온 길은 어떤 저항과 출구도 불허되었던 가운데 처절한 생존의

길이였다. 유일한 출구요 저항이었다면 바로 자신들을 갱신하여 모범 소비에트인이 되는 것이었고, 민족어도 있고 러시아어를 유일한 언어로 삼아왔다.

구 소련이 해체되고 혼란기를 거쳐 소비에트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새로운 귀속국가 카자흐스탄 독립국의 국민이 되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현재 그들의 국가어인 카자흐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소비에트 고려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의 토착민족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동화될 수 없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시골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카자흐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고려인과 소통에는 우선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카자흐어를 모른다는 것은 카자흐와 언어적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카자흐 민족 주체국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책이 언어정책으로 국가어로서 카자흐어를 지정한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이민족의 지배하에 많은 수의 카자흐인이 자신들의 민족어인 카자흐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민족의 언어상실에 대한 위기감과 심각성이 함께 인식되고 있었다.

독립국가들의 새로운 국가어의 지정은 고려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수민족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다. 구소련 중앙아시아 각 공화국의 러시아인, 독일인, 유대인 등 많은 민족들이 구 소련 해체 이후 모국으로 떠난 큰 이유가 언어를 비롯하여 토착민족 중심으로 사회의 재편성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감지하였기 때문이었다. 공화국 중에서 토착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도 러시아 영역의 극동으로 떠나기도 했다.

새로운 독립국은 토착민 언어를 국가어로 정착시키기 위해 부작용을 줄이는 점진적 강화정책을 써왔고, 카자흐 토착민이 절반 이하를 유지했던 인구문제도 중요시되었다. 토착민 인구비율문제는 강력한 해외 카자흐민족 유인정책으로 현재 카자흐가 70%를

차지하며, 이와 아울러 언어에 있어서도 공적 사적 영역에서 20 년이 지난 지금 국가어 지배율이 달라졌다.

연구자의 알마티 생활은 5 년에 가까워졌는데 가장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일상에서 높아진 카자흐어의 비중이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일례로 가끔 알마타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대화를 나누면 예전 같지 않게 카자흐어로 말을 거는 운전사가 많아진 것을 느낀다. 그가 한말이 카자흐어라는 것을 알아차린 연구자는 ‘저는 카자흐어를 못하는데요’라고 말하면 그 운전수는 일체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불편한 침묵을 깨기 위해 내가 카자흐스탄 국민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밝히면 그때서야 짙막하게 러시아어를 구사하면서 태도를 고쳤다. 그는 러시아어가 서툴며 순수 카자흐어를 구사하는 카자흐였던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대도시는 점점 시골에서 학생들과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순수 카자흐어만 구사하는 카자흐가 늘어나고 있다. 연구자가 거리의 주소를 물어오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버스에서, 가게와 식당 등에서 이제 아예 러시아어로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에서도 카자흐어 몇마디를 서툴게 외워 인사를 하면 아주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이고 카자흐말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카자흐도 가끔 있다. 이렇게 연구자에게도 일상에서 카자흐어에 대한 압력을 느끼는 상황이 잦아들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어를 해야 할 당연성에 이의를 달 수 없는 상황이 공적인 영역에서, 더군다나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더욱 강화되어있다. 연구자의 소속 국립대학교에서 몇 년전과는 비교가 안되게 모든 면에서 카자흐어로 탈바꿈하였다. 거리의 상업적인 광고와 간판 등에는 아직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이중언어로 표기되어있고, 또한 영어까지 추가되어 간판에 뽁뽁하게 다국어 단어가 채워져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의 경우 카자흐어 점유율이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 건물 내 안내표지판은 카자흐어로 단순화되고 있고,

예전에 러시아어로 쓰여져 있던 것이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이중언어로 동시에 표기하는 과정을 거쳐 이제는 아예 카자흐어 단일어 표기가 늘어난 것이다. 학교의 모든 서류도 이중 언어로 사용되던 것이 카자흐어 위주로 쓰여지고 있고 학술회이나 학과모임 등 공식적 회합에 진행언어도 카자흐어 위주여서 러시아어만 구사하는 사람들은 배제되게 되어있다. 카자흐스탄의 모든 학교와 대학교는 전공별 카자흐반과 러시아어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수가 카자흐어반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학교 행정요원을 비롯하여 공무원 채용에도 기본적으로 카자흐어 구사자가 필수가 되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이제 카자흐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퇴출을 의미하며 아예 임용부터가 불가능하여 공적영역의 진출의 장애를 겪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어에 대한 심각성은 연구자가 많은 고려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그런데 의외로 실제 카자흐어를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난감한 표정을 짓으며, 배우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 새로운 국가어에 대한 소통능력은 이들의 미래의 생존과 연결된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나이든 세대로 갈수록 카자흐어를 수용하는 태도는 이중적이다.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 카자흐어 구사의 필요성과 카자흐어 교육에 대한 문제가 국가차원에서 빈번이 거론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 고려인 내부에서는 고려인을 대표하는 고려인 단체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카자흐어 교육의 활성화와 현실화에 초점을 둔 의제가 발의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동으로 노력해가자는 결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와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전문가와 관계자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구체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다. 2010년 7월 알마티에서 민족총회가 후원하고 고려인 협회에서 주최했던 ‘민족통합의



학습경험과 한국의 언어정책 발전'에 관한 원탁회의가 열렸다. 이 토론의 취지는 140 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7 백여 만명이 재외한인을 통합하기 위해 한국이 실천해온 언어정책을 거울삼아 카자흐스탄 국민인 소수민족들이 국가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애국심을 키우며 국가적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고려인 협회의 회장은 국가어인 카자흐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앞으로 카자흐어 교육과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하며, 카자흐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말에 대해 민족총회 한 관계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반응이 돌아왔다. “당신들은 똑 같은 그 말을 10 년 전에도 했는데 변한 게 무엇이죠?” 이 한마디에 좌중은 조용해지고 긴장이 흘렀다. 그 자리에는 민족총회의 학술과 실천위원회 관계자와 고려인 협회 임원, 고려인 학자, 전문가와 학생, 그리고 한국학자들과 유학생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개적인 질타의 이면에는 고려인들이 흔히 국가어 카자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흔한 공개적 표현을 하면서도 말뿐이지 실제 그 결과에 있어 카자흐어를 배울 의지가 없었는데 대한 지적이었다.

카자흐스탄 사회의 각 부문에서 국가어가 의무적으로 냉정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고려인의 카자흐어 배우기에 대한 태도는 태평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고려인 내부 다양한 출신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깔려있었다. 더군다나 60 대 이상의 나이든 세대의 고려인은 카자흐어를 못해도 생활에 별 불편이 없다고 하면서 알면 좋지만 몰라도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노인세대의 한 고려인 지식인은 카자흐어의 문자가 학문적 용어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대부분의 카자흐어문장 속에 러시아어 단어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카자흐 신생어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카자흐어를 배우면 카자흐스탄 내에서는 좋지. 그러나 세계적인 학문을 공부하려면 카자흐말로는 되지 않아. 카자흐말을 꼭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대로 쓰면 되지(인터뷰 2011. 5.29).

카자흐어 중에는 학문적 용어나 외래 용어에 대입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카자흐 단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카자흐어 신생단어 제작에 대해서 카자흐 학자들이 있어서 “(불펜을 입에 물고 눈동자를 위로 굴리며) 이것을 우리말로 무엇이라 지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며 그 표정과 흥내를 내며 연구자에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다른 고려인은 자신은 우즈벱에서 자랐지만 우즈벱어도 이해 못하고,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한국어도 모르며, 더더구나 카자흐어도 당연히 모른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국어는 오직 러시아어임을 고집했다. 그러면서 카자흐어를 배우려해도 많은 난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나는 학교에서 외국어(불어와 독어) 선생이었는데 나의 손자가 배우는 카자흐어책을 보니 잘 만들어지지 않았더라. 학교에 역사, 지리학, 문학 모두 카자흐어로 되어있는데 선생들도 잘 모르고 잘 안 가르치며 점수만 대충 매긴다. 카자흐어 학습은 불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카자흐어 국어책은 단어만 나열되어있고 문법도 없어 이해하기 힘들다. 손자는 영어나 다른 과목들은 잘한다. 학생은 문제없는데 카자흐어를 가르치는 선생과 책이 문제이다.” (인터뷰 2010.8.5)

그는 오히려 온 가족이 영어 배우기를 선호하며,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도 한국어를 못해서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로 소통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사실 카자흐스탄 교육에 영어의 열풍은 지속적으로 강도가 세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기치하에 교육의 세계화를 이루려는 의지의 일환이며 또한 국가어 공고화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영어는 모든

젊은이들이 배우기를 열망하고 대학진학에 필수 통과과목이면서 최근에는 전공시험에도 영문으로 된 문제가 출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학원과 개인 및 그룹영어과외를 필수로 인식하고 사립 영어전용학교의 인기도가 높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카자흐어가 서툰 일부 카자흐 젊은이들조차 영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려인 젊은이들도 예외 없이 카자흐보다 오히려 영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변명과 이유를 드러내며 카자흐어 학습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는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카자흐어를 못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신들의 잘못이며 그 동안 정부가 소수민족에게 카자흐어를 습득할 충분한 시간을 준 것으로 인정하며, 정부의 너그러운 처사에 대해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정부의 국가어 정책은 당연하게 여기며 두둔하고 있었다.

이곳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서 대통령이 카자흐가 아닌 타민족이 되어도 카자흐말을 중단할 수는 없지. 카자흐를 안 배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카자흐말에 대해 시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한다면 당연히 한국어를 하지 않나? (인터뷰 2011.5.15)

카자흐어가 국가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배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이의를 다는 고려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의 카자흐 언어정책의 정당성을 동조했던 한 고려인은 금년 4 월에는 국가어에 대한 대통령의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고 상기된 목소리로 연구자에게 속삭였다.

대통령 선거직후 대통령이 소수민족연합회의에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어요. (소수민족들을 향해) 나이든 사람은 카자흐어도 모르고 배우기도 힘든데 (당국에서) 서류 같은 것도 무조건 카자흐어로 하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두 가지 언어로 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숨을 돌렸어요. 나는 앞으로 상점이나 어디든지 누군가 카자흐어로 하라고 하면 대통령 지시사항 못 들었나? 라고 말할 거요(인터뷰 2011. 6.12).

카자흐어를 꼭 배워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처지를 헤아려주는 대통령은 고마운 사람으로 표현되며, 억누르고 있던 불만은 카자흐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는 원망을 던지며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또한 독백에 그치고 있었다. 고려인의 카자흐어 대해 내부에 내재된 불만과 압력을 대부분 느끼지만 한편, 적극적인 카자흐어의 구사자도 눈에 띄고 있다. 이민족으로서 카자흐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한 예는 농업대를 졸업하여 한 고려인은 양과수확에 효율적인 기계를 직접 제작하여 특허를 내었던 카자흐어 구사자의 경우이다. 그의 특허기계 양과정리기에 대해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방송에서 그가 직접 카자흐어를 구사하였다는 것이 자랑거리였다. 자신은 어렸을 때 카자흐들과 같이 어울렸고, 또한 카자흐어에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았다고 하면서 카자흐어를 잘하기 때문에 방송에 나간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것은 실제 고려인 중에서 카자흐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가까운 친척 아저씨의 경우는 딸과 손자, 손녀의 배우자가 모두 카자흐인이고, 가족 모두가 카자흐어를 구사하고 또한 러시아어도 구사하여 언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카자흐어로 소통하며 카자흐와 혼혈결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자랑스러운 듯 말하였다. 그의 아저씨 가정에서 행한 금혼식과 60주년 결혼기념잔치에서 찍은 비디오에서는 카자흐 사람들과의 특별한 관계유지가 돋보였다. 식당홀을 빌려 치루진 이 잔치에는 구 소련의 독립국가연합에 흩어져있던 지인들이 모여 인종전시장을

방블케 하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하였고, 잔치는 러시아어, 카자흐어, 고려말까지 3 개국어를 진행하면서 두드러진 장면들은 카자흐 사돈들과 다정한 포즈와 자유로운 언어적 소통, 귀한 선물, 특히 카자흐의 전통드레스 ‘차뻬’와 ‘깜론드’를 주고 받는 화기에애한 모습이었다. 80 세가 넘는 고령의 고려인 주인공이 구사한 3 개국어 중 북한역양의 고려말은 역시 연구자에게 서툰 러시아말보다 알아듣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유창한 카자흐어 실력은 어릴 때부터 주변에 카자흐들과 이웃하여 어울려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말을 빌리면 강제이주 고려인 70%가 크즐오르다에 살았고, 크즐오르다는 순수 카자흐의 지역으로 이 지역에 살았던 고려인들은 당시 카자흐어를 제법 했다고 한다. 자신도 소련 학교에 다녔지만 자연스럽게 주변 카자흐이웃과 교체하면서 카자흐어를 습득하였다고 했다.

우리과 카자흐는 아주 사이가 좋다. 같은 동양계니까 관습도 비슷하다. 여기는 민족차별도 없다. 러시아 가면 민족차별 아주 심하지만. 카자흐어를 못하지만 카자흐와 결혼해도 언어적인 문제는 없었다. 도시 카자흐들은 모두 러시아말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카자흐말 잘 구사하는 사람은 10~20% 정도 될까? 지금까지는 시골에서만 카자흐어 썼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모두 카자흐어를 해야 한다. 카자흐 자신들의 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정책이 맞는 것이다. 러시아인 고려인 할 것 없이 모두 카자흐어 알아야 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법을 알아야 한다. 카자흐어나 한국어나 뿌리가 같다. 고려인, 카자흐, 투르크, 우즈벡 모두 알타이에서 나온 민족 아닌가. 우리 민족이 고려시대 때 원나라 몽고족과 혼혈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순수 한민족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인터뷰 2011.5.23).

그의 카자흐어에 대한 의견은, 고려인은 카자흐와 인종적으로도 관련이 깊고 같은 알타이 언어권과 쉬운 문법 등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카자흐어 배우기가 어렵지 않으며, 또한 정부의 국가어의 정책은 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다민족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카자흐어에 약한 카자흐를 위해서라도 카자흐어 교육은 필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실제 강제이주 이후 일상에서 카자흐와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이미 고려인의 25%가 카자흐어를 대중은 이해하고 있으며 그 중 2~3% 정도 이내는 쓸 정도의 능력도 된다고 낙관한다. 2009 년도 인구에 대한 카자흐스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카자흐스탄 인구비교, 2011) 고려인 10.5%가 카자흐어를 읽고 쓰며 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알마타 같은 도시지역과 크즐오르다 같은 카자흐인 집중거주 지역에 사는 고려인의 카자흐어 구사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실제 도시에 카자흐어 구사 고려인은 보기 드문 일이다. 연구자의 인터뷰의 대상자였던 20 명의 알마타 고려인 중에서 카자흐어 구사자는 2 명에 그치고 있었다. 그런데 카자흐어가 가능한 고려인의 비율은 고려인 자신의 민족어 구사능력의 비율(사할린 출신 제외)에 비하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카자흐어 학습에서 어떠한 불만과 이유도 이제 너그러이 이해될 여지는 없는 것 같다. 카자흐어의 학문적 가치의 타당성의 논란도 학습교재와 학습방법, 교사의 문제의 거론도 카자흐어를 못하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노골화시키지도 않는다. 카자흐어의 비중의 실태는 학교에서 카자흐어반이 아닌 러시아반에서도 카자흐어의 비중이 높아져 있고, 대학교에서도 예전 같지 않게 대학교 교내의 학생들끼리, 직원, 교수들 할 것 없이 주로 쓰이는 언어도 카자흐어로 변모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소수민족의 카자흐어에 대한 부담은 정부의 배려에 의해 덜어졌다. 이들은 공공기관에 서류를 할 때 공무원이 카자흐어로 되어있는 것을 내어주면 러시아 양식으로 달라고 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고려인들이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의 세대는 이미 카자흐어를 습득하기는 늦었고, 실제 활발한 활동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를 들락거리며 서류하면서 국가어에 부딪힐 일이 별로 없고, 어디를 가나 나이든 노인에게 카자흐어를 못한다고 시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카자흐어를 못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언어의 갈등에서 비켜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한 그저 자신들이 살 때 까지만 정부에서 보호하고 러시아어 사용을 허용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어린 세대들은 예외라 치더라도 대부분의 활동인구는 소비에트체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연구자는 얼마 전에 민족단체 대표 간부들이 카자흐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엿들었다. 그 중에 누구는 가족 중에 카자흐가 있기 때문에 카자흐어를 더 빠르게 습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고려인을 대표하는 간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의 입장에 있고, 작년의 따끔한 공개적 질타 이후에 더 이상 실천 없는 약속은 통하지 않고 있으며 물러날 곳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어 배우기에 대한 실천에는 공인으로 있는 고려인에 비해 일반 대다수 고려인은 아직 소극적으로 나타난다.

잠재된 소비에트 의식과 잔재들로 인해 나이든 고려인 세대는 자신들에게만 카자흐어를 못해도 예외의 관용을 베풀어주기를 바라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고려인에게는 카자흐어가 반드시 배워야 할 언어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정부는 빠른 변화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세대에게는 예외의 법칙을 허락하고, 또한 소수민족에게 자신의 민족어를 자유롭게 배우는 것을 지원하는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국가어에 대한 단일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고려인은 과거에는 토착민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무관심한 태도였지만 국가어 강화정책과 함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높아진 국가어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제6장 고려인의 정체성 정치의 결론과 함의

구 소련의 고려인은, 모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모와 혈연적 동질성을 빼고는 한국인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적 지형을 가진 생소한 집단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사회주의체제하에 ‘지옥의 열차여행’이었던 강제이주라는 혹독한 시험을 거치며, 자신의 민족성을 외면하면서까지 거주사회에 철저히 동화되어야 했던 한인 이주민이었다. 이들은 생존의 위협을 감내하며 소비에트인으로 단련되어온 과정에서, ‘소비에트인’이 되는 것에 절대가치를 부여하며 이를 기준으로 내부의 소수집단을 배척하기도 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종전은 다수 고려인 집단에게는 귀속국가의 일원으로 자리잡는 호기로 작용했고 소수집단에게는 일본으로부터 버려진 국제적 미아였으며 공산국가의 포로 같은 존재로 추락하면서 동족의 두 집단은 고질적 갈등관계를 지속하기도 했다.

1988년 한국에서의 서울올림픽은, 참여한 냉전구도의 그늘에 갇혀 있던 구 소련 고려인이란 존재를 드러내는 큰 사건이었다. 서울 올림픽의 계기는 고려인 사회를 동요시키면서, 그 동안 적대국으로 간주되었던 한국은, 이들의 모국과의 감동적인 만남과 함께 북한 이외의 또 하나의 조국으로 포용되어갔다. 서울 올림픽에 이어 일어난 소비에트의 해체는 구 소련 고려인 사회에서 또 한번의 충격이었다. 그것은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각 공화국들은 탈소비에트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체제에 돌입하고, 토착민의 위주의 민족국가를 지향하며 소비에트인으로서 쌓아온 기반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몰락과 독립 공화국의 탄생이라는 거주사회의 대변동은 구 소련 고려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가체제의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부과되며, 국민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에게 위기로 묘사되는 것은, 구 소련의 어떠한 민족들 보다도 소비에트화에 몰두해왔지만, 새로운 환경은 절대적 가치로 간주했던 자신들의 기반을 청산하고 새로운 것으로 갱신하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주요 논의 중의 하나는, 민족 내부 집단의 다양성과 역동성이었다. 외부자적 시각으로 볼 때 잠잠한 하나의 집단으로 보이지만 내부에는 다양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충돌하는 긴장상태였고, 내부자적 관점으로서 역동적인 주체들이 ‘투쟁하는 현장’에서 이들의 구체적 존재를 드러내었다. 연구자는 내부의 분화와 갈등, 화합 그리고 거주사회와의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각기 특수한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재현했던 삶의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맥락 속에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맥락에서 민족집단 내부에는 이질성이 부각되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동질성이 강화되며 경계 짓기와 경계 허물기를 반복하는 유동적 주체와 경계의 취약성을 보였다. 두 집단의 이질성이 서로 부각된 것은 한 집단의 저항과 다른 집단의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강력한 외부적 억압구조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소비에트체제를 먼저 경험했던 구이민자는 ‘러시아인 같은’ 존재, 신이민자는 ‘일본인 같은’ 존재라는 차이와 이분법을 생산하며 ‘열등한’ 존재는 ‘우등한’ 존재와 교제나 결혼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민족기관이나 단체의 공적인 영역에서도 밀려나며 철저히 소외되며 멸시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배척은 이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국이 분할되었던 상황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각기 다른 이념과 다른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연해주 출신은 공산 형제국이었던 북한, 사할린 출신은 적국 남한으로 분류되며, 같은 소비에트인이면서 ‘적국민 성격’을 지닌 이방인으로 배척되었다. 다수에 의한 소수의 배제의 틀은

소수가 ‘미숙한 소비에트인’을 탈피한 이후에도 ‘자신’은 개방적인 ‘러시아인 같은’ 그리고 ‘그들’은 이중적인 ‘일본인 같은’ 성격차이의 경계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체제의 한계와 냉전의 이념적 구도의 악화 상황에서 치루어진 서울올림픽의 계기는 두 집단의 차이보다는 혈연적 동질성이 부각되었다.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환영과 상봉은 고려인 집단에게 큰 충격을 던졌으며, 적국으로 간주되었던 남한의 화려한 변신은 자신의 모습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파장은 ‘민족뿌리 찾기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민족애와 동포애’가 강조되며 내부의 차별적 구도를 무력화시켰다.

구 소련 고려인은 올림픽을 계기로 수용된 새 모국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기존 거주사회의 해체로 새로운 독립국의 국민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계 짓기와 정체성 정치를 보였다. 한국인과 고려인 두 한민족은 그 감동적인 만남이 무색하게도 점차 서로 ‘다름’을 인식하며, 한국인과의 새로운 경계가 형성되었다. 한국과의 교류가 늘어가고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그 중에는 ‘한국의 특수’를 누리는 고려인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경제구조에 체질화되어 왔던 ‘자본주의적’ 그리고 ‘공산주의적’ 사고와 실천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며 이질적인 존재임을 강화하여 배척하였다.

고려인 집단은 혈연적 모국과의 갈등과는 다르게 거주사회에서는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해가며 차이의 벽을 끊임없이 해체하는 정치적 과정을 보이고 있다. 소비에트의 해체에 이은 새로운 독립국으로의 전환은 토착민인 주체민족이 주도하는 사회로서 자신들을 또 한번 갱신해야 하는 위기였다. 새로운 독립국의 법적인 국민이면서 ‘완전한’ 국민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모국민도 아닌 애매한 불안한 존재들로 남게 되었다. 토착민 위주의 민족국가건설과 다민족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공동체주의를 추구해왔지만, 동시에 다문화와 톨레랑스를 부르짖는 독립국에서 하나의 국가어가

강화되면서 고려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는 주변화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밀려나고 있다. 고려인들은 새로운 국가어 문제와 민족갈등이나 민족차별에 대한 우려와 민감한 반응을 억누르면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자신들이 배려와 보호받고 있다고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국가어 의무에 대해 ‘꼭 배워야 국가어’, ‘장래에는 꼭 필요한 언어’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그 실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의 모순과 갈등을 보였다.

한편,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담론의 지속적 유포는 태도와 행동을 지배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강제이주의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을 도와준 ‘고마운 카자흐’, ‘착한 카자흐’는, 사회에 만연해있고,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한국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우호를 위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각인되어왔다. 불만과 불안적 요소가 있더라도 고려인에게 카자흐스탄은 현실적 조국이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단체의 합창단의 경우 이전에 러시아 곡을 카자흐노래로 대체하여 부르고 있고, 또한 일부에게 카자흐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과 카자흐와의 사돈 맺는 일은 자랑거리가 되었다. 자신들의 조국은 오히려 한국이 아닌 카자흐스탄임을 강조하면서, 같은 혈연적 동족인 한국인과의 대립적 관계를 보인 것과는 다른, 거주사회에서의 불만과 원망을 드러내기를 자제하면서 타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민족내부의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주변화시키며 경계지었던 차이는,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구성되는 차이에 있음을 보였다. 서로를 배척했던 차이는 거주사회에서 먼저 다져온 기반으로 우열의 차이를 생산했고, 조국의 분단상황에서는 출신지역의 이념적 차이로, 나아가 서로 다른 ‘근본적인’ 성격차이로 낙인되며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드러내는 이질성의 이면에는 과거의 특정상황의 고통적 경험에서 파생된 감정이 결부된 기억이 자리잡고 있었다. 사할린에서 지배권력에 의해 수직적 구조에서 한 집단은 관리 통제하는 입장, 다른 집단은 통제당해야 했던 서로 다르게 위치되어야 했던

경험의 기억이었다. 이 두 집단에게 각각 ‘우월감’과 ‘치욕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기반한 대립된 이미지를 생산하며 이질성을 강화했고, 소수집단을 향한 지속적 인식적 폭력을 가했다. 우월감에는 자신들은 일체에 항거하며 명예로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것과 상대는 적대적인 ‘일본국민’이면서 노무자 출신이라는 것도 깔려있었다. 그러나 이념의 베일을 벗고 드러난 ‘부강한 조국’의 등장 맥락에서는 다름이 아닌 ‘원초적’ 민족성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림픽에서 두 동족은 서로 ‘진한 피’를 확인했던 ‘감동적인 만남’으로 ‘조상의 땅’, ‘한 핏줄’이라는 혈연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민족애가 부각되며 ‘하나의 민족’으로 포용되었다. 민족 동질성의 강조는 소수집단의 해방을 의미하였고, 재현된 ‘한 핏줄’이라는 내러티브 속에 멸시적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그런데 한민족이라는 ‘절대감정’으로 피어났던 민족애는 오래가지 않았다. 모국인 한국은 독일이나 이스라엘처럼 자신들이 기대했던 만큼 받아주는 모국이 아닌 ‘원망스러운 모국’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두 한민족의 경험에서 고려인에게 한국인은 ‘자신들을 부러먹고 무시하며 속이기까지 하는’ 사람들로 각인되었고, 그리하여 한국인들은 ‘잘난 채 하지만 자신들보다는 결코 잘 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하며 자신들을 우위에 놓는 새로운 차이로 대립하였다. 경계짓기와 해체에 있어 이러한 비가시적인 정서적 요소는 특정 맥락과 자극에서 각각 부정적 이미지 혹은 긍정적인 동질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에 동원되었다.

모국인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강화하며 차이를 생산하고 배척해왔다면 민족 외부에서는 토착민과 과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며 밀착을 보였다. 토착민과 자신의 역사와의 유대감이나 또한 정서적 동질감을 부각하며, 두 민족간에 서로 강하게 각인된 ‘부지런하고 책임감 강한 고려인’ 과 ‘고려인을 도와준 고맙고 착한 카자흐’라는 이미지로 구축된 좋은 감정과 호혜적 관계의 표현은

다른 부정적인 요소들을 억누르며 거주사회에서 기반을 잡는 중요한 자원으로 삼았다.

이글에서는 소비에트체제라는 강력한 구조하에 민족집단을 균질하고 통합된 공동체로 그려왔던 것과는 달리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들의 여러가지의 목소리를 가진 주체로서 재현하며 그 다양성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주체의 나래티브 속에 삶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떠한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분석하며 민족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고려인 집단과 민족 외부의 다양한 집단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를 지녔으며, 더 다양한 관점과 맥락에서 이들의 존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 즉, 소비에트의 지배민족이었던 러시아인, 현재의 주도민족인 카자흐인 이외에 고려인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며 공유해왔던 많은 주변민족들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고려인 민족집단 외부에는 스탈린 치하의 강제이주의 고통을 같이 겪었으며, 지배민족 외의 같은 소비에트인으로서 길을 걸어왔던, 다른 민족들과 경쟁이나 공모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역사가 있었다. 현재 고려인 집단은 잠재적 민족적 차별이나 갈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며, 독립 이후 특히 기존 지배자와 피지배자간 힘의 역전이 이루어진 상황에 있어 사회적 물질 기반이 재편성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토착민족과 같은 위구르나 따타르 등 투르크계 민족의 위상이나 입지가 더 높아진 상태에서 같은 유색인으로서의 고려인과의 어떠한 경합과 갈등 혹은 화합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현재의 고려인들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소통의 열쇠가 된다.

또한 이 연구과정에서 드러나고 언급된 고려인 단체내부의 갈등이나 분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로 구성된 독립운동가단체 내부에서도 긴장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소비에트 건설과정에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적군과 백군으로 분리되어 항일 독립부대들도 분열에 휘말려야 했고, 소비에트

세력에 적극적으로 합류했던 그룹과 그렇지 못한 저항적 그룹간의 엇갈렸던 운명과도 연관이 있다. 소련 해체 이후 한국이나 한국학자와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작업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은 그 진의를 밝히기 보다는 과거로 묻힌 상태이다. 무력투쟁을 불사하며 해외 항일독립운동사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구 소련의 고려인 독립후손의 재발굴 작업과 이들 조상의 업적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절실하다.

고려인 사회에서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련의 몰락으로 단일한 공간에 공유했던 소비에트 고려인들은 이제 각 독립국으로 분리된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50만 명의 고려인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구 소련내부의 물리적 경계들은 이주를 야기했고 가족이나 친척과의 격리로 또 다른 시련과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또한 구 소련의 독립국가들의 각기 상이한 특징을 가진 구조하에 편입됨으로써 고려인들의 입지는 서로 다르게 서있고, 서로 다른 삶의 다른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비교문화적 시각으로 이들의 문화적 지형의 차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구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과도기적 전환기에 일부 고려인들에게는 경제적 영역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았고 재력가로 부상하며 고려인 사회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반대로 경제구조의 변화와 독립 국가의 민족국가건설과정에서 대부분의 고려인이 기존의 공적인 안정적인 직장으로부터 생계를 위한 소규모 사경제로 밀려나왔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서 경제적 활동영역을 구축한 자와 아니면 오히려 주변화되고 있는 고려인의 경제활동 현장을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류학적 연구 천착은 결국 타자와 소통하며 타자를 거울삼아 자신을 성찰하는 데에 있다. 홀(Hall)에 의하면 문화란 그저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어떤 것, 혹은 거대한 지배적 이론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정적 대상이 아니라, 치열한 투쟁을 요구하는 하나의 동적인 과정으로 설명하였다(Procter, 25). 문화현장에서 그들만의 특수한 경험과 기억, 그리고 얼룩진 삶의 공간에서의 그들의 삶을 이해해가는 노력은 연구자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유용한 작업이었다.

## 참고문헌

### <국문>

- 강규형. 「한국과 냉전: 제 2냉전성립기의 KAL기 격추사건과 그 종식기의 서울올림픽이 냉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중앙연구원, 2003(91): 235-259.
- 강명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한국진출 기업 실태』. 서울: 북코리아, 2006.
- 김계르만. 『한인이주의 역사』. 서울: 박영사, 2005.
- 김블라디미르 외. 『재외한인 민족교육의 실태』. 과주: 집문당, 2005.
- 고동현. 「정체성 정치의 이론적 구성과 전략저들」. 연세학술논집 (20). 1999:117-148.
- 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엮음』. 서울: 이론과 실천, 1990.
- 권희영. 『세계의 한민족: 독립국가와 연합』. 세계한민총서 (5). 통일원, 1996.
- 김광익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2005.
- 마지또브 (Magitov S.) 「광활한 대지의 유목민사」. 유라시아 골든허브. 서울: 평사리, 2010: 36-49.
- 박홍갑, 강인구 편.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민족운동』. 제외동포총서 07 상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8.
- 박홍갑, 강인구 편.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민족운동』. 제외동포총서 08 하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8.
- 변창구. 「고르바초프의 신아시아정책」. 효성여자대학 논문집. 1990 (41): 261-283.
- 부가이 N.F. 『재소한인들의 수난사』. 최정운 역. 서울: 세종연구소, 1996.
- 성동기.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확대와 고려인의 역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 2009: 204-263.
- 신연자. 『소비에트 코리안』. 서울: 동아일보사, 1988.
- 심현용. 「러시아의 강제 이주된 민족들 명예회복 정책」. 해외한인연구 (8: 1) 1999: 359-378.
- 심현용. 「중앙아시아 한인의 현지 정착과 사회적 지위」. 박홍갑, 강인구 편. 제외동포총서.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8: 207-237.
- 심현용. 「강제이주의 발생 메커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연구: 소련 강제이주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학회 39(3). 1999: 197-218.
- 이광규, 전경수. 『재소한인(인류학적 접근)』. 서울: 집문당. 1993.



- 이윤근, 김명수. 「서울 올림픽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친 영향」. 한국교육문제(6). 1990: 189-201.
- 이지명. 『넘쳐나는 민족 사라진 주체: 민족 담론의 공존을 위해』. 서울: 책세상, 2004.
- 임영상, 황영삼 외.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서울: 한국 외대출판부, 2005.
- 유승만. 「소비에트 언어정책의 이론과 실제」.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0: 137-162.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출판, 2008.
- 전경수. 『까자흐스탄 한인』. 서울대출판, 2002.
- 정근식, 염미경.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재외한인연구 9편, 2000: 237-280.
- 정경택. 「중앙아시아 6개국 언어정책과 러시아 연방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1), 2009: 299-349.
- 정상진. 「잡지 '고려문화' 창간호를 읽고서」. 고려문화 (2) 서울: 황금두뇌. 2007: 18-35.
- 정장길. 「스탈린의 제물」. 고려문화(2). 서울: 황금두뇌. 2007: 247-279.
- 최한우. 「구소련 해체후 중앙아시아 현상과 한인 정체성 문제」. 한국사회학논문제 48. 서울: 문화지성사, 1996: 165-239.
- 한국문화인류학회 편. 『문화 인류학』. 서울: 일조각, 2003.
- 한세르게이, 한발레리. 『한인, 우리는 누구인가』. 김태항 역. 서울: 고담사, 1999.
- Ayabe, tsuneco eds. 20 theories of cultural anthropology (2006). 유명기 옮김. 『문화인류학 20가지 이론』. 서울: 일조각, 2009.
- Bhabha, H.K. The Location of Culture (1994).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서울: 소명, 2002.
-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1973). 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1998.
- Hall, S.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S. Hall, Held & T. MzGrew eds. Modernity and its Futures (1992). 전효관 외 옮김.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모더니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 2000: 320-375.
- Jesen M.B. 『일본과 세계의 만남』. 장화영 옮김. 소화, 1999.
- Nicikawa, Nagao, Zouno, Kokkyou, No, Koekata. How to cross border: Culture, civilization and Nation-state (2001). 한경구, 이목 옮김. 서울: 일조각, 2002.
- Procter, James. Stuart Hall. 손유경 역. 『지금 스투어트 홀』. 손유경 역. 서울: 알피, 2006.
- Spradley, James P. Participant Observation, (1980). 신재영 역. 『참여관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Spivak, Gayatri.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1999). 태혜숙, 박미선 역.

『포스트 식민 이성 비판』. 서울: 갈무리, 2005.

### <영문 외>

Barth, F.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Oslo: Bergen, 1969.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1983). trans. Yoon H. Seoul: Nanam, 2007.

Bhabha, H.K. *Nation and Narration*. –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Brubaker, R., Cooper, F. “Beyond 'Identity'”, *Theory and Society* (29). 2000: 1- 47.

Hall, Edward. *The Silent Language*. – New York: Doubleday, 1959.

Kang Shin-pyo. “Comparing the Seoul Olympic and the Barcelona Olympics: torch relay and TV broadcast”, *Korean Culture and Seoul Olympic Studies and Kang, Shin-pyo: His Olympic Academic Movemen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0: 300-323.

Kho Songmu.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 Studia Orientalia, 61. Helsinki, Finnish Oriental Society, 1987. – 262 c.

Petrov, A.N. “Koreans and their importance in the economy of the Far East”, *North Asia* 1 (25). Moscow, 1929: 41-49.

Safran, W. “Diaspora in Modern Societies: Myth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s* 1(1). 1991: 83-84.

Sen, Amartya. *Identity and Violence: The Illusion of Destiny*. New York: Norton, 2006.

Smith, A.D. *Nations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 Cambridge: Polity Press, 1995.

Suh, D.S. *Koreans in the Soviet Union*. Univ. Hawaii Press, 1987.

Swann, W.B. “Identity negotiation: Where two roads meet”,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987: 1038-1051.

Абдигалиева Г.К.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по спецкурсу «Философские проблемы аксиологии». –Алматы, КазНУ им. ал-Фараби, 2002.

Аносов С.Д. Корейцы в 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 Владивосток, 1928.

Бек Т.Х., Ди Е.С., Шин К.Б. и других.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1937-2000) / Сборник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Т.3. Алматинский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нститут по Изучению Казахстана. . – Алматы-Сеул, 2000..

Бугай Н.Ф. Депортация народов. СКЕПИС –М: Наука. 2004.

[http://scepsis.ru/library/id\\_1237.hyml](http://scepsis.ru/library/id_1237.hyml)

Канг Г.В.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Гылым, 1995.

Канг Г.В., Ан В.И., Ким Г.Н., Мен Д.В.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ационная история (1937-1997).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 Сеул: STC, 1997.

Ким Г. Н, Мен Д. В.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Национальн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Центр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 Алматы: Гылым, 1995.

Ким С.Х.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ских корейцев. – Алма-Ата, 1965.

- Ли Л. Повествование о Ли Дон Хви. – Алматы: ТОО «Верна», 2003.
- Ли У.Х., Ким Е.У.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 годах. Книга первая. – Москва: Интерпракс, 1992.
- Ли У.Х., Ким Е.У.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 годах. Книга вторая. – Москва: МККА, 1997.
- Кшибеков Д.К. Ментальная природа казахов. – Алматы: Гылым, 2005.
- Мен Д.В., Квон Л.А., Ким З.В., Пан Н.Г.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 Алматы, 1992.
- Мен Д.В., Чжан В.Ч., Бек Т.Х. и другие.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1937-1998). Сборник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Т.1. Алматинский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нститут по Изучению Казахстана. – Алматы: Сеул, 1998.
- Мен Д.В., Чжан В.Ч., Бек Т.Х. и другие.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1937-1999). Сборник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Т.2. Алматинский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нститут по Изучению Казахстана. – Алматы: Сеул, 1999.
- Мен Д.В., Квон Л. А., Ким З. В., Пан Н. Г.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1992.
- Сим Х. Корейский этнос в систем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ССР: кандидатская диссертац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я Наук институт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и. – Москва, 1998. – С. 29-46.
- Хегай А.Ю. Материал о Списке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лиц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МПЦ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равозащитный центр). ДКНБ. 2002.

#### <기타>

- 구 소련한인 신문 <레닌기치>, 1938~1990.
- 카자흐스탄 고려인 신문 <고려일보>, 1991 이후부터 현재까지.
- 한국신문 <경향신문>, <시사저널>, <머니투데이>.
- 1983 Население СССР (1983 소련인구통계).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 Москва. –Р.128-129.
-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Казахстана 2009 года (2009 카자흐스탄 인구통계).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 Астана, 2010.
- Сравнительная таблица, Насел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카자흐스탄 인구비교표). 2011 г.
- Брошюра о Алмат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알마티 고려인 민족문화센터 자료). – Алматы: АКНЦ, 2009. – 36 с.
-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ове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07 г. (2007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http://www.constcouncil.kz/rus/norpb/constkr/>

##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사회 전환기 포스트 소비에트 고려인의 정체성 정치 (문화 인류학적 연구)

### 국문초록

지구촌 사회는 그 구조와 관계에 있어 훨씬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문화간 경계를 짓고 경계내의 민족성이나 문화를 본질적이고 균질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의문시되고 있다. 통일되고 독립적이고 분리된 경계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세계화’, ‘초국가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혼종성’ 등의 학문적 영역에서 이론적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하나의 소수민족으로서 공통의 역사를 공유해온 측면에서 동질적 공동체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고려인 내부 집단의 고질적 갈등이 점철되어 있었고, 소비에트 기반의 해체 이후 새로운 독립국의 국민으로의 적응에 아픔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에게 새로운 모국으로 부상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절망과 한계를 체험하고 있었다.

연구는 고려인들의 사회활동 영역에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에 기반한 현지조사를 통해 전환기의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심층적 문화적 지형을 그려 내었으며, 이것은 이들에 대한 후속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소비에트 해체와 새로운 독립국 탄생이라는 사회 대변동에서 적응과 변화에 대응해 가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 1) 종족, 민족, 디아스포라의 이론적 개념; 2) 연구방법으로서 문화 인류학적 접근법인 현지조사,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 3) 고려인 이주역사와 정착, 그리고 정체성 형성; 고려인 사회 내부의 다양성, 4) 새로운 독립국의 국민 되기, 모국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들에 의해 과거의 기억과 경험으로 재생산되고 재현된 내러티브를 분석하며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체성의 유동성과 역동성을 밝혔다.

## **Identity Politics of Post-Soviet Koreans in the Social Transition after Independence of Kazakhstan (Cultural anthropological study)**

### **ABSTRACT**

Post-Soviet Koreans (Goryeoin) as minor ethnic group are easily seen as a homogeneous community. Unlike defining Goryeoin as the homogeneous russianized Koreans in the existing researches, the Goryeoin have suffered from deep-seated schism among diverse inner groups, and from renewal pain of fitting for citizens in new independent country. Furthermore they spurted despair and resentment to motherland and made noise with homeland Koreans in Kazakhstan.

The study intends to interpret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Goryeoin's lives by exploring inner dynamic and diverse cultural topography. Based on conducting field work in their activity sphere, attempting to communicate with them will provide important clues for the future research and understanding them

The study establishes following tasks so as to identify the dynamic identity politics of Goryeoin as an ethnic minority in the new external conditions of the Soviet dissolution and Kazakhstani independence: 1) To discuss theoretical background of terms on ethnos, nation and diaspora, and cultural-anthropological methodology with the conduct of fieldwork: participatory observations; in-depth interviews; informal interviews; 2) To examine the settlement history of immigrant Korean as an ethnic minority, and then identify limitations and positions in the host society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 3) To explore the historical process of Goryeoin migrants' identity formation, and then examine the inner variety and differentiation process of the group; 4) To represent Goryeoin narratives, and interpret and analyze their cultural significance from experiences and memories.

To explore the dynamics and fluidity of identity in Kazakhstani Goryeoin, the

study analyzed Goryeoin's narratives represented and interpreted by their memories and experiences through the researcher's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informal interviews.

Beyond the previous superficial studies on Goryeoin society that stayed at utilizing document-based data or questionnaire survey, this study provides scientific novelties and originality analyzing the inner depths of Goryeoin society through anthropological research. This study results showed the identifying process as the "site of struggle" making conflicts and divisions, achieving harmony, and compromising among them with continuously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by different experience, memory and sentiment.

*Scientific publication*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사회 전환기  
포스트 소비에트 고려인의 정체성 정치 (문화인류학적 연구)

명순옥 저

*Monograph*

*Cover designer: A. Kaliyeva*  
*Computer page makeup: G. Shakkozova*

**IS No.12819**

Signed for publishing 20.06.2019. Format 60x90 <sup>1</sup>/<sub>16</sub>.  
Offset paper. Digital printing. Volume 14,5 printer's sheet.  
Edition 1000. Order No. 5014.

Publishing house «Қазақ университеті»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71 Al-Farabi, 050040, Almaty  
Printed in publishing house «Қазақ университеті»